

2020
창원
조각
비엔날레
가이드북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GUIDE BOOK

2020창원조각비엔날레
가이드북

비조각-가뽀거나 유연하거나
2020. 9.17-11.1 성산아트홀, 용지공원(포정사)

 2020창원조각비엔날레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2020
창원
조각
비엔날레
CHANGWON
SCULPTURE
BIENNALE

목차 Contents

| | |
|---------------------------------------------------------------|-----------|
|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설립 목적 Purpose of Changwon Sculpture Biennale | 6 |
| 역대 비엔날레 History of Changwon Sculpture Biennale | 7 |
| 인사말 Greetings | 8 |
| 서문 Preface | 12 |
| 출품 작가 Participating Artists | 18 |
| 작품 배치도 Map of the Artworks Site | 35 |
| 본전시 1_비조각으로부터 Main Exhibition 1_From Non-Sculpture | 30 |
| 본전시 2_비조각으로 Main Exhibition 2_To Non-Sculpture | 45 |

| | |
|--------------------------------------------------------------|------------|
| 특별전 1_이승택, 한국의 비조각 | 114 |
| Special Exhibition 1_Seoung-Taek LEE, Non-Sculpture of Korea | |
| 특별전 2_아시아 청년 미디어 조각 | 123 |
| Special Exhibition 2_Young Asian Artist Media Sculpture | |
| 포토 앨범 Photo Album | 137 |
| 후원 및 협찬 Sponsors | 142 |
| 2020창원조각비엔날레를 만든 사람들 | 144 |
| People who mad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 |
| 오시는 길 Guide Map | 145 |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설립 목적

Introduction of Changwon Sculpture Biennale

조각 거장들의 고향, 창원

이곳 창원은 김종영(1915~1982), 문신(1923~1995), 박종배(1935~), 박석원(1942~), 김영원(1947~) 등 한국을 대표하는 조각가들을 배출한 도시입니다. 창원시는 이러한 명성을 알리기 위해 조각을 특화한 국내 유일의 조각 비엔날레 행사를 2년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각가 문신을 기리는 ‘2010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을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 제 1회의 행사를 시작한 지 어느덧 2020년에 5회 비엔날레를 개최함으로써 10주년을 맞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역대 비엔날레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Changwon, the home of Korean master sculptors

Changwon-si is very well-known in the art world as the home of some of Korea's most notable sculptors, including Kim Chong Yung(1915~1982), Moon Shin(1923~1995), Park Chong Bae(1935~), Park Suk Won(1942~) and Kim Young Won(1947~). To raise awareness around the world of its ever-growing legacy in sculpture and art, Changwon-si has been hosting a Sculpture Biennale since 2010. Since the successful launch of the very first Changwon Sculpture Biennale in 2012, building upon our previous experience of holding the “Moon Shin International Sculpture Symposium” in 2010, we are delighted to celebrate the 10 years of the Biennale with its 5th installment this year. The past Biennales are as follows.

역대 비엔날레

History of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0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 김영호 커미셔너

Moonshin International Sculpture Symposium
Young-Ho KIM, Commissioner

2010. 8. 2—10. 29

2012

1회 창원조각비엔날레 ‘꿈꾸는 섬’ 서성록 총감독

1st Changwon Sculpture Biennale “Dreaming Island”
Seong-Rok SEO, Artistic Director

2012. 9. 25—11. 9

2014

2회 창원조각비엔날레 ‘달 그림자’ 최태만 예술감독

2nd Changwon Sculpture Biennale “The Shade of the Moon”
Tae-Man CHOI, Artistic Director

2014. 9. 25—11. 9

2016

3회 창원조각비엔날레 ‘억조창생’ 윤진섭 총감독

3rd Changwon Sculpture Biennale “Eok-Jo-Chang-Saeng”
Jin-Sup YOON, Artistic Director

2016. 9. 22—10. 23

2018

4회 창원조각비엔날레 ‘불각의 균형’ 윤범모 총감독

4th Changwon Sculpture Biennale “The Balance of Non Sculpting”
Bum-Mo YOUN, Artistic Director

2018. 9. 4—10. 14

2020

5회 창원조각비엔날레 ‘비조각-가볍거나 유연하거나’ 김성호 총감독

5th Changwon Sculpture Biennale “Non-Sculpture: Light or Flexible”
Sung-Ho KIM, Artistic Director

2020. 9. 17—11. 1

세계적인 조각의 도시, 창원

Changwon, International city of Sculpture

우리 창원시는 세계적인 조각가들을 배출한 도시입니다. 한국에 현대 추상 조각의 길을 연 거장 김종영 (1915~1982) 조각가를 비롯하여, 자신만의 독창적 조형 세계를 개척한 문신(1923~1995) 조각가의 예술 정신이 면면히 흐르는 곳입니다.

통합 창원시 10주년을 맞이한 매우 중요한 시기에 2020창원조각비엔날레가 열린다는 소식을 함께 나누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비엔날레 또한 통합 10주년이 되는 주요한 분기점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성찰을 도모하는 주제인 ‘비조각 - 가법거나 유언하거나’를 통해 10년의 세월을 반추하는 이번 행사가 비엔날레의 비전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역대 최고의 참여 국가 수, 역대 최초 아프리카 대륙의 5개국 참여, 역대 최초 홍보대사 위촉, 역대 최대의 지역 작가 비율, 지역 협력 큐레이터의 발굴과 지원, 지역 공연 단체와 지역 상권과의 작품작 협업 등 올해 비엔날레는 여러 가지 훌륭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국내외 컨퍼런스와 아티스트 워크숍, 아티스트 토크,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엔날레의 새로운 위상을 만들고자 힘쓰는 김성호 총감독님과 황무현 추진위원장님, 그리고 추진팀의 구성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Changwon is home to a number of world's greatest sculptors including Chong-Yung Kim (1915-1982), father of Korea's modern abstract sculpture, and Shin Moon (1923-1995), a trailblazer who created his own artistic style.

It is my joy to share with you the opening of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as the city celebrates its 10-year anniversary of integration with neighboring cities: Masan and Jinhae. This year, the Biennale also marks its 10th anniversary, an important turning point for its future. I hope that the Biennale serves as a venue to reflect on the past and set the direction for the future, with the contemplative theme of "Non-Sculpture: Light or Flexible."

In 2020, the Biennale boasts the largest number of participating countries, especially from Africa (5 African countries), and the largest number of regional sculptors. This year's Biennale will be the fruit of many endeavors such as appointing the first honorary ambassador, supporting regional curators, and collaborating with performance groups and commerce of Changwon.

A host of engaging Academic Conference_Seung-Taek LEE, Non-Sculpture of Korea and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artist workshops and Talks, and Community programs are open to visitors.

Lastly, I would like to convey words of congratulations and appreciation to Artistic Director Sung-Ho Kim, Steering Committee Chairperson Mu-Hyun Hwang, and staff for pushing forward the Biennale in this time of hardship due to COVID-19.

창원시장 허성무

Sung-Moo HUH, Mayor of Changwon City

2020창원조각비엔날레를 맞이하며

Greeting for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한국 현대 조각 예술의 거장들인 김중영, 문신 선생의 고향인 창원시에서 세계적인 조각 예술 축제인 ‘2020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러한 예향의 도시 창원에서 김성호 총감독님의 기획으로 국내외 참여 조각가들의 멋진 작품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비조각 - 가법거나 유연하거나’라는 특별한 주제를 통해서 10주년을 맞이하는 5회 행사를 기념한다고 하니, 매우 의미 있는 비엔날레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성찰과 자기반성을 거쳐 비엔날레의 미래를 준비하는 주요한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비엔날레가 창원시의 도시 브랜드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창원 시민과 창원을 찾은 많은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안겨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0창원조각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수고해 주신 황무현 추진위원장님과 추진팀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city of Changwon on hosting one of the world's renowned sculpture festivals,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It is all the more meaningful that such festival is held in Changwon, home to Korea's legendary modern sculptors - Chong-Yung Kim and Shin Moon. It is a sheer delight to enjoy a collection of spectacular artworks by ingenious sculptors at home and abroad in this city of art, thanks to the brilliant curation of Sung-Ho Kim, Artistic Director of the Biennale.

It has been 10 years since we hosted the first Biennale in Changwon. This year, the city celebrates the 5th Biennale under the special theme of "Non-Sculpture: Light or Flexible." I hope this year's Biennale will serve as an invaluable opportunity to prepare for a better future through self-reflection and contemplation.

I expect the Biennale will further promote the brand of the city and touch the hearts of many Changwon citizens and visitors from outside the area.

Last but not least,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Mu-Hyun Hwang, Chairperson of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Steering Committee, and his staff for making this event possible in this time of difficulty.

창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Chi-Woo LEE, Chairperson, Changwon City Council

친근한 창원조각비엔날레

Friendly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문화 예술에 대한 열정과 함께 창원문화재단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제규입니다.

창원시가 주최하고, 창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며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처럼 1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개최되는 2020창원조각비엔날레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자 새롭게 다가오는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듯 김중영과 문신 선생님께서는 창원에서 나고 자라 조각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기신 우리 창원을 대표하는 예술가입니다. 저 또한 창원에서 나고 자라면서 김중영과 문신 선생님의 창작 흔과 그 숨결을 가슴에 담고 동경하며 예술에 대한 신념을 지켜왔습니다.

이 선구자들의 예술혼을 계승해 다양한 주제로 풀어내는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올해는 비조각이라는 얼핏 생소한 낱말이지만, 들여다보면 마치 일상의 영화를 보는 듯한 친근한 모습이기도 한 부분에 큰 공감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가들의 손에서 태어난 작품들이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지듯 어우러지고 김성호 총감독의 조각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통해 국내 유일의 조각 비엔날레, 세계의 미술 현장에서 유의미한 비엔날레가 되는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부디 많은 분이 함께 하시어 2년을 기다려 온 이 축제를 한껏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I am Je-Gyu Kang, President of the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First and foremost,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all culture and art lovers for showing a great interest in our foundation. This year,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hosted by Changwon-si and organized by the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marks its 10th anniversary as it welcomes the visitors to its fifth installment. In this meaningful year, the Biennale will offer the visitors a truly memorable and exciting experience.

As you know well, Changwon is a birthplace of Chong-Yung Kim and Shin Moon, the city's most respected sculptors who have helped shape Korean art. Personally, the creative and passionate mind of these two pioneers have encouraged me to explore the world of art, while I was growing up in Changwon.

Inspired by the passion of these pioneers, this year's Biennale is held with the theme of "Non-Sculpture: Light or Flexible," which may seem a bit unfamiliar at a glance. However, if you take a closer look, you will feel as if the sculptures on display are films about everyday life. Just like a film is directed by a director, the Biennale is orchestrated by Artistic Director Sung-Ho Kim with a flexible interpretation on sculptures.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제규**

Je-Gyu KANG, President,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확장된 조각의 현장

Expanded field of Sculpture

2020창원조각비엔날레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존의 조각공원 조성 프로젝트에서 벗어나 동시대 실험적인 조각 예술의 경향을 소개하고 관련한 담론을 활성화시키는 미술제로 정초시키려고 합니다.

올해 비엔날레 주제는 ‘비조각 : 가볍거나 유연하거나’로 확장된 조각의 현장을 성찰하고자 합니다. 비조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전의 비엔날레의 특성을 잘 견인하고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10주년이 되도록 행사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김성호 총감독과 함께 조각을 특화한 국내 유일의 조각비엔날레라는 특성을 극대화하고,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선보이는 수준 높은 전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엔날레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작품을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즐기고 함께 호흡하는 축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자연, 도시, 조각이 시민의 삶 속에 함께 어우러지고, 새로운 예술적 경험이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어서 도시, 예술, 사람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비엔날레로 만들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In celebration of its 10th anniversary,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seeks to transform itself into a fresh art festival introducing emerging trends of contemporary and experimental sculpture art and encouraging discussions on relevant topics, breaking away from the existing concept of creating a sculpture park.

Under the theme of “Non-Sculpture: Light or Flexible,” this year’s Biennale takes a deep dive into the expanded world of sculptures. Marking the 10th anniversary enables us to take a look back into the Biennale’s history and build upo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previous events through the concept of non-sculpture.

Together with Sung-Ho Kim, Artistic Director of the Biennale, the Steering Committee is dedicated to transforming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into Korea’s most popular artistic festival by bringing out its special features as the country’s one and only sculpture biennale and presenting high-quality exhibitions reflecting the contemporary trends.

Rather than being just another one-way event, the Biennale will offer a wide array of interactive programs for visitors to experience and enjoy.

At the Biennale, visitors will have a first-hand experience which brings together the nature, city, people and sculptures, and blurs the line between everyday life and art. See you at the Biennale and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interest.

2020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장 **황무현**

Mu-Hyun HWANG, Chairperson,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Steering Committee

비조각-가볍거나 유연하거나 Non-Sculpture: Light or Flexible

김성호 Sung-Ho KIM
2020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Artistic Director of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I. 주제 ‘비조각-가볍거나 유연하거나’

2020창원조각비엔날레는 행사 주제로 ‘비조각-가볍거나 유연하거나 (Non-Sculpture: Light or Flexible)’를 제시합니다.

‘조각’비엔날레에서 ‘비(非)조각’을 선보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비조각은 이름처럼 ‘조각이 아닌 무엇’일 텐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어려운 감이 있지만, 조각이 시도하는 ‘자기 부정’의 과정이자 결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부정하게 되면 자기와 다른 것들을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여기에는 ‘조각이 아닌 사물, 자연, 에너지, 예술’ 등 모든 개념을 다 포함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덩치가 크고 견고한 전통적 조각’의 속성 너머에서 가져온 ‘모든 조각’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주제에서 보듯이 ‘가볍거나 유연한 조각’을 포함한 ‘모든 조각’을 품는다는 것이죠.

비조각은 미술사에서 ‘탈경계의 조각’ 혹은 ‘조각의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던 ‘현대 조각’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결국 ‘비조각’의 숨은 의미는 ‘다양한 조각’과 같은 개념과 유사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쉬운 말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아리송한 ‘비조각’이라는 단어를 왜 굳이 주제로 내세웠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비조각이라는 용어가 뿌리를 두고 있는 세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II. 주제어 ‘비조각’

이 비조각이라는 주제어는 다음과 같은 세 곳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비조각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미술사가인 로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 Krauss)가 「확장된 영역에서의 조각(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1979)이라는 논문에서 풍경과 건축이 조

I. Theme “Non-Sculpture : Light or Flexible”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proposes “Non-Sculpture: Light or Flexible” as this year’s theme.

A “sculpture” Biennale to showcase “non-sculptures”? Yes, that is correct. Here, “non-sculpture” is quite self-explanatory: it means “something that is not a sculpture.” If you take a closer look at this keyword, even though it is not so easy, you will see that this keyword is the outcome as well as the process of a sculpture’s self-denial. Think about it. If one denies oneself, one comes to accept that things that used to be different from oneself are now the same as oneself. Here, the concept includes various objects, nature, energy, art, and many more that are “non-sculptural.” In brief, the “non-sculpture” encompasses “all sculptures” of any form beyond the conventional “large-size, rigid, and solid” sculpture with which many of us are familiar. As hinted by the Biennale theme, this concept embraces “all sculptures” including those that are “light or flexible.”

The “non-sculpture” is another way of describing the modern sculpture that has been defined as “sculpture at trans-boundary” or “expansion of sculpture” in the history of art. In final, the hidden meaning of non-sculpture is similar to something like a “diverse sculpture.” There WAS a simpler word than “non-sculpture!” Why, then, the Biennale would make a conscious choice to use this rather perplexing and ambiguous word to describe this year’s theme? To understand better, let us now explore the three following stories about the root of the keyword “non-sculpture.”

각과 만나는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풍경(not-landscape), 비건축(not-architecture)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던 기호학적 방법론을 총감독이 변용하여 만든 것입니다. 즉 조각이 만나는 풍경과 건축을 부정하기보다 조각 스스로 ‘자기 부정’을 피하고 ‘자기 성찰’을 꾀해보자는 제안인 셈입니다. 여기 크라우스가 만든 아래의 도표를 한 번 살펴볼까요?

조각은 풍경과 건축과는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이질적인 것들을 잘 어울리게 하는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풍경과 건축을 부정(not)의 방법론을 통해서 조각과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는 중성화(neuter) 전략입니다. 풍경, 건축으로부터 비풍경, 비건축이라는 ‘모순적 관계’를 만들어 중성화를 시도함으로써 조각과의 만남을 어렵지 않게 성취하는 것이죠. 2020창원조각비엔날레는 이러한 방법론에 ‘조각’ 스스로 ‘자기모순을 통한 자기 부정’을 거쳐 ‘자기반성’을 통한 자기 성찰’을 함유하는 ‘비조각’이 됨으로써 다른 것들과 비슷해지는 중성화를 시도합니다. 너에게 변하라고 권유하기보다 내가 먼저 변해서 만남을 시도하는 착한 비엔날레인 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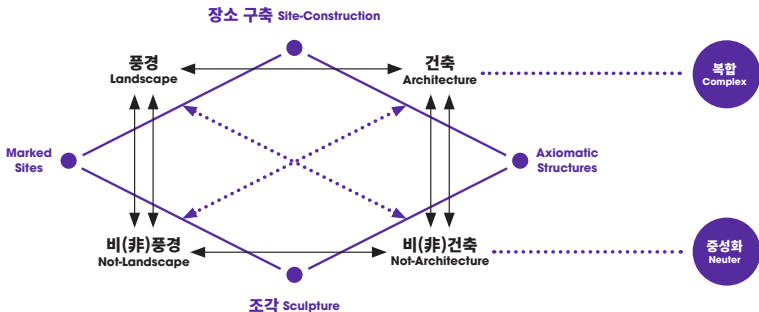
둘째로, 비조각이라는 용어는 한국 조각가 이승택(1932~)이 「내 비조각의 근원」(1980)이라는 에세이에서 서구의 근대 조각의 유산에 저항하면서 ‘조각을 향한 비조각적 실험’을 천명했던 ‘비조각’이라는 개념을 계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승택은 1950년대 말~1960년대의 앵포르멜 회화와 1970년대의 단색화가 주도하는 한국의 주류 미술 현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펼쳤던 작가입니다. 그는 당시 전통적인 조각 재료보다 새끼줄, 밧줄, 어망, 형꺾, 천 조각, 머리털, 깃털, 돌맹이, 부표 등 각종 비조각적인 오브제 조각의 재료로 삼아 설치의 조형 언어로 ‘비조각적인 조각 실험’을 다양하게 선보였습니다.

II. Keyword “Non-Sculpture”

The keyword “non-sculpture” was influenced by the following three lines of thought.

Firstly, the keyword “non-sculpture” is the Biennale Creative Director’s appropriation of the semiotic square created by American art historian Rosalind Krauss in her landmark 1979 essay “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 to describe sculpture as an intersection of “not-landscape” and “not-architecture.” In other words, it is a proposition for a sculpture to seek self-denial and self-reflection rather than denying the landscape or architecture that it encounters. Let us take a look at the diagram below that Krauss created.

A sculpture appears quite differently from landscape or architecture. What would bring those dissimilar things together so they assimilate with each other? This is where the neutering strategy is employed with a “not” methodology that denies landscape and architecture so they appear to be similar to a sculpture. By creating a “paradoxical relationship” among landscape and architecture which results in “not-landscape” and “not-architecture” after being neutered, landscape and architecture can harmonize with sculpture with more ease. Employing such methodology,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attempts to neuter sculptures to make them “non-sculptures” after “self-denial” and “self-contemplation via self-reflection” so they become assimilated with others around them. In this sense, the Biennale





〈바람〉, 1969~2002, 형질, 9000 × 9168mm
 'Wind', 1969~2002, Cloth, 9000 × 9168mm

셋째로, 비조각이라는 용어는 넓게는 동양과 한국의 ‘비(非)물질의 미학’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이번 비엔날레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비물질은 사전적 정의로 “물질이 아닌 것”을 지칭합니다. 물리에서는 “에너지, 시간, 운동성 따위를 이르는 말”입니다. 전혀 조각적인 재료가 아니지요. 서구의 20세기 미술에서 이러한 비물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960~1970년대의 개념 미술, 비디오 아트, 퍼포먼스 등이 그것이지요. 대개 물질적 요소를 비물질적인 재료로 대치해서 미술화하거나 물질을 거부하고 정신성을 지향하는 경향으로 나타난 이러한 서구의 미술 흐름은 원래 오래된 동양적 사유로부터 기원하는 것입니다. 기(氣), 도(道)와 같은 무형의 에너지뿐 아니라 무(無), 공(空)과 같은 부재와 맞물린 존재론, 이(理), 화(和)와 같은 질서의 우주론은 비물질과 연동하는 주요한 동양 미학입니다.

III. 주제 구성과 의미

자, 이제 2020창원조각비엔날레의 주제어 비조각의 개념을 얼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제어 ‘가볍거나’와 ‘유연하거나’는 무엇일까요? ‘가볍거나’는 ‘비조각의 형식’을 의미하는 말로 마련되었습니다. 풀어 말하면 ‘기념비처럼 덩치가 큰 조각’이나 ‘딱딱하고 견고한 조각’과 같은 전통적 조각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조각적 형식을 아우르는 표현인 셈입니다. ‘유연하거나’는 비조각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해,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조각,

has truly a “good” intention to proactively change itself, rather than make others change, to come together harmoniously with others.

Secondly, the use of the keyword “non-sculpture” is an act of carrying on the non-sculptural experiments toward sculpture that were manifested by Korean sculptor Seung-taek Lee (born in 1932) in his 1980 essay “The Origin of My Non-Sculpture,” in resistance to the legacy of Western modern sculpture. Lee developed his own distinctive style, distancing himself from the mainstream Korean art scene dominated by the Art Informel in the late 1950s to the 1960s and by monochrome paintings in the 1970s. Instead of using conventional sculpture materials, he made use of non-sculptural objects including straw-braided ropes, strings, fish nets, old fabric, cloth pieces, human hair, feathers, pebbles, and buoys in his formative language for these experiments.

Thirdly, “non-sculpture” is a celebration of the aesthetics of immateriality in the East and Korea, which is heavily highlighted in this year’s Biennale. Dictionaries define “immateriality” as “something that is not a material.” In physics, “immateriality” refers to things like “energy, time, or motility,” which are not at all materials for a sculpture. The concept of immateriality was enthusiastically embraced by the Western art world in the 20th Century – namely, by the conceptual, video, and performance artists of the West in the 1960s and 1970s. A lot of contemporary Western artworks that replace material objects with immaterial ones or explore spirituality after denying materiality as a whole have their roots in the East. Intangible energy such as qi(氣) and tao(道), the ontological concepts of nothingness(無) and emptiness(空), as well as the cosmological notions of logic(理) and harmony(和), are all at the core of Eastern aesthetics that are linked with immateriality.

III. Composition and Meaning of Theme

Now, the concept of “non-sculpture” – the keyword of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 is a lot clearer. Then, what does it exactly mean to be “light or flexible?” Being “light” refers to the “form” of non-sculptures. In other words, being “light” describes all

‘완성을 향한 미완성’의 개념이 주요한 조각 등을 가리킵니다. 물론 두 주제어가 뚜렷하게 형식과 내용으로 변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의미가 겹쳐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 두 용어는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최소한의 길잡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제, 2020창원조각비엔날레는 통합 창원시 10년을 맞이하고, 비엔날레 태동 10주년을 맞이하는 5회 행사에 이르러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비조각’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자기 부정’과 ‘자기반성’을 도모하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성찰해 봄으로써 10년을 지나는 시점의 미래를 예견하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는 일보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니 이제 “가볍거나 유연한” 조각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culptural forms beyond the conventional sculptures that are large in size like monuments or the traditional rigid and solid sculptures. Being “flexible” refers to the content of non-sculptures: those that are process-oriented, not result-oriented, and that employ the idea of being incomplete toward completion. For sure these two keywords are not always segregated by the binary of form or content. As their meanings sometimes overlap, they act as a basic guide for the general visitors to help their understanding. The summary is as below.

In celebration of the 10 years since the Biennale’s inception with this year’s 5th installment as well a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host city Changwon’s merger with neighboring cities, we are taking a moment to look back. We intend to practice self-denial and self-reflection under the theme of “non-sculpture,” contemplate the past and the present, and ultimately foresee where we will be in 10 years down the road. Having contemplated upon ourselves, rather than blaming others, our encounter with the “light or flexible” sculptures will come much easier.

| 주제어 Keyword | 구성 Content | 해설 Description |
|-----------------------------|---------------------------------|----------------------------------------------------------------------------------------------------------------------------------------------------------------------------------|
| 비조각 Non-Sculpture | 주개념 Main Concept | 조각의 자기반성과 자기 부정 중성화 전략 / 다원주의 조각의 성찰 Self-reflection and self-denial of sculpture Neutering strategy / Reflection on the pluralistic sculpture |
| 가볍거나 Light | 보조 개념 1 Sub-Concept 1 | 비조각의 형식 Anti 기념비처럼 덩치가 큰 조각 / Anti 딱딱하고 견고한 조각 Form of non-sculpture Anti-large-size sculpture like monument / Anti-rigid-or-solid sculpture |
| 유연하거나 Flexible | 보조 개념 2 Sub-Concept 2 | 비조각의 내용 결과보다 과정 중심 / 완성을 향한 미완성 Content of non-sculpture Focus on process rather than results / State of being in complete toward completion |

IV. 프로그램 구성

올해는 본전시 1, 2, 특별전 1, 2와 같은 전시 프로그램뿐 아니라, 시민 강좌, 아티스트 워크숍과 아티스트 토크, 국제 학술 컨퍼런스 및 국내 학술 컨퍼런스_이승택, 한국의 비조각 그리고 체험이 가득한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2020창원조각비엔날레에서 가벼운 형식과 유연한 내용의 조각들을 둘러보시고 볼거리가 가득한 풍성한 프로그램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IV. Programs

This year, the Biennale not only presents exhibitions such as the Main Exhibitions 1 & 2, Special Exhibitions 1 & 2, but also provides some thought-provoking programs including Public Course Program, Artist Workshop and Talks,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and Academic Conference_Seung-Taek LEE, Non-Sculpture of Korea as well as an array of exciting community programs. We encourage you to come join us to enter the world of sculptures with light forms and flexible content and to experience the richness of our programs. Welcome to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본전시 1_비조각으로부터 Main Exhibition 1_From Non-Sculpture

비엔날레 주제, ‘비조각-가볍거나 유연하거나’를 시각화하는 야외 주제전으로 조각의 전형적인 볼륨과 매스를 탈피하고 조각의 다양한 차원을 비조각의 담론으로 성찰하고 실천하는 대형 야외 설치 조각을 선보인다. 자연과 풍경 그리고 건축이 조화를 이룬 ‘비조각적 조각’을 순차적인 동선이 없는 네크워크형의 전시 공간으로 연출한다.

This outdoor exhibition visualizes the Biennale's theme, "Non-Sculpture: Light or Flexible" by showcasing large-size outdoor installation works that move away from the typical marriage of volume and mass of a conventional sculpture but reflect upon the diverse dimensions of a sculpture in the discourse of "non-sculpture" and reinvent them for proper implementation. The exhibition takes place in a network-like space without any pre-set order of consecutive viewing, where nature, landscape, and architecture are harmonized with the "non-sculptural sculptures."

본전시 2_비조각으로 Main Exhibition 2_To Non-Sculpture

비엔날레 주제, ‘비조각-가볍거나 유연하거나’를 시각화하는 실내 주제전으로 다양한 양상의 설치미술과 해체적 조각, 미디어 조각, 관객 참여형 조각을 선보인다. Step 1~Step 7에 이르는 동선에 따른 ‘자연-환경-우주-인간-테크놀로지’로 이어지는 인간 문명의 거시적 내려티브와 ‘생로병사’의 미시적 내려티브로 전시 공간을 구성하고 연출한다.

This indoor exhibition visualizes the Biennale's theme, "Non-Sculpture: Light or Flexible" by showcasing a variety of installations and deconstructive sculptures, media sculptures, and audience-engaging sculptures. The space is composed of a macroscopic narrative of human civilization that flows through "Nature-Environment-Universe-Human-Technology" along the seven Steps that visitors follow, as well as a microscopic narrative of human's "Birth, Aging, Sickness and Death."

특별전 1_이승택, 한국의 비조각 Special Exhibition 1_Seung-Taek LEE, Non-Sculpture of Korea

1980년 자신의 작업을 ‘비조각’이라 천명하면서 ‘비조각적인 실험 조각’을 탐구했던 선구적인 한국 조각가 이승택(1932~)의 회고전 성격의 대규모 개인전이다. 새끼줄, 밧줄, 어망, 형겅, 천 조각, 머리털, 깃털, 돌멩이, 부표 등 각종 비조각적인 오브제를 조각의 재료로 삼아 만들어 낸 ‘비조각적인 조각 실험’을 선보이는 설치 작품과 아카이브 전시이다.

This is a major solo exhibition shedding a retrospective light on a pioneering Korean sculptor Seung-Taek Lee, who explored the depths of "experimental non-sculptures" ever since he declared his works to be "non-sculptural" in 1980. This Special Exhibition features archives and installations that experiment with "non-sculptural sculptures" by using straw-braided ropes, strings, fish nets, old fabric, cloth pieces, human hair, feathers, pebbles, and buoys as non-sculptural material.

특별전 2_아시아 청년 미디어 조각 Special Exhibition 2_Young Asian Artist Media Sculpture

경남, 부산, 울산, 서울 지역의 20-45세에 해당하는 ‘2인 이상의 한 기획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최종 선정된 3인 1팀의 ‘협력 큐레이터 박소희, 조수혜, 고은빈’이 20-45세에 해당하는 아시아 청년 미디어 조각가의 작품을 초대하여 기획하는 특별전이다. 이 특별전은 지역 작가 및 기획자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지역을 토대로 왕성하게 활동하도록 돕고 나아가 국제적인 인력을 육성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A curating contest was held for local curator teams of more than two between the ages of 20 to 45 in Gyeongnam, Busan, Ulsan and Seoul areas. The winning team of So-Hee Park, Susan Cho, Eun-Bin Koh invited young Asian media sculptors for this Special Exhibition. This exhibition not only showcases compelling works of young Asian artists but also to unearth the hidden gems of local turf as well as foster them to become international artists.

출품 작가 Participating Artists

총 34개국 86팀 94명의 작가 Total 34 Countries 86 Teams 94 Artists

| 섹션 Section | No. | 작가 Artist | 국가 Nationality |
|----------------------------------------------------------|-----|-------------------------------------------------------------|---------------------------|
| 본전시 1 Main Exhibition 1 | 1 | 시몬 데커 Simone DECKER (1968~) | 룩셈부르크 Luxembourg |
| | 2 | 스트라이덤 반 데르 메아브 Strijdom VAN DER MERWE (1961~) | 남아프리카 공화국 South Africa |
| | 3 | 니콜린 반 스타펠 Nicoline VAN STAPELE (1964~) | 벨기에 Belgium |
| | 4 | 성동훈 Dong-Hun SUNG (1967~) | 한국 Korea |
| | 5 | 모민 폴린 Momine PAULIN (1986~) | 코트디부아르 Cort d' Ivoire |
| | 6 | 오상훈 Sang Hoon OH (1977~) & 스기하라 유타 Yuta SUGIHARA (1986~) | 한국 Korea 일본 Japan |
| | 7 | 제임스 토윌리스 James TOWILLIS (1973~) | 영국 UK |
| | 8 | 모마르 섹 Momar SECK (1969~) | 세네갈 Senegal |
| | 9 | 이명호 Myoung-Ho LEE (1975~) | 한국 Korea |
| | 10 | 박봉기 Bong-Gi PARK (1965~) | 한국 Korea |
| | 11 | 크리스티안 요마네 Christian DJOMAGNI (1973~) | 카메룬 Cameroun |
| | 12 | 미카엘 요한손 Michael JOHANSSON (1975~) | 스웨덴 Sweden |
| | 13 | 쑹 루 Lu ZHENG (1978~) | 중국 China |
| | 14 | 제임스 탭스콧 James TAPSCOTT (1980~) | 호주 Australia |
| 본전시 2 Main Exhibition 2 Prologue | 15 | 마리아 사모르체바 Maria SAMORTSEVA (1992~) | 러시아 Russia |
| | 16 | 카리나 카이코넨 Kaarina KAIKKONEN (1952~) | 핀란드 Finland |
| | 17 | 백남준 Nam-June PAIK (1932~2006) | 미국 US |
| | 18 | 이인진 In-Chin LEE (1957~) | 한국 Korea |
| | 19 | 최정화 Jeong-Hwa CHOI (1961~) | 한국 Korea |
| 본전시 2 Main Exhibition 2 Prologue / Epilogue | 20 | 미셀 블레이지 Michel BLAZY (1966~) | 모나코 Monaco |
| | 21 | 유정혜 Jung-Hye YOO (1960~) & 정태규 Tae-Kyu JEONG (1971~) | 한국 Korea |
| | 22 | 놀란 타히리 Nurlan TAHIRLI (1988~) |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
| | 23 | 글렌다 리온 Glenda LEÓN (1976~) | 쿠바 Cuba |
| 본전시 2 Main Exhibition 2 Step 1 | 24 | 이택근 Taek-Keun LEE (1964~) | 한국 Korea |
| | 25 | 류정민 Jungmin RYU (1979~) | 한국 Korea |
| | 26 | 양리애 Lee-Ai YANG (1970~) | 한국 Korea |
| | 27 | 리홍보 Hong-Bo LI (1974~) | 중국 China |
| | 28 | 신예진 Ye-Jin SHIN (1985~) | 한국 Korea |
| | 29 | 신재은 Jae-Eun SHIN (1984~) | 한국 Korea |
| | 30 | 이윤숙 Youn-Sook LEE (1961~) | 한국 Korea |
| | 31 | 금민정 MinJeong GUEM (1977~) | 한국 Korea |

| | | | |
|----------------------------------------------------|----|-------------------------------------------------------------|-----------------------|
| 본전시 2 Main Exhibition 2 Step 2 | 32 | 렌 홍 웨이 Hong-Wei REN (1975~) | 중국 China |
| | 33 | 김연 Yeon KIM (1968~) | 한국 Korea |
| | 34 | 진달래 Dallae JIN (1972~) & 박우혁 Woo-Hyuk PARK (1973~) | 한국 Korea |
| 본전시 2 Main Exhibition 2 Step 3 | 35 | 김길후 Gil-Hu KIM (1961~) | 한국 Korea |
| | 36 | 조경재 Kyoung-Jae CHO (1979~) | 한국 Korea |
| | 37 | 연기백 Ki-Baik YUON (1974~) | 한국 Korea |
| | 38 | 이수경 Soo-Kyung YEE (1963~) | 한국 Korea |
| | 39 | 세바스찬 위커로스 Sebastian WICKEROTH (1974~) | 독일 Germany |
| | 40 | 에스터 스토크 Esther STOCKER (1974~) | 이탈리아 Italy |
| | 41 | 한영호 Young-Ho HAN (1956~) | 한국 Korea |
| | 42 | 바티스트 데볼버그 Baptiste DEBOMBOURG (1978~) | 프랑스 France |
| | 43 | 김주리 Juree KIM (1980~) | 한국 Korea |
| | 44 | 이병호 Byung-Ho LEE (1976~) | 한국 Korea |
| | 45 | 리우 수이 양 Shui-Yang LIU (1974~) | 중국 China |
| | 46 | 유세프 리무드 Youssef LIMOUH (1964~) | 이집트 Egypt |
| 본전시 2 Main Exhibition 2 Step 4 | 47 | 마크 게리 Mark GARRY (1972~) | 아일랜드 Ireland |
| | 48 | 카리나 스미글라-보빈스키 Karina SMIGLA-BOBINSKI (1967~) | 독일 Germany |
| | 49 | 김동숙 Dong-Suk KIM (1963~) | 한국 Korea |
| | 50 | 권순학 Soon-Hak KWON (1979~) | 한국 Korea |
| | 51 | 정택성 Take-Sung JEUNG (1975~) | 한국 Korea |
| | 52 | 김채린 Chae-Lin KIM (1983~) | 한국 Korea |
| | 53 | 세인트 머신 Saint Machine (1979~) | 루마니아 Romania |
| | 54 | 안카 레스니아크 Anka LESNIAK (1978~) | 폴란드 Poland |
| | 55 | 박용식 Yong-Sik PARK (1971~) | 한국 Korea |
| | 56 | 김동현 Dong-Hyun KIM (1974~) | 한국 Korea |
| | 57 | 그린 하우스 Green House & 지고르 바라야사라 Zigor BARAYAZARRA (1976~) | 한국 Korea 스페인 Spain |
| 본전시 2 Main Exhibition 2 Step 5 | 58 | 임창주 Chang-Ju YIM (1963~) & 공연 단체 연합 Performance Group Union | 한국 Korea |
| | 59 | 조하나 Ha-Na JO (1980~) | 한국 Korea |
| | 60 | 마크 안드레 로빈슨 Marc Andre ROBINSON (1972~) | 미국 US |
| | 61 | 권용주 Yong-Ju KWON (1977~) | 한국 Korea |
| | 62 | 이병찬 Byung-Chan LEE (1987~) | 한국 Korea |
| | 63 | 노인우 In-Woo RHO (1986~) | 한국 Korea |

본전시 2Main Exhibition 2
Step 6

| | | |
|----|----------------------------------------------------------|----------|
| 64 | 임정은 JeoungEun LIM (1964~) | 한국 Korea |
| 74 | 노승복 Seung-Bok ROH (1969~) & 신판섭 Pan-Seop SHIN (1968~) | 한국 Korea |
| 66 | 이탈 Tal LEE (1967~) | 한국 Korea |
| 67 | 김윤철 Yun-Chul KIM (1970~) | 한국 Korea |
| 68 | 하이포매닉스 Hypomanics (2020~) | 한국 Korea |

본전시 2Main Exhibition 2
Step 7

| | | |
|----|----------------------------------------------------------|-------------|
| 69 | 최연우 Yun-Woo CHOI (1978~) | 한국 Korea |
| 70 | 손몽주 Mong-Joo SON (1978~) | 한국 Korea |
| 71 | 나나 호슈넨 홀랜드 바스트럽 Nana Rosenørn Holland BASTRUP (1987~) | 덴마크 Denmark |
| 72 | 헨릭 스트롬버그 Henrik STRÖMBERG (1970~) | 스웨덴 Sweden |

특별전 1Special
Exhibition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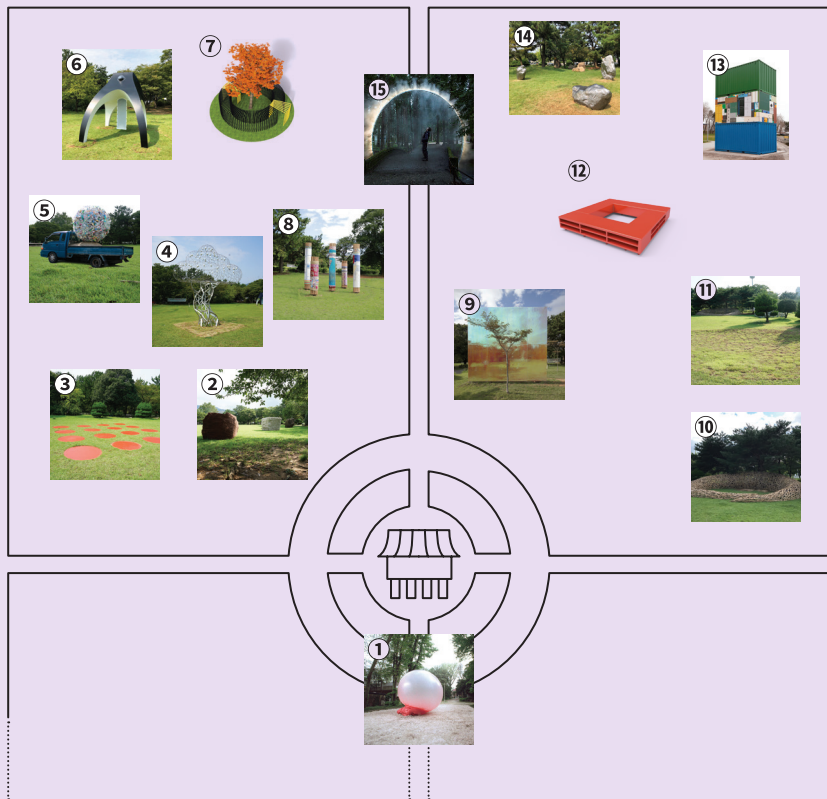
| | | |
|----|----------------------------|----------|
| 73 | 이승택 Seung-Taek LEE (1932~) | 한국 Korea |
|----|----------------------------|----------|

특별전 2Special
Exhibition 2

| | | |
|----|-----------------------------------------------------------------|----------------------|
| 74 | 이천표 Cheon-Pyo LEE (1980~) & 제이납 이자디야르 Zaynab IZADYAR (1983~) | 한국 Korea 이란 Iran |
| 75 | 림옥용 Kok Young LIM (1980~) | 말레이시아 Malaysia |
| 76 | 밴디 라타나 Vandy RATTANA (1980~) | 캄보디아 Cambodia |
| 77 | 치카이옌 Kai-Yuan CHI (1983~) | 대만 Taiwan |
| 78 | 강주리 JooLee KANG (1982~) & 셴셴루오 Shenshen LUO (1980~) | 한국 Korea 중국 China |
| 79 | 박경종 Kyung-Jong PARK (Shawn Park) (1979~) | 한국 Korea |
| 80 | 웨일런 제임스 디수자 Weylon James D'SOUZA (1986~) | 인도 India |
| 81 | 안성석 Sung-Seok AHN (1985~) | 한국 Korea |
| 82 | 박광수 Gwang-Soo PARK (1984~) | 한국 Korea |
| 83 | 이현준 Hyunjoon E (1982~) | 한국 Korea |
| 84 | 스테판 리아브첸코 Stepan RYABCHENKO (1987~) | 우크라이나 Ukraine |
| 85 | 나빌라 노르딘 Nabilah NORDIN (1991~) | 싱가포르 Singapore |
| 86 | 키무라 미츠노리 Mitsunori KIMURA (1983~) | 일본 Japan |

작품 배치도 Map of the Artworks Site

본전시 1 비조각으로부터 Main Exhibition 1_From Non-Sculpture
 용지공원(포정사) Yongji Park(Pojeong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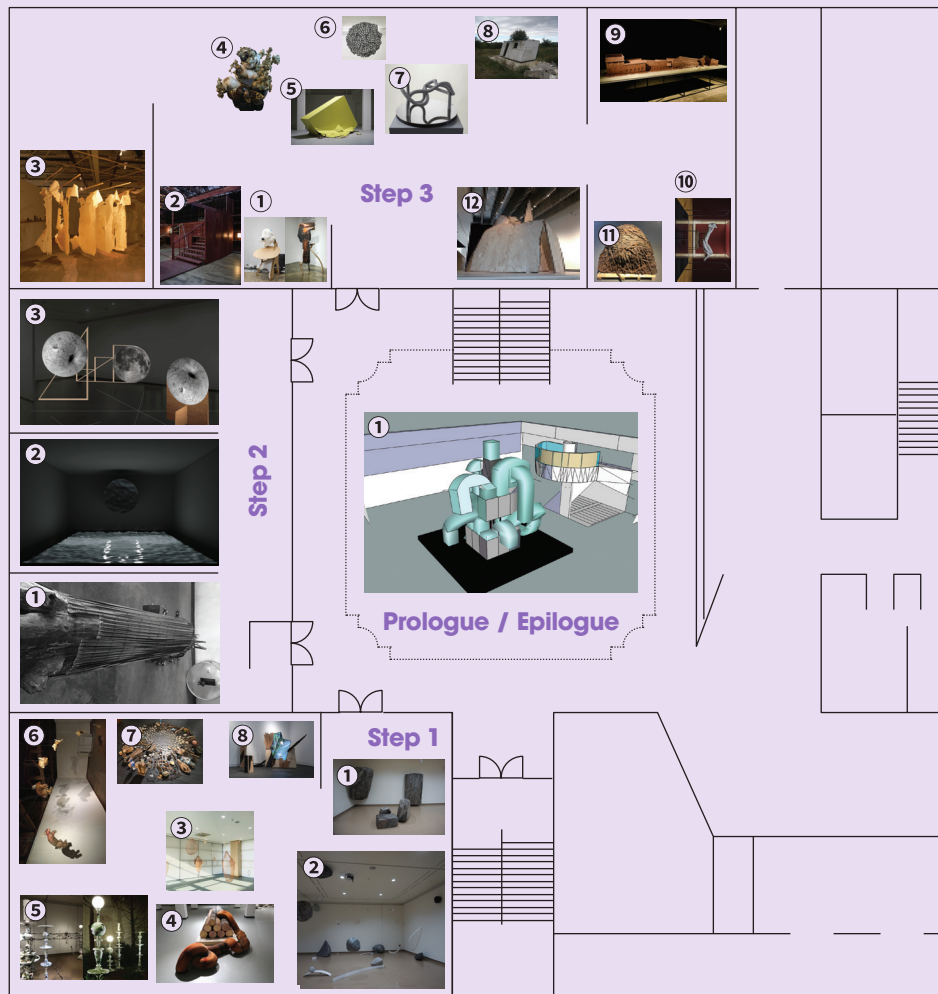


- ① 시몬 데커 Simone DECKER
- ② 스트라이덤 반 데르 메아브
Strijdom VAN DER MERWE
- ③ 니콜린 반 스타펠 Nicoline VAN STAPELE
- ④ 성동훈 (영구) Dong-Hun SUNG
- ⑤ 모민 폴린 Momine PAULIN
- ⑥ 오상훈 & 스기하라 유타
Sang Hoon OH & Yuta SUGIHARA
- ⑦ 제임스 토윌리스 James TOWILLIS

- ⑧ 모마르 섹 Momar SECK
- ⑨ 이명호 Myoung-Ho LEE
- ⑩ 박봉기 Bong-Gi PARK
- ⑪ 글렌다 리온 Glenda LEÓN
- ⑫ 크리스티안 요마네 Christian DJOMAGNI
- ⑬ 미카엘 요한슨 Michael JOHANSSON
- ⑭ 쟁 루 Lu ZHENG
- ⑮ 제임스 탭스콧 James TAPSCOTT

본전시 2_비조각으로 Main Exhibition 2_ To Non-Sculpture

성산아트홀 1F Seongsan Art Hall 1F





Prologue



Prologue

- ① 마리아 사모르체바 Maria SAMORTSEVA
- ② 카리나 카이코넨 Kaarina KAIKKONEN
- ③ 백남준 Nam-June PAIK
- ④ 이인진 In-Chin LEE
- ⑤ 최정화 Jeong-Hwa CHOI

Prologue / Epilogue

- ① 미셸 블레이지 Michel BLAZY

Ste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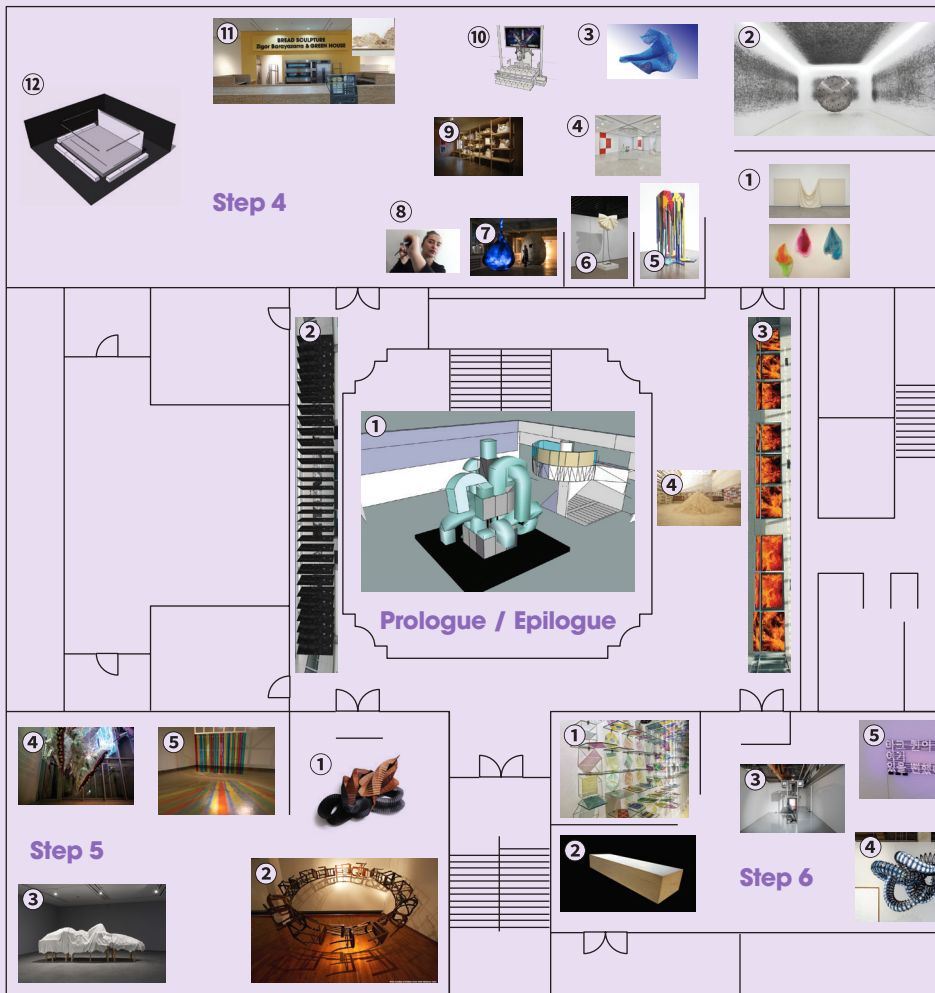
- ① 이택근 Taek-Keun LEE
- ② 류정민 Jungmin RYU
- ③ 양리애 Lee-Ai YANG
- ④ 리홍보 Hong-Bo LI
- ⑤ 신예진 Ye-Jin SHIN
- ⑥ 신재은 Jae-Eun SHIN
- ⑦ 이윤숙 Yoon-Sook LEE
- ⑧ 금민정 MinJeong GU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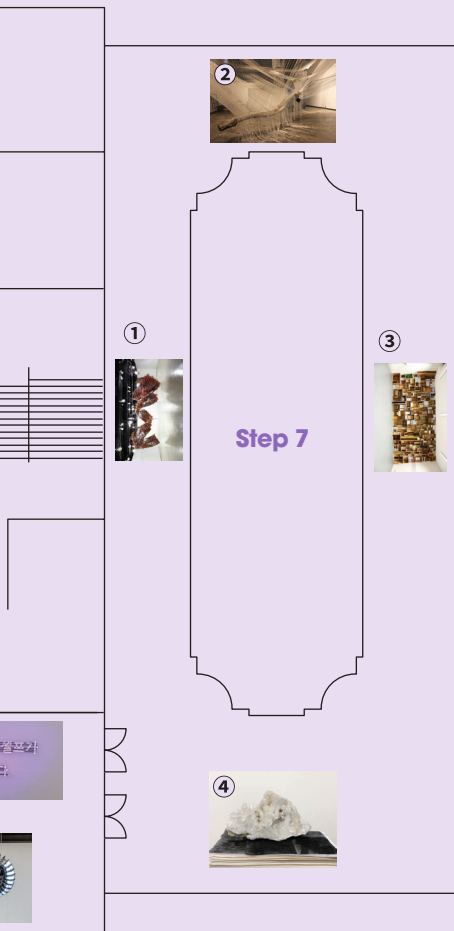
Step 2

- ① 랜 홍 웨이 Hong-Wei REN
- ② 김 연 Yeon KIM
- ③ 진달래 & 박우혁 Dallae JIN & Woo-Hyuk PARK

Step 3

- ① 김길후 Gil-Hu KIM
- ② 조경재 Kyoung-Jae CHO
- ③ 연기백 Ki-Baik YUON
- ④ 이수경 Soo-Kyung YEE
- ⑤ 세바스찬 위커로스 Sebastian WICKEROTH
- ⑥ 에스더 스토크 Esther STOCKER
- ⑦ 한영호 Young-Ho HAN
- ⑧ 밥티스트 데봄버그 Baptiste DEBOMBORG
- ⑨ 김주리 Juree KIM
- ⑩ 이병호 Byung-Ho LEE
- ⑪ 리우 수이 양 Shui-Yang LIU
- ⑫ 유세프 리무드 Youssef LIMOU





Prologue / Epilogue

- ① 미셀 블레이지 Michel BLAZY
- ② 유정혜 & 정태규
Joung-Hye YOO & Tae-Kyu JEONG
- ③ 놀란 타히리 Nurlan TAHIRLI
- ④ 글렌다 리온 Glenda LEÓN

Step 4

- ① 마크 게리 Mark GARRY
- ② 카리나 스미글라-보빈스키
Karina SMIGLA-BOBINSKI
- ③ 김동숙 Dong-Suk KIM
- ④ 권순학 Soon-Hak KWON
- ⑤ 정택성 Take-Sung JEUNG
- ⑥ 김채린 Chae-Lin KIM
- ⑦ 세인트 머신 Saint Machine
- ⑧ 안카 레스니아크 Anka LESNIAK
- ⑨ 박용식 Yong-Sik PARK
- ⑩ 김동현 Dong-Hyun KIM
- ⑪ 지고르 바야사라 & 그린하우스
Zigor BARAYAZARRA & Green House
- ⑫ 임창주 & 공연 단체 연합
Chang-Ju YIM &
Performance Group Union

Step 5

- ① 조하나 Ha-Na Jo
- ② 마크 안드레 로빈슨 Marc Andre ROBINSON
- ③ 권용주 Yong-Ju KWON
- ④ 이병찬 Byung-Chan LEE
- ⑤ 노인우 In-Woo RHO

Step 6

- ① 임정은 JeoungEun LIM
- ② 노승복&신판섭
Seung-Bok ROH & Pan-Seop SHIN
- ③ 이탈 Tal LEE
- ④ 김윤철 Yun-Chul KIM
- ⑤ 하이포매닉스 Hypoman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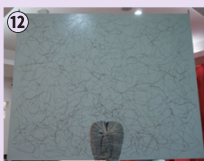
Step 7

- ① 최연우 Yun-Woo CHOI
- ② 손몽주 Mong-Joo SON
- ③ 나나 호슈넨 홀랜드 바스트럽
Nana Rosenørn Holland BASTRUP
- ④ 헨릭 스트롬버그 Henrik STRÖMBERG

특별전 1_이승택, 한국의 비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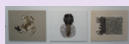
Special Exhibition 1_Seung-Taek LEE, Non-Sculpture of Korea

성산아트홀 특별관 B1 Seongsan Art Hall B1



9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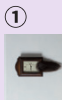
7

6

5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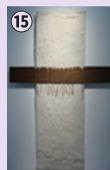
1



13



14



15

① 벽시계(머리카락) Wall clock(Hairs)

② 남근 Phallus

③ 바람 Wind

④ 신의 배설물 Excrement of God

⑤ 무제 Untitled

⑥ 무제 Untitled

⑦ 나무종이 Paper Tree

⑧ 매어진 돌 Tied stone

⑨ 꺼구로, 비미술 Side Down, Non-Art

⑩ 예술가의 손 Hands of an Art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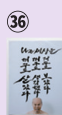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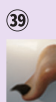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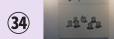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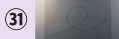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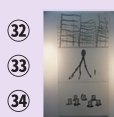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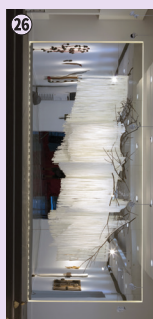
▲ 오디오 가이드 작품

Artworks introduced through an audio guide

⑪ 이승택의 인터뷰 Seung-Taek Lee's interview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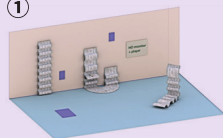


특별전 2_아시아 청년 미디어 조각

Special Exhibition 2_Young Asian Artist Media Sculpture

성산아트홀 특별관 B1 Seongsan Art Hall B1

①



④



⑤



⑫



⑬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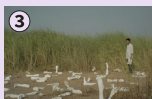


⑪



⑩





① 이천표 & 제이납 이자디아르

Cheon-Pyo LEE & Zaynab IZADYAR

② 림кок용 Kok Yoong LIM

③ 밴디 라타나 Vandy RATTANA

④ 치카이웬 Kai-Yuan CHI

⑤ 박경중 Kyung-Jong PARK(Shawn PARK)

⑥ 강주리 & 셴셴루오

JooLee KANG & Shenshen LUO

⑦ 웨일런 제임스 디수자 Waylon James D'SOUZA

⑧ 안성석 Sung-Seok AHN

⑨ 박광수 Gwang-Soo PARK

⑩ 이현준 Hyunjoon E

⑪ 스테판 리아브첸코 Stepan RYABCHENKO

⑫ 나빌라 노르딘 Nabilah NORDIN

⑬ 키무라 미츠노리 Mitsunori KIMURA

비조각으로부터 From Non-Sculpture

-
1. 시몬 데커 Simone DECKER (1968~), 룩셈부르크 Luxembourg
 2. 스트라이덤 반 데르 메아브 Strijdom VAN DER MERWE (1961~), 남아프리카 공화국 South Africa
 3. 니콜린 반 스타펠 Nicoline VAN STAPELE (1964~), 벨기에 Belgium
 4. 성동훈 Dong-Hun SUNG (1967~), 한국 Korea
 5. 모민 폴린 Momine PAULIN (1986~), 코트디부아르 Cort d' Ivoire
 6. 오상훈 Sang-Hoon OH (1977~) & 스기하라 유타 Yuta SUGIHARA (1986~), 한국 Korea, 일본 Japan
 7. 제임스 토윌리스 James TOWILLIS (1973~), 영국 UK
 8. 모마르 섹 Momar SECK (1969~), 세네갈 Senegal
 9. 이명호 Myoung-Ho LEE (1975~), 한국 Korea
 10. 박봉기 Bong-Gi PARK (1965~), 한국 Korea
 11. 크리스티안 요마네 Christian DJOMAGNI (1973~), 카메룬 Cameroun
 12. 미카엘 요한슨 Michael JOHANSSON (1975~), 스웨덴 Sweden
 13. 쟡 루 Lu ZHENG (1978~), 중국 China
 14. 제임스 탭스콧 James TAPSCOTT (1980~), 호주 Australia

버블 gum 인 창원 BUBBLE GUM IN CHANGWON

관점의 전환과 특히 공공장소의 배치 방식에 대한 탐구는 시몬 데커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요소들이다. 작가의 모든 작품은 공공 영역을 위한 조각이나 건축적 요소를 제안하는 일련의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유기적인 형태와 신축성 있는 표면을 지니고 있어 도시 공간 내 전통적인 조각의 반형태(anti-form)라고도 일컬어질 수 있다. 작가는 정적, 고정적이며 완성된 것의 반대를 추구한다.

The motif of perspective shifts and particularly the exploration of the way public space is arranged are frequent elements in Simone Decker's work. All of these works consist of photographs, mostly series of photographs that propose sculptures or architectural elements for the public domain. Owing to their organic shapes and their elastic surfaces, these works can be called anti-forms of classical sculptures in the urban space. Here, too, Decker is looking for the opposite of the static, the fixed, the permanent, and the finished.



시몬 데커 (1968~)
Simone DECKER

룩셈부르크 Luxembourg
룩셈부르크

에슈쉬르알제트 출생
거주 및 활동
Born in Esch-sur-Alzette,
Luxembourg
Lives and works in
Frankfurt am Main,
Germany



〈추잉 인 베니스〉, 1999,
일포크롬 클래식 프린트, 디아섹, 67 × 98cm

‘Chewing in Venice’, 1999,
Ilfochrome Classic on Dibond, 67 × 98cm



스트라이덤 반 데르

메아브 (1961~)

Strijdom VAN DER MERWE

남아프리카 공화국

South Africa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우텡 주 마이어턴 출생

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텔렌 보쉬 거주 및 활동

Born in Meyerton,

Gauteng, South Africa

Lives and works in

Stellenbosch,

South Africa

지구 매듭 - 자연적으로 응축된 지구. 발견된 오브제

EARTH KNOTS - NATURAL CONDENSED EARTH. FOUND OBJECTS

스트라이덤 반 데르 메아브는 유연한 지구의 여러 구성요소를 추상적으로 형상화시키고 상호연결하여 관람객들이 이를 조각적 오브제로 경험하게끔 의도하였다. 신비감에 쌓인 거대한 지구 구조물은 보는 이로 하여금 명상적 탐색을 자아낸다. 인체 크기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오브제의 크기 간에는 활력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인간은 자연이라는 예술의 일부이다.’

The abstract formation and interlacement of different parts of a flexible earth into a knot is meant to be experienced by the viewer as a sculptural object. The mysteriousness of these giant earthly structures demand a meditational investigation by the onlooker. There is an energetic relationship between the scale of the human body and the naturally formed sculptural objects. ‘Nature is the art of which we are a part’.



〈지구 매듭(자연적 압축 지구. 발견된 오브제.)〉, 2020, 자연석,
지름 180cm

‘Earth Knots(Natural condensed Earth. Found objects.)’,
2020, Natural stone, Diameter 180cm

무제 (사각형을 이루는 붉은 점들)

UNTITLED (RED DOTS FORMING A SQUARE)

16개의 붉은색 원형 판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건축물, 음악, 춤이라는 흥을 돌우는 요소와 함께 어우러지며 공간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작품은 1987년 아세네드의 목초지에서 소개된 바 있다. 원형판의 붉은색은 녹색 잔디와 함께 작품 안에서 균형을 이룬다. 관람객 옆을 지나는 소떼도 흥미를 보이는 듯했다. 거대한 사각형을 이루는 원형 판은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원형판의 지름은 120cm로, 60cm의 간격을 사이에 두고 배치되어 있으며, 전체 직사각형의 크기는 가로 660cm, 세로 660cm이다.

The work, sixteen red circles, points out playfully to architecture, music and dance, and aims to interact with the space. In 1987 it has been shown in the meadows of Assenede. The red color of the circles interacts with the green grass. Next to visitors, cows were interested too. I see these 'circles making a square' as a key work in my artwork. The circles have an intersection of 120cm, the distance between the circles is 60cm. They form together a square of 660cm by 660cm.



니콜린 반 스타펠 (1964~)

Nicoline VAN STAPELE

벨기에 Belgium

네덜란드 북 브라반트

겔드롭 출생

현, 벨기에 헨트 거주 및 활동

Born in Geldrop, North

Brabant, Netherlands

Lives and works in

Ghent, Belgium



〈무제(사각형을 이루는 붉은 점들)〉, 2020, 베니어 합판 위에 붉은색 페인트, 지름 120cm × 1cm

'Untitled (Red dots forming a square)', 2020, Multiplex with layers of red paint, Diameter 120cm × 1cm



성동훈 (1967~)
Dong-Hun SUNG

한국 Korea
한국 부산 출생
현, 한국 안성 거주 및 활동
Born in Busan, Korea
Lives and works in
Anseong, Korea

소리나무 2020 SOUND TREE 2020

바람이 부는 강도에 따라 연주하는 작품 작가의 최근 관심 주제인 산수(山水)는 나무, 돌, 물로 어우러져 존재한다. 그 중, 나무는 바람을 만나 숲이 되고, 돌은 물을 만나 산수를 이룬다. 바람이 흐르는 숲의 울림 소리를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This work plays different music according to the intensity of the wind that blows. Shanshui (mountain and water, 山水) - SUNG's most recent focus - stands in the harmony between trees, stones, and water. Of those, trees encountering wind becomes a forest, and stones encountering water becomes shanshui. SUNG illustrates with this work the echoing sound of a forest through which wind travels.



〈소리나무 2020〉, 2020, 스테인리스 스틸, 풍경, 철,
400 × 260 × 500cm

'Sound Tree 2020', 2020, Stainless Steel, Wind-bell, Steel,
400 × 260 × 500cm

체스트 비드 CHEST VID

‘체스트 비드’는 서로 관련된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병, 종이 등 다양한 오브제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이들 오브제는 한데 모여 둥그런 형태를 만들며 생물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나타낸다. 이러한 생물 중 하나인 인간은 예상과는 달리 환경을 파괴한다. 생태계 파괴의 주범은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이다. 작가가 예술을 통해 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새 삶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작가는 이를 통해 인간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오늘날 전 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되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사회가 자제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Chest vid’ is a work that I made with plastic cups associated with each other, plastic bottles, paper and various objects; to form a ball, a globe which represents the planet earth on which living beings live. Unfortunately, the fact that man is a living thing damages the environment against all expectations. Among these damages, there is the plastic which pollutes the planet seriously, this damage which is due to plastic is difficult to recycle. It is for these reasons that I try to recycle these plastic objects to give them a second life, especially through art. I depict through this work of the empty chest so that we, human beings, become aware of the protection of our environment, by appealing to find endogenous community solutions, which maybe could help us deal with these contemporary issues coming from everywhere.



모민 폴린 (1986~)
Momine PAULIN

코트디부아르
Cort d' Ivoire
코트디부아르 만 출생
현, 코트디부아르
거주 및 활동
Born in Man,
Cort d' Ivoire
Lives and works in
Cort d' Ivoire



〈체스트 비드〉, 2020, 트럭, 플라스틱 병, 지름 2m

‘Chest vid’, 2020, Truck, Plastic bottles, Diameter 2m



오상훈 (1977~)
Sang Hoon OH

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스기하라 유타 (1986~)
Yuta SUGIHARA

일본 Japan

일본 도쿄 출생, 현 일본 야마나시현 후지요시다 거주 및 활동
Born in Tokyo, Japan
Lives and works in
Fujiyoshida City,
Yamanashi, Japan

라이트하우스 (콜라보 : 오상훈 & 스기하라 유타)

LIGHTHOUSE (COLLABORATION : SANG HOON OH & YUTA SUGIHARA)

라이트하우스는 내부에 장착된 빛 작업과 파빌리온의 구조적 형태에 의해 다양한 시각적 효과뿐 아니라 물리적인 체험을 가능케 한다. 현장 외부의 빛과 조각체 안에서 낮게 흘러나오는 조명 작품의 빛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는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구조물을 다르게 인식하게 되며, 직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Lighthouse Collaboration not only creates a variety of visual effects but also allows a physical experience thanks to its light installation inside the pavilion-like structure. The natural light flooding in from outside and the dim light coming from the installation inside the sculpture make the experimenter perceive the sculpture differently at different times of the day and different viewing positions.



〈라이트하우스〉, 2020, 알루미늄 패널, 480 × 300 × 400cm

'Lighthouse', 2020, Aluminum panels, 480 × 300 × 400cm

하나의 것, 아무 것도 아닌 것, 모든 것

ONE THING, NO THING, EVERY THING

하나의 것(사각형), 아무 것도 아닌 것(삼각형), 모든 것(원). 시간, 에너지, 중력.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원을 그리며 걸어보라. 상징주의가 적용되는 곳은 비단 오브제 뿐이 아니다. 각 오브제 간의 상호연결성, 그리고 이들 오브제가 내비치고 암시하는 것들 간의 상호연결성에서도 의미는 피어난다. 의식도 못하는 사이 나는 사각형이 되어 있고, 깨달음을 얻은 원은 삼각형이 되고, 나는 그 둘을 연결한다. 풍경이자 건축인 '하나의 것, 아무 것도 아닌 것, 모든 것'은 삶을 존재하게 하고 이해의 씨앗을 전해주는 경건한 기하학과 상징들에 몰두할 수 있는 자기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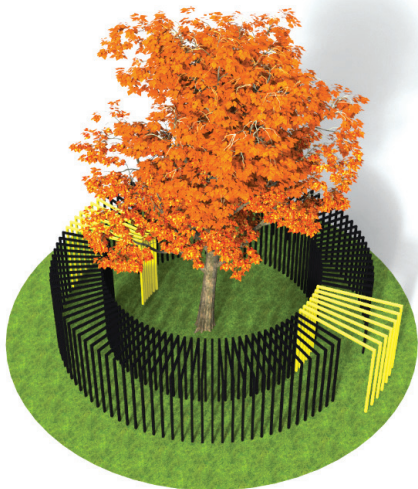
One thing, no thing, every thing (Square, triangle, circle) Time, energy, gravity. If one seeks to become whole, practice walking in a circle. It is not just in the object that symbolism resides. Meaning also arises from the interconnectivity of objects, of what they state and imply. I am the unknowing square the circle is enlightened becoming the triangle I connect the two. Both landscape and architecture 'One thing, No thing and Every thing' offers the chance of self reflection through immersion within sacred geometry and symbols that both enable life to exist and offer us the seed of understanding.



제임스 토윌리스 (1973~)
James TOWILLIS

영국 UK

영국 버크셔 주 애스콧 출생
현, 영국 도싯 거주 및 활동
Born in Ascot,
Berkshire, UK
Lives and works in
Dorset, UK



〈하나의 것 아무 것도 아닌 것 모든 것〉, 2020, 철근 연강,
겉 지름 762.20cm, 안 지름 515cm, 높이 200cm

'One thing, No thing, Every thing', 2020,
Rebar/rolled steel, Outer Diameter 762.20cm,
Inner Diameter 515cm, Height 200cm



모마르 섹 (1969~)

Momar SECK

세네갈 Senegal

세네갈 출생

현, 스위스 제네바

거주 및 활동

Born in Senegal

Lives and works in

Geneva, Switzerland

결합 : 평화를 위해 함께 앉기

UNITY : SEATING TOGETHER FOR PEACE

현실과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한 조각들이다. 이들은 보는 이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 어떤 비판의식이나 창의적 추측도 이 작품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없다. 작가는 조각들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간의 관련성과 허울뿐인 관계를 보여준다.

Momar SECK (Senegal), which emphasizes the notion of plural unity towards singular diversity, which translates into several pieces of wood grouped together to form a single element (the bundle). This is how the artist approaches the theme of unity in diversity.



〈결합 : 평화를 위해 함께 앉기〉, 2020, 장작뭉단, 금속,
지름 50 x 200cm × 2ea, 지름 50 × 300cm × 3ea

'Unity: Seating together for peace', 2020, Fogot, Metal,
Diameter 50 × 200cm × 2ea, Diameter 50 × 300cm x 3ea

나무 그리고 색_창원 #1 TREE & COLOR_CHANGWON #1

- ‘캔버스’의 ‘조각화’
- 본인 작업, ‘예술-행위 프로젝트’의 개념과 형식을 지배하는 상징적 장치인 ‘캔버스’를 ‘조각화’로 변용하면서, 창원의 다양한 빛과 예술의 다양한 색을 ‘홀로그램’에 빔대어 담아내는 작업
- ‘창원’의 ‘나무’가 성장함에 따라 ‘조각화’의 ‘캔버스’를 확장
- 본 비엔날레의 주제인 ‘조각의 비조각화 - 비조각의 조각화’ 맥락에 부합하도록 작업
- Sculpturalization of a canvas.
- This work involves the transfiguration of a canvas into a sculpture. Canvas is a symbol that governs the concept and form of the artist's "Art-Performance Project."
- The hologram that contains variable lights in Changwon and colors of the arts.
- As the tree that represent Changwon grow, the "sculpturalized canvas" expands.
- This work shares the same vein with the Biennale's theme - "Non-sculpturalization of sculptures and sculpturalization of non-sculptures."



이명호 (1975~)

Myoung-Ho LEE

한국 Korea

한국 대전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Daejeon,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나무 그리고 색_창원 #1〉, 2020, 에이치-빔, 철판,
홀로그램(페인팅), 우레탄(코팅), 콘크리트 기초, 기타,
4800 × 4800 × 140mm, 3000kg

*'Tree & Color Changwon #1', 2020, H-beam, Steel Plate,
Hologram(Painting), Urethane(Coating), Concrete Base, etc,
4800 × 4800 × 140mm, 3000kg*



박봉기 (1965~)
Bong-Gi PARK

한국 Korea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호흡 BREATH

자연에서 이번 작품의 모티브를 따왔으며, 구름이나 물결, 바람 같은 유동하면서 시시각각 우리에게 부드럽고 한결같은 일상의 자연 요소들이 작품의 모양을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물고기의 아가미 구조에 포커스를 두고 있으며 이는 이 작품의 주제인 호흡(숨)을 유연하게 발현하고 있다. 관람자의 발걸음은 작품의 바깥에서 안으로 유도되고 다시 바깥으로 향한다. 이는 호(呼)와 흡(吸)의 한 사이클을 연상시키면서 '호흡'들의 유기적 연결이 우리가 존재하는 생태 환경을 지속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이 작품은 도심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를 품어 주는 '숨 고르기'의 공간을 지향한다.

Nature is the motif of this work, which is demonstrated by the forms that reminiscent of clouds, waves, and wind – constantly flowing gently through our everyday life. Specifically, the main part of this work is inspired by the gill of a fish, which manifests the theme of this work – breathing. Visitors are invited to walk in toward the center of the piece and then outward in the end. This flow reminds of one full cycle of inhale and exhale, recognizing the organic interconnection between the two actions of breathing sustains the ecological environment within which we humans exist. This work creates a space of “catching the breath,” embracing us while harmonizing itself with the urban surrounding.



〈호흡〉, 2020, 대나무, LED조명, 600 × 600 × 160cm

‘Breath’, 2020, Bamboo, LED lamp, 600 × 600 × 160cm

콩니 KONGNI

‘콩니’는 우정을 다지며 함께 교감하고, 다시 모여 삶의 가장 즐거운 순간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작가는 결합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의견 차이, 장애물, 냉소에서 벗어나 같은 비전을 꿈꾸며 한데 모이는 그 날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우리가 지지하고 감사하는 이들에게조차 의도치 않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는 가정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콩니’는 물리적이며 유쾌한 기여이며, 가족의 결합은 연대의식의 근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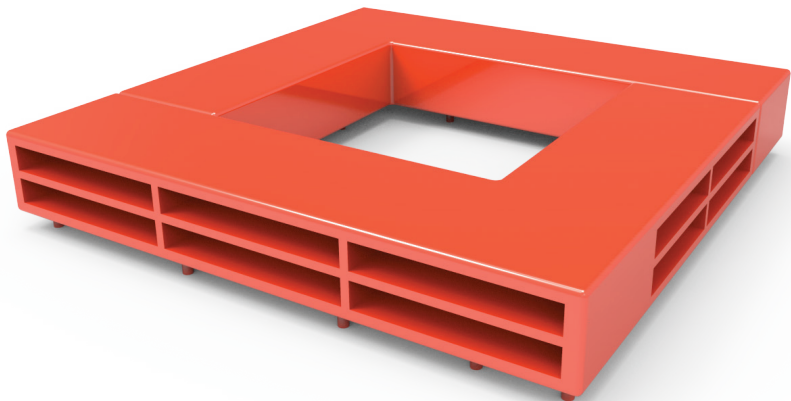
My reflection is based on the Union... hence KONGNI which means together, to commune, to regroup, to share and to exchange in fraternity the most jovial moments of the life comes down to the day when all gathered in the same vision leaving far away the different, the difficulties, the contempt of the other. Without wanting to, we are not listening to others we support and appreciate each other and, all of this cannot be done around a home. KONGNI on the whole is the physical and convivial contribution or the family reunification is the source of the fraternal union...



크리스티안 요마네 (1973~)
Christian DJOMAGNI

카메룬 Cameroun

카메룬 바푸삼 출생
현, 카메룬 두알라
활동 및 거주
Born in Mbo-Bafoussam,
Cameroun
Lives and works in
Douala, Cameroun





미카엘 요한슨 (1975~)
Michael JOHANSSON

스웨덴 Sweden
스웨덴 베스트라예탈란드주
트롤레탄 출생
현, 독일 베를린
활동 및 거주
Born in Trollhättan,
Västergötland, Sweden
Lives in and works in
Berlin, Germany

큐빅 CUBIC

여러 컨테이너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중간 부분이 일상의 오브제들로 매꿔져 있다. 오브제 뒤로는 각 모서리에서 60cm 들어간 자리에 금속 구조물이 숨겨져 있다. 컨테이너들은 금속 구조물이 안쪽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보강된다. 맨 아래 컨테이너는 반드시 지반에 고정되어 있거나 밸러스트(ballast)가 채워져 있어야 한다. 작업을 위한 아이템은 현지에서 지시 사항에 따라 확보되며, 조립은 창고 건물 내에서 진행된다. 그 후 작품의 여러 부분들이 전시 장소로 옮겨진다.

The work consists of several container high stack, with a middle segment replaced with tightly packed everyday objects. A metal structure is hidden behind the objects, about 60 cm in from each edge. The containers are also reinforced, so that the metal structure can be attached in them. The bottom container must either be anchored into a foundation, or filled with ballast. To enable production items are collected locally, based on instructions. The assembly work takes place indoors in a warehouse building. When this is complete, the various segments of the work will be lifted into place where the work is to be displayed.



〈국제 수송〉, 2012, 컨테이너, 생활용품,
6 × 7.8 × 2.4m
‘The Move Overseas’, 2012, Containers,
Household items, 6 × 7.8 × 2.4m

올모스트 켄 ALMOST ZEN

명나라 학자 임유린(林有麟)은 소원석보(素園石譜)에서 수석의 본질에 대해 “수석은 선(禪, Zen)과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선의 지혜에 대한 명언을 남겼다. 수석 감상이 문화의식과 깨달음을 가져온다고 믿었던 조상들은 애석 문화를 통해 선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시한 것이다. 도교에서 수석은 무(無)에서 교양(bildung)으로 이끄는 조화롭고, 고요하며, 자연스러운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올모스트 켄’은 자갈 모양의 선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을 잘라 만든 한자를 사용하여 수석을 물질적으로 바꿔놓는다. 이 작품은 속이 비어있고 우아한 곡선을 그리는 등 구조적으로 강조되어 있으며, 시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In his The Suyuan Stone Catalogue, Lin Youlin, a scholar in the Ming Dynasty, captured the very essence of stones in his statement “stones have a highest degree of affinity with Zen”, an aphoristic embodiment of the Zenic wisdom. Our ancients have left us with revealing insights about seeking Zenic enlightenment through the appreciation of stones, as they believed appreciating stones could bring cultural awareness and revelation. To Taoists, stones were highly valued for their qualities of being harmonious, tranquil and natural that could lead one to bildung in non-being. With cut-out stainless steel Chinese characters, “Almost Zen” transforms the stone materially to build a cobblestone-shaped Zenic realm. This sculpture, hollowed-out and gracefully curved, is not only structurally highlighted but also conceptually poetic.



쯩 루 (1978~)

LU ZHENG

중국 China

중국 네이 몽골 출생

현, 중국 베이징 거주 및 활동

Born in Nei Mongol,

China

Lives and works in

Beijing, China



〈올모스트 켄〉, 2020, 스테인리스 스틸, 115 × 75 × 190 cm,
145 × 60 × 80 cm, 90 × 75 × 115cm

'Almost Zen', 2020, Stainless steel, 115 × 75 × 190cm,
145 × 60 × 80 cm, 90 × 75 × 115cm



제임스 텡스콧 (1980~)
James TAPSCOTT

호주 Australia
호주 아마다일 출생
현, 호주 멜버른 거주 및 활동
Born in Armadale,
Australia
Lives and works in
Melbourne, Australia

아크 제로 ARC ZERO

안개로 뒤덮인 원형 고리는 마치 사람들이 드나드는 관문처럼 보인다. 반사 금속 소재의 이 구조물은 일정 시간마다 물안개를 뿜어내고, 이 안개는 주변에 퍼진 후 바람에 실려 사라진다. 하지만 훔칠리기 직전까지는 둥근 형태를 유지하며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환영을 빚어낸다. 물안개는 낮에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틈새 빛살이나 무지개를 빚어내고, 해가 지면 구조물에 내장된 조명에 힘입어 타는 듯한 광채를 내뿜는다.

A ring of mist sits over the site, like a gateway for people to walk through. The structure is made of mirrored steel, and periodically releases a cloud of mist, which flows through the site and drifts away on the wind. It holds its form as a circle long enough to create an imposing, yet delicate apparition before being carried away. During the day the mist plays with the ambient conditions to produce crepuscular rays throughout the site, and rainbows around the viewer, while in the darker hours the mist is illuminated from lighting embedded within the structure, taking on a fiery glow.



〈아크 제로 - 비구름〉, 2017, 워터미스트, 조명, 철, 펌프,
지름 6000 × 4600mm

'Arc Zero - Nimbus', 2017, Water mist, Light, Steel, Pump,
Diameter 6000 × 4600mm

비조각으로 To Non-Sculpture

프롤로그 Prologue

-
1. 마리아 사모르체바 Maria SAMORTSEVA (1992~), 러시아 Russia
 2. 카리나 카이코넨 Kaarina KAIKKONEN (1952~), 핀란드 Finland
 3. 백남준 Nam-June PAIK (1932~2006), 미국 US
 4. 이인진 In-Chin LEE (1957~), 한국 Korea
 5. 최정화 Jeong-Hwa CHOI (1961~), 한국 Korea



마리아 사모르체바 (1992~)

Maria SAMORTSEVA

러시아 Russia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생

현, 러시아 모스크바

거주 및 활동

Born in Yuzhno-

Sakhalinsk, Russia

Lives and works in

Moscow, Russia

태양의 돌차기 놀이 SOLAR HOPSCOTCH

46억년 전 생성된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여덟 개의 행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는 관람객들을 우주 여행으로 초대한다. 행성 1에 돌을 던진 후, 그 행성을 제외한 나머지 행성을 깨금발로 이동한다. 돌아올 때는 돌을 주워 나온다. 다음 사람에게 돌을 넘겨거나 같은 방식으로 행성 2에 도전한다.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보자. 우리는 비록 작지만 이 세상의 중요한 일부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Our solar system was formed 4.6 billion years ago. It consists of eight planets which all orbit around our home star: the Sun. Today I invite you to go on a space trip. Throw a stone to land on planet one, hop through the planets, skipping the one you have your marker on. Pick up the stone on your way back. Pass it to the next person or repeat with planet two. Feel yourself as a kid again and don't forget: you may be a tiny, but such an important part of this world.



〈태양계 땅따먹기〉, 2020, PVC 점착지, 가변 크기

'Solar Hopscotch', 2020, PVC Gumming Sheet, Variable size

흔적 TRACES

우리는 얼굴과 머리 없이 위층으로 올라가는 조직적인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블라인드처럼 움직이고 있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인가? 이 익명의 힘은 우리 외부, 우리 위에 있는가? 아니면 이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일부인가? 필요한가? 어쩌면 이 작품이 우리 자신의 두려움 또는 필요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이웃과 친구들과 닮고 싶은가, 우리의 자유와 성격을 숨기고 있는가?

We may see a group of organized people going upstairs without faces and heads. They are moving like blinds. Is it a symbol of power?. Is this anonymous power outside of us, above of us? Or is this power inside of us, and a part of us all? Do we need it? Maybe this work talks about our own fears? Or needs? Do we want to be similar to our neighbourhous and friends, do we hide our freedom and personality?



카리나 카이코넨 (1952~)
Kaarina KAIKKONEN

핀란드 Finland

핀란드 이살미 출생

현, 핀란드 헬싱키

거주 및 활동

Born in Iisalmi, Finland

Lives and works in

Helsinki, Finland



〈우리의 일부〉, 2020[1980s], 남성 울 자켓, 나무 구조물,
7000 × 2077mm

'Part of Us', 2020[1980s], Men's wool jackets, Wooden Structure,
7000 × 2077mm



©Young Kyun LIM

창원의 봄 THE SPRING OF CHANGWON

93대의 TV 브라운관이 3단으로 쌓여 꽃이 활짝 핀 모습을 형상화한 백남준의 비디오 조각 '창원의 봄'에는 1969년 뉴욕에서의 첼리스트 샬롯 무어만의 합작 퍼포먼스 〈살아있는 조각을 위한 TV 브라〉를 영상으로 담고 있다. '살아있는 조각'(샬롯 무어만), 'TV 브라'(미니어처 TV), '창원의 봄'(비디오 조각)을 통해서 음악, 미술, 영상이 어우러진 비조각의 의미를 되새긴다.

백남준 (1932~2006)

Nam-June Paik

미국 US

한국 서울 출생

한국, 미국 독일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d and worked in

Korea, US, Germany

In Nam-June PAIK's *The Spring of Changwon*, a total of 93 Braun tube televisions are stacked up in three layers in the form of a fully blossomed flower. The TV screens feature clips of 'TV Bra for Living Sculpture', a collaborative performance with cellist Charlotte Moorman conducted in New York in 1969. The living sculpture (Charlotte Moorman), TV bra (a set of miniature television screens designed in the form of a bra), and *The Spring of Changwon* (video sculpture) is a perfect combination of music, art, and video through which the audience can reflect on the meaning of non-sculpture.



〈창원의 봄〉, 2000, 93대 모니터, 지름 3.5m x 7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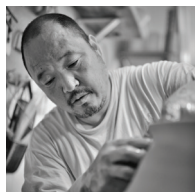


'The Spring of Changwon', 2000, 93 pieces of monitors, Diameter 3.5m x 7m

컬렉팅 & 필링 COLLECTING & PILING

이인진의 도예 작업은 공간이 확장되고 조화를 이루는 <Collecting & Piling>의 개념을 통해 새로운 조형 언어를 창출한다. 관객은 현미경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의 사물을 일일이 분석하는 대신, 육안으로 전체를 볼 수 있다. 감상자는 집적된 오브제들을 탐색하고, 때로는 개별적인 표현과 전체의 조화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이른다.

LEE's ceramic works create a new sculptural language by proposing the concept of 'Collecting & Piling' where spaces expand and harmonize with each other. Instead of analyzing objects one by one in detail as if looking through a microscope, visitors have a wider and overall view over the entire work. Visitors explore the accumulated objects and come to reflect upon the harmony between individual expression and the work as a whole.



이인진 (1957~)

In-Chin LEE

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안성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Anseong, Korea



<컬렉팅 & 필링>, 2018, 세라믹, 철 프레임,
150 x 150 x 150cm, 300kg, 150 x 150 x 110cm, 200kg

'Collecting & Piling', 2018, Ceramics, Iron frame,
150 x 150 x 150cm, 300kg, 150 x 150 x 110cm, 200kg



최정화 (1961~)

Jeong-Hwa CHOI

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공기조각들 AIR SCULPTURES

이번 전시는 창원조각비엔날레와 경남도립미술관이 상호 협력하여 창원 성산아트홀과 경남도립미술관을 비롯해 양산, 거제, 남해, 김해 등 지역 커뮤니티 현장에 최정화 작가의 초대형 과일 풍선 작품을 순환 설치하는 조각 여행 프로젝트이다. 이번 창원조각비엔날레에서는 최정화 작가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숨쉬는 꽃〉을 비롯해 과일 작품을 합쳐 총 9점의 풍선 작품이 여행을 한다. 풍선이라는 부드럽고 가벼운 비조각적 성질을 차용해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 생과 사의 경계, 자연과 인공의 경계를 넘나든다. 이러한 개념적 설명을 떠나 최정화 작가의 과일 여행 프로젝트는 창원에는 물론 경남 지역 곳곳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동네 혹은 거리에서 새로운 어떤 조형물을 가볍게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중요하다.

The 'Fruit Travel Project' is a traveling art installation project organized by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and Gyeongnam Art Museum to showcase CHOI's mega-sized balloon fruits at Seongsan Art Hall and Gyeongnam Art Museum in Changwon and in outdoor locations in Yangsan, Geoje, Namhae, Gimhae and other cities across the region. A total of nine balloon artworks will be on display at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including the artist's flagship piece, Breathing Flower, and fruit balloon installations. By employing the characteristics of non-sculpture (smoothness and lightness) of a balloon, the artist blurs the line between art and non-art, life and death, and nature and artificiality. Aside from conceptual explanations, CHOI's 'Fruit Travel Project' holds a special meaning in that it provides an opportunity for people in Changwon and other Gyeongsangnamdo areas to enjoy artworks in their neighborhoods or streets.



〈숨쉬는 꽃〉, 〈딸기 I〉, 〈딸기 II〉, 〈수박〉, 〈복숭아〉, 〈오렌지〉,
〈석류〉, 〈호박〉, 〈파인애플〉, 2019, 페브릭, 송풍기,
지름 8m, 2.5m, 5m, 2.5m, 4m, 3m, 3m, 4m, 4m

'Breathing Flower', 'Strawberry I', 'Strawberry II',
'Watermelon', 'Peach', 'Orange', 'Pomegranate', 'Pumpkin',
'Pineapple', Fabric, Blower,
Diameter, 8m, 2.5m, 5m, 2.5m, 4m, 3m, 3m, 4m, 4m

전시일정

〈숨쉬는 꽃〉 9. 17~9. 23

〈딸기 I〉 10. 29~11. 1

〈딸기 II〉 10. 8~10. 14

〈수박〉 10. 22~10. 28

〈복숭아〉 10. 15~10. 21

〈오렌지〉 10. 29~11. 1

〈석류〉 10. 22~10. 28

〈호박〉 9. 24~9. 30

〈파인애플〉 10. 02~10. 07

비조각으로 To Non-Sculpture

프롤로그 / 에필로그

Prologue / Epilogue

-
1. 미셸 블레이지 Michel BLAZY (1966~), 모나코 Monaco
 2. 유정혜 Jung-Hye YOO (1960~), 정태규 Tae-Kyu JEONG (1971~), 한국 Korea
 3. 놀란 타히리 Nurlan TAHIRLI (1988~),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4. 글랜다 리온 Glenda LEÓN (1976~), 쿠바 Cuba



미셸 블레이지 (1966~)
Michel BLAZY

모나코 Monaco

모나코 출생

현, 프랑스 파리 거주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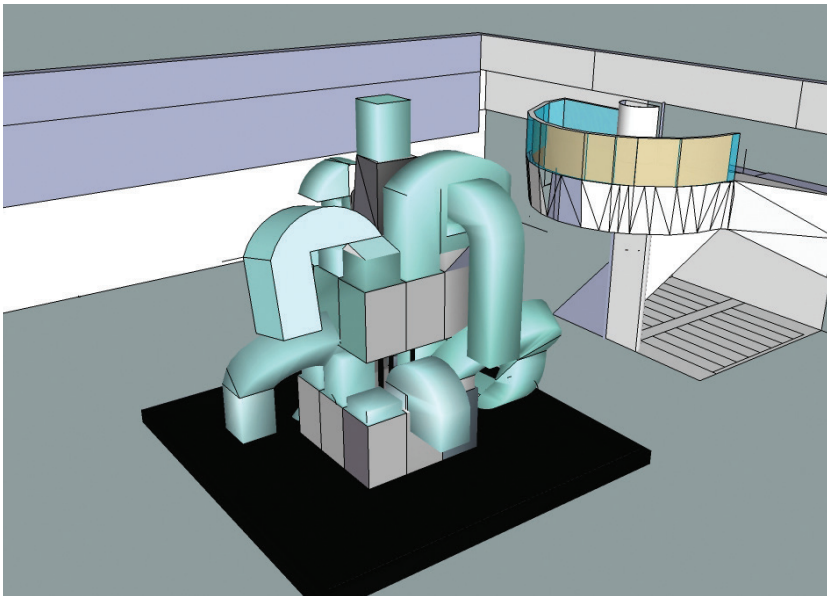
Born in in Monaco.

Lives and works in Paris,
France

부케 파이널 3 BOUQUET FINAL 3

미셸 블레이지는 시간의 흐름을 강조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진화와 자유를 나타낼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초기 렌틸콩을 소재로 한 작품부터 ‘벗겨지는 벽(peeling walls)’ 그리고 거품 분수에 이르기까지 작가는 물질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며 위험과 불가측성의 여지를 다분히 남긴다. 작가가 최초의 자극을 제공하면, 물질이 이를 이어받아 전시의 시공간 안에서 내재된 속성과 주변 환경에 따라 진화하고 변화한다.

Michel Blazy's use of materials concurs to show the evolution and freedom of projects aiming to underline the passing of time. From his very first experiences with lentils, to his "peeling walls" and all the way to his foam-fountains, Michel Blazy's pieces spotlight transformations of matter and leave a prominent place to hazard and unpredictability. The artist gives the first impulse, and matter takes over, evolving and transforming during the space-and-time of the exhibition, according to its intrinsic properties as well as the showing conditions.



〈부케 파이널 3〉, 2020, 거품, 6 × 6 × 5.05m

‘Bouquet Final 3’, 2020, Foam, 6 × 6 × 5.05m

떠 있는 검은 숲 FLOATING BLACK FOREST

나는 파도가 밀려오는 철쭉 같은 바닷가에 바람을 맞으며 서 있습니다. / 검은 파도는 밀려가고 밀려오기를 반복하며 조금씩 나의 자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 나는 그 곳에 굳건히 자리하고 있기를 갈망하지만 그들은 나도 모를 만큼 조금씩 조금씩 나를 다른 곳으로 이끅니다. / 그 항해의 끝이 어디쯤인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 지고한 사랑에 몸을 던져 보았거나 / 혹은 삶에 상처 입은 이들이 /혹시라도 파도에 드리우는 영원한 갈망의 눈빛을 어느 순간에 깨달을 수 있다면 / 언젠가 그 상념은 산산히 부서져 포말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 다만 나는 그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I am standing at a beach in the pitch-black darkness against wind and breaking waves. / Black waves keep on moving in and out, changing my position little by little. / I am eager to stand still at a fixed position, but they move me little by little - so little that I do not even notice. / I do not yet know where the end of that voyage lies. / Those who have ever thrown themselves into a noble love / or who have ever been hurt in life / if they are able to suddenly see the infinite yearning cast over the waves / one day, such conception will break into pieces and disappear in foams. / Simply - I just know it.



유정혜 (1960-)
Joung-Hye YOO

한국 Korea

한국 청주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Chungju,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정태규 (1971-)
Tae-Kyu JEONG

한국 Korea

한국 대전 출생

현, 한국 대전 거주 및 활동

Born in Daejeo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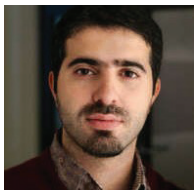
Lives and works in

Daejeon, Korea



〈떠있는 검은 바다〉, 2020, 깃털이 달린 폴리에스터,
실 클리어 필름 솔벤트 평판 출력, 1700 × 700 × 200cm

‘(Floating) Black Ocean’, 2020, Black Polyester Yarn with Short
Wings, Clear Film (Solvent Flatbed Printing), 1700 × 700 × 200cm



놀란 타히리 (1988~)
Nurlan TAHIRLI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아제르바이잔 바쿠 출생
현, 아제르바이잔 거주
및 활동
Born in Baku, Azerbaijan
Lives and works in
Azerbaijan

무제 UNTITLED

맨몸으로 활활 타오르는 날 것의 불꽃 앞에 서 보라. 거대한 화염이 던지는 자연의 공포를 직면하고, 그것의 생명력을 체감하라. 대자연 앞에서 또 다른 자연인 인간은 언제나 나약하다. 성찰하고 반성할지여다. 이기와 욕망의 허울을 던지고 당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라. 현대인이여! 저 불꽃 앞에서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앉아 태고의 자연인이 간직했던 공포와 겸허를 배우라.

Stand naked in front of a burning fire. Face the fearful force of Mother Nature's racing flames and feel its vitality. Being part of nature, men stand helpless before Mother Nature. Contemplate and reflect on yourself. Free yourself from the shackles of greed and selfishness. Look deeply inside yourself. All men, tidy up and sit down before these flames to inherit the fear and humility of our ancestors.



〈무제〉, 2020, 사틴 천, 선풍기, 조명, 가변 크기

'Untitled', 2020, Satin Fabric, Fan, Lamp, Variable size

잃어버린 시간 II WASTED TIME II

‘잃어버린 시간 II (Tiempo perdido II)’은 개인과 국가가 사랑 없이 행동하며 낭비한 순간들을 상기시켜주는 표현이자 역설적인 기념물이다. 타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퍼뜨리는 대신 무엇인가를 쌓아 올리고 창조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존재하는데, 미하일 엔데는 유명한 저서 ‘모모’에서 “사람들은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다른 무엇인가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언급했다.

Tiempo perdido II [Waste Time II] is a representation, almost an ironic monument, to remind all those moments we have waste, both personally and nationally, in doing things without love. It is all the time we could have spent to build, or to create something, instead of just spreading bad feelings to others. There are quite a few interpretations, but Michael Ende resumed this idea in his incredible Momo story: People never seemed to notice that, by saving time, they were losing something else.



글렌다 리온 (1976)
Glenda LEÓN

쿠바 Cuba

쿠바 라 아바나 출생
현, 스페인 마드리드
활동 및 거주
Born in La Habana,
Cuba
Lives and works in
Madrid, Spain



〈잃어버린 시간 II〉, 2013, 모래, 모래시계 반쪽, 지름 3m × 165cm

‘Wasted Time II’, 2013, Sand, Half of hourglass,
Diameter 3m × 165cm

비조각으로 To Non-Sculpture

Step 1

-
1. 이택근 Taek-Keun LEE (1964~), 한국 Korea
 2. 류정민 Jung-Min RYU (1979~), 한국 Korea
 3. 양리애 Lee-Ai YANG (1970~), 한국 Korea
 4. 리홍보 Hong-Bo LI (1974~), 중국 China
 5. 신예진 Ye-Jin SHIN (1985~), 한국 Korea
 6. 신재은 Jae-Eun SHIN (1984~), 한국 Korea
 7. 이윤숙 Yun-Sook LEE (1961~), 한국 Korea
 8. 금민정 MinJeong GUEM (1977~), 한국 Korea

무제 UNTITLED

기본적으로 작가의 작업의 시작은 현상, 인식, 관념에 대한 의문, 회의였고 만들어진 허구의 존재를 이용하여 이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작업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이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전시의 타이틀로 사용하고 있는 “다르게 생각하기”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사실적 표피를 이용해서 현상, 인식, 관념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함이다.

LEE's work was conceived from his question and doubt over the phenomenon, awareness, and concept, and is the extension of posing a question by a means of an artificially created fictional being. As one can infer from the title that LEE has been using for his exhibit.



이택근 (1964~)

Taek-Keun LEE

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무제〉, 2020, 스티로폼, 한지, 톱밥, 먹물, 125 × 220 × 65cm

'Untitled', 2020, Styrofoam, Korean paper, Sawdust, Chinese ink, 125 × 220 × 65cm



류정민 (1979~)
Jungmin RYU

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경기도 거주

서울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in Gyeonggido,
Korea, works in Seoul,
Korea

아인 슈타인_생각의 생각 EIN STEIN_THINKING ABOUT THINKING

자신의 생각이 다른 이의 생각과 충돌하고 서로의 생각이 연결되어 또 다른 생각으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다양성과 다면성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돌(돌 조각 위에 포토 콜라주)을 이용해 시각적으로 사고(思考)의 과정과 형태를 표현한다. 하나의 돌이 하나의 생각이 되고, 그 돌과 돌이 서로 관계하며 확장되어 변형적 사고를 만든다. 생각은 생성과 소멸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과정 속에 재결합되고 변형되는 시간을 지나간다. 돌을 소재로 사고하는 과정을 자석을 이용한 사진 조각으로 재현한다.

One's thought clashes with or connects with the thoughts of others, which creates a new thought. The diversity and multifaceted-ness of thoughts are visualized by stones (photo collage on top of stone sculptures) to demonstrate the process and form of a thought. A thought passes though the re-united and morphing time in the process of infinite repetition of generation and extinction. RYU, using stones as main materials, reproduces the process of a thought by photograph sculptures with magnets.



〈아인 슈타인_생각의 생각〉, 2020, 모터, 자석, 강선(와이어),
피그먼트 프린트, 스티로폼, 가변 크기

'EIN STEIN_Thinking about Thinking', 2020, Motor, Magnet, Steel
wire, Pigment print, Styrofoam, Variable size

빙글빙글 ROUND AND ROUND

작품 <빙글빙글>을 제작한 의도는 사람마다 마음 속에 맴도는 감정적 또는 심리적 형상들을 유기적 형태와 모빌 형식을 차용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삶 속에서 빙빙 맴도는 자신과의 만남을 내포하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재밌는 놀이, 아름다운 형태, ... 등 다양한 이야기 속에 놓여지기를 바란다.

'Round and Round' attempts to visualize the emotional or psychological shapes that dwell on human minds through the mobile and organic forms. YANG intends for her work to invite the visitors to encounter their inner thoughts and emotions that spin around inside them. At the same time, she wishes that the visitors will take away different meanings from the installation - perhaps that it is simply fun to play with or beautiful to look at.



양리에 (1970~)

Lee-Ai YANG

한국 Korea

한국 마산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Born in Ma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빙글빙글>, 2018, 구리선 편물, 목재 모빌 본체, 가변 크기

'Round and Round', 2018, Copper wire knitting,
Wood mobile body, Variable size



리홍보 (1974~)

Hong-Bo Li

중국 China

중국 지린 성 출생

현, 중국 베이징 거주 및 활동

Born in Jilin, China

Lives and works in

Beijing, China

자연 연작-나무 NATURE SERIES-WOOD

‘자연 연작-나무’는 언뜻 보기에는 일반 나무처럼 보이지만 온전히 종이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작가는 재료를 당기고 늘리고 비틀어 본래의 모양과 딱딱한 질감을 없앴다. 이를 통해 견고한 형태는 사라지고 한결 부드러운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각(知覺)의 세상은 가변적이고 비영속적이라는 것을 반영한다.

“Nature Series-Wood “ is a work made of paper. It looks like the usual “tree” from the surface but, it is made entirely from paper. By pulling, stretching and twisting, it changes its inherent shape and gives up its apparently hard texture. The work discards its hard form for a gentler scene in this way. These changes reflect that the sentient world is changeable and impermanent.



〈자연 연작-나무〉, 2016~2017, 종이, 지름 30 × 300cm, 80kg 3개

‘Nature series-Wood’, 2016~2017, Paper, Diameter 30 × 300cm, 80kg 3 pieces

나무, 위에 돌, 위에 나무 TREE, ON A STONE, ON A TREE

‘나무 위에 돌 위에 나무’는 어린아이가 거대한 산을 올려다 보며 상상했던 산의 형상을 작품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연의 광범위한 의미에 도달하지 못했던 저는 우뚝 솟아있는 산을 올려다 보며 누군가 나무와 돌을 켜켜이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다. 끊임 없이 운동하던 자연의 모습을 도형과 입방체로 제작하고 그 사이사이 자리 잡고 있던 갖가지 개체들을 콜라주 하여 형태를 완성한다. 작품은 왜곡된 기억과 변형된 이미지로 새로운 숲을 구성하게 되고 관람자들이 그 숲을 마주하며 낯선 시선으로 연결된 새로운 자연을 찾아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Tree, on a stone, on a tree’ illustrates the shape of a mountain imagined by a child looking up at an enormous mountain. Without fully understanding the entire scope of nature’s meaning, SHIN used to think, while gazing up at a mountain, that someone must have piled trees and stones on top of each other to form the great mountain. She made geometric forms and cubes to represent the ceaselessly moving nature and collaged various things to fill the nooks in between them, to complete the whole installation. She hopes that the visitors will face the forest that has been newly composed of distorted memory as well as morphed images and discover a new nature through an unfamiliar eye.



신예진 (1985~)

Ye-Jin SHIN

한국 Korea

한국 부산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Busan,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나무, 위에 돌, 위에 나무〉, 2019, 미술, 우레탄 도장, UV 필름, 크리스탈 레진, 라인 테이프, 70 × 70 × 220cm, 65 × 65 × 182cm, 55 × 55 × 175cm, 70 × 70 × 130cm



‘Tree, on a stone, on a tree’, 2019, Pinetree, Urethane paint, UV film, Crystal resin, Line tape, 70 × 70 × 220cm, 65 × 65 × 182cm, 55 × 55 × 175cm, 70 × 70 × 130cm



신재은 (1984~)
Jae-Eun SHIN

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용인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Yongin, Korea

시들지 않는 동산 NEVER WITHERING HILL

생기가 넘치는 듯 윤기가 돌고, 매끈하게 반짝이는 투명 레진이 한번의 도약과 착지의 능선을 그리며 매달린 토끼를 두껍게 감싸고 있다. 레진은 찢득거리고 물컹거리는 물성 - 사체로부터 하염없이 흘러나오는 진액과 분비물, 냄새를 통제하고 있다. 작품에서 등장하는 토끼는 별주부전과 토끼와 거북이 우화에 등장하는 캐릭터처럼 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 우매한 결과를 낳는 자를 상징한다.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을 야생 동물과는 다른 우월한 존재로 구분 지으면서 미개함을 비웃지만 오히려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인공 프레임에 의해 부패되고 있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자 한다.

There is a rabbit hovering in the air, making a leap and then landing in one smooth projectile. The resin that covers the rabbit is so clear and thick that it makes the rabbit ever more gleaming and shinier. Resin keeps a gluey and mushy matter contained inside - in short, the sap and secretion that continuously ooze out of the rabbit carcass and the consequent odor. The rabbit in this work appears to be evil like the hare in Aesop's The Tortoise and the Hare or in Byeoljubujeon (a Korean fable about a rabbit and a turtle), but in fact, it symbolizes "the one that arrives at a foolish decision." The rabbit here is mocking the savageness of other wild animals by distinguishing itself as an animal superior to them. However, the irony lies in the fact that the rabbit is rotting inside the artificial frame that makes such a distinction.



〈시들지 않는 동산〉, 2019, 가죽을 벗긴 토끼, 레진,
600 × 200 × 20cm, 30kg

'Never Withering Hill', 2019, Skinned rabbits, Resin,
600 × 200 × 20cm, 30kg

일심-무경계, 온새미로 ONE MIND-BORDER CROSSING, ONSAEMIRO

나는 조각가로서의 삶과 창작과정은 그 자체가 일심(一心), 참마음을 깨달아가는 수행이라 생각한다. 조각가로 활동해 온 30여 년 간 여행, 걷기를 통해 호연지기를 키웠고 삶을 관조하며 주변을 돌아보는 실천적 삶을 선택 해 왔다. 특히 히말라야 ‘걷기’는 삶과 예술에 있어 ‘나=너=우리’ 라는 개체와 전체에 대해, 자연과 인간에 대해 깊이 사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사색을 통해 ‘음과 양’, ‘자유에의 회귀’, ‘모태’, ‘숙지산 참나무들의 비 창’, ‘숨 쉴’, ‘명상’을 주제로 유기체의 생성과 성장, 운동, 소멸 등 본질적인 생명력을 이야기 하였으며 동양적 사유방식과 상징적 언어로 표현되었다.

LEE believes the life or creative process of a sculptor is in and of itself One Mind (一心) - in other words, a journey of understanding the true mind. For the last three decades as a sculptor, she nourished her spirit by practicing walking, observed life, cared for others around her, and practiced what she believes. Her “walking” experience in the Himalayas helped her contempl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and Entirety, or between individual human beings and the world as a whole that, in life as well as in art, the relationship is essentially “Me = You = Us.” Inspired by such experience, her work illustrates the themes of “yin and yang,” “yearning for freedom,” “mother’s womb,” “sadness and grief of oak trees of Sukji Mountain,” and “meditation.” The work speaks about the essential vitality witnessed in the generation, growth, motility, and extinction of an organism, tapping on the Eastern ways of thinking and symbolic language.



이윤숙 (1961~)

Youn-Sook LEE

한국 Korea

한국 수원 출생

현, 한국 수원 거주 및 활동

Born in Suwon, Korea

Lives and works in

Suwon Korea



〈무경계 온새미로〉, 2019, 혼합재료, 가변 크기

'Border Crossing, Onsaemiro', 2019, Mixed Media, Variable Size



금민정 (1977~)
MinJeong GUEM

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고양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Goyang, Korea

타인의 고통_산록서로 SUFFERINGS OF OTHERS_SANROKSULO

금민정 작가는 이번 작품 〈타인의 고통〉을 통하여 시각화 논리의 객관성 혹은 논리성을 찾아가는 과정의 고민을 스스로에게서 좀 벗어나 어떤 기계적 알고리즘에 의해서 실험해 보기로 하였다. 작가는 〈타인의 고통〉작품에서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특정 장소를 선택하였고 그 장소에서 느껴지는 인간의 감정을 그 장소에서 본 풍경의 데이터를 이용한 변형을 통하여 비디오와 조각으로 재현하였다.

GUEM, through her work 'Sufferings of Others', attempts to experiment with a mechanical algorithm to address the process of exploring the subjectivity or logicity of visualization, instead of contemplating upon it herself. She selected a particular location in Jeju Island during her trip there, and reproduces the human emotions she felt from that space with a video that uses the modified landscape data and sculpture around it.



〈타인의 고통_산록서로〉, 2019, LED 미디어 월, (00:03:59)영상,
나무, 숯, 70 × 230 × 150cm, 30kg

'Sufferings of others_Sanroksulo', 2019, LED Media wall, (00:03:59)
Loop, Wood, Charcoal, 70 × 230 × 150cm, 30kg

비조각으로 To Non-Sculpture

Step 2

-
1. 렌 홍 웨이 Hong Wei REN (1975~), 중국 China
 2. 김연 Yeon KIM (1968~), 한국 Korea
 3. 진달래 Dallae JIN (1972~) & 박우혁 Woo-Hyuk PARK (1973~), 한국 Korea



렌 홍 웨이 (1975~)

Hong-Wei REN

중국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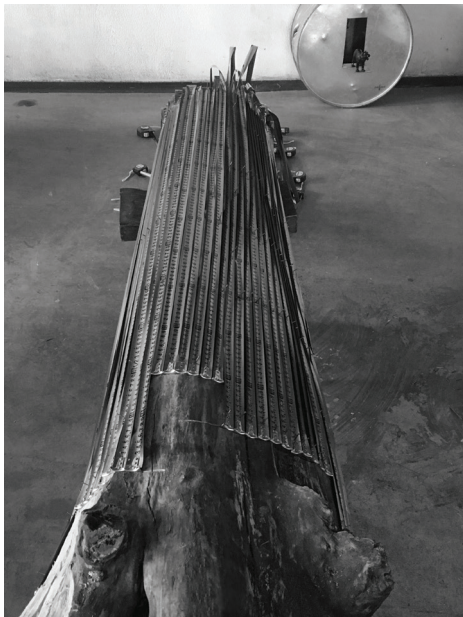
중국 푸젠 성 지안 우 출생
현, 중국 베이징 거주 및 활동

Born in Jian'ou,
Fujian, China
Lives and works in
Beijing, China

쓸모없는 USELESS

뿌리가 달린 나무 몸통과 100여 개의 줄자로 구성된 작품이다. 줄자는 마치 몸통과 가지가 연장된 것 같이 죽 뻗어있고, 몸체 부분은 잎과 열매 같이 보인다. 이 작품은 산업과 자연의 충돌, 빠른 사회 발전과 도시화의 폐해를 그리며 쓸모 있음과 없음에 대해 철학적 사색을 던진다.

The work consists of a tree trunk with roots and more than 100 tape measures. The tape stretches like the extension of trunk and branches, and the tape box is like leaves and fruits. The works mainly express the conflict between industry and nature, the pain of rapid social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expansion. Philosophical speculation on use and useless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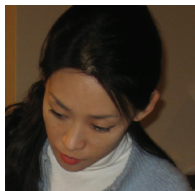


〈쓸모없는〉, 2019, 자연목, 줄자, 가변 크기, 80kg
‘Useless’, 2019, Natural pieces of wood,
Tape measures, Variable Size, 80kg

관조 202009 CONTEMPLATION 202009

자연 이미지에 대한 회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투영한다. 자연이 주는 빛의 울림은 내게 많은 것을 갖게 하고 또 버리게 한다. 마음을 멈추고 바라보는 순간, 나는 고요한 수면 위로 드러나는 존재를 느낀다. 빛은 나를 깨어있게 하며, 주위의 수많은 경이로움과 만나게 한다.

I reflect my inner self upon my recollection of natural images. The reverberation of light that nature emits makes me possess many things but at the same time discard many things. As soon as I take a pause and gaze upon my mind, I feel a presence that emerges above the still water. Light keeps me awake and let me encounter numerous wonders around me.



김연 (1968~)

Yeon KIM

한국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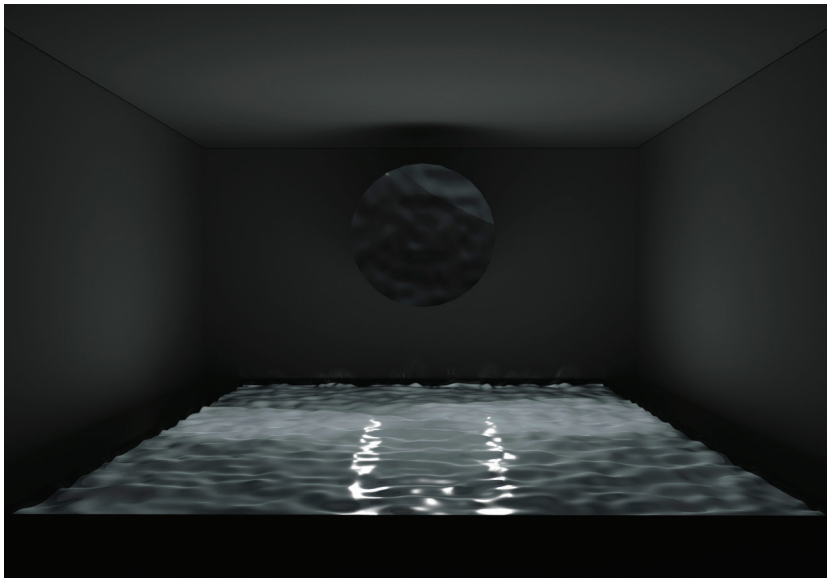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명상 202009〉, 2020, 스테인리스 스틸, 철판, 물, 조파기
3000 × 4800 × 8400mm

‘Contemplation 202009’, 2020, Stainless steel, Steel, Water, Wave
machine, 3000 × 4800 × 8400mm



진달래 (1972~)

Dallae JIN

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박우혁 (1973~)

Woo-Hyuk PARK

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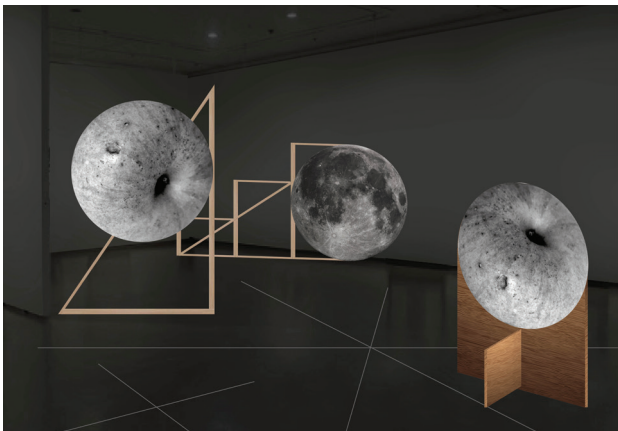
별들은 분명 달 뒤에 있다 (콜라보 : 진달래 & 박우혁)

STARS ARE DEFINITELY BEHIND THE MOON

(COLLABORATION : DALLAE JIN & WOO-HYUK PARK)

이것은 달과 같은 것이다. 평면이며 입체, 앞이며 뒤, 안이며 밖, 보이며 보이지 않는 것, 시작이며 끝인 것이다. 이 작품은 어떤 극(劇)이 벌어지는 무대다. 3개의 구조물은 무대 장치임과 동시에 등장인물이다. 구조물은 앞뒤가 상반된 무대 장치처럼 원형 판과 입체 구조가 앞뒤로 결합된 형태다. 보통의 무대 장치는 관객에게 보이는 앞면과 뒷면 구조물로 구성된다. 그러나 사실 앞면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고, 뒷면이 무대 장치를 지탱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앞과 뒤, 어느 쪽이 참모습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 세계는 이런 양면성으로 가득 차 있다. 구조물과 구조물 앞면의 비디오 작업은 이런 양면성을 대변한다. 달의 자전과 공전 때문에 우리 시점에선 달의 앞면 밖에 볼 수 없지만, 전부를 본다고 착각한다. 이 작업은 달의 뒷면, 사회의 문화가 주도하는 지향점 이면에 존재할 상상의 여지에 대한 환기다.

The work is like the moon. This is both two-dimensional and three-dimensional, inside and outside, something visible and invisible, and the start and the end. This work is a stage for theater. Three structures are both the set and the characters. Just as the front of a set is different from its back, the structures are composed of a three-dimensional structure attached to a flat circle. Normally, the audience only gets to see the front of the set. However, knowing that the front is only a shell and that it is the back that actually supports the set, it is difficult to judge which one - the front or the back - represents what is true. This world is full of such duality. The structures and the video works on the front of the structures represent such duality. Since the moon rotates on its axis as well as around the earth, we can only see the front of the moon, but we mistakenly think that we see the whole moon. This work is a reminder about the room left for imagination behind what the society pursues.



〈별들은 분명 달 뒤에 있다〉,
2020, 목재, 미디어 장비 다수,
180 × 180 × 270 cm, 200 ×
300 × 200 cm, 180 × 180 ×
200 cm, 100kg
‘Stars are definitely behind the
moon’, 2020, Wood, Variable
media devices, 180 × 180 × 270
cm, 200 × 300 × 200 cm, 180 ×
180 × 200 cm, 100kg

비조각으로 To Non-Sculpture

Step 3

-
1. 김길후 Gil-Hu KIM (1961~), 한국 Korea
 2. 조경재 Kyoung-Jae CHO (1979~), 한국 Korea
 3. 연기백 Ki-Baik YUON (1974~), 한국 Korea
 4. 이수경 Soo-Kyung YEE (1963~), 한국 Korea
 5. 세바스찬 위커로스 Sebastian WICKEROTH (1974~), 독일 Germany
 6. 에스더 스토키 Esther STOCKER (1974~), 이탈리아 Italy
 7. 한영호 Young-Ho HAN (1956~), 한국 Korea
 8. 발티스트 데봄버그 Baptiste DEBOMBOURG (1978~), 프랑스 France
 9. 김주리 Juree KIM (1980~), 한국 Korea
 10. 이병호 Byung-Ho LEE (1976~), 한국 Korea
 11. 리우 수이 양 Shui-Yang LIU (1974~), 중국 China
 12. 유세프 리무드 Youssef LIMOUH (1964~), 이집트 Egypt



김길후 (1961~)
Gil-Hu KIM

한국 Korea
한국 부산 출생
현, 한국 대구,
중국 북경 거주 및 활동
Born in Busan, Korea
Lives and works in
Daegu, Korea and in
Beijing, China

자화상_망각과 자유 SELF-PORTRAIT_OBLIVION AND LIBERTY

여기저기 작업실 어느 구석 자리를 잡고 긴 시간들을 함께 한 버려진 자투리 나무들을 모아 이리 저리 엮어서 팔레트를 들고 엉거주춤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들었다. 표현하다 보면 의외로 그 정수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이 안 남기도 하다. 피로 쓰는 기분으로, 피를 뽑아내듯이, 우울 속 물을 모조리 소진하듯이 만들어 나간다. 뭔가를 마친 것에 대해 더 이상 무상의 기쁨을 느끼며 그것으로 다시 삶을 보상받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천재에게 있어서는 모든 중간 휴식이, 또 운명의 무거운 타격조차도 편안한 잠과 마찬가지로, 작업실 자체의 근면함 속으로 떨어진다.

I made a person who stands awkwardly holding up a palette by putting together here and there the scrap wood pieces that have been accumulating at a corner of my workshop for quite some time now. In my attempt of expressing myself through my sculpture, I sometimes find the parts that actually belong to the essence do not always remain in the final work. I create my work as if I'm writing with my own blood, pumping it out of my vein, or completely depleting an entire well of mine. I no longer feel the greatest joy from finishing a work and feel that my life was compensated in return. To a genius, all breaks and even the hard blow of destiny fall into the diligence of the workshop itself - like a deep slumber.



<자화상1>, 2019, 합판, 나무, 모델링페이스트, 면장갑,
175 x 75 x 96cm, 30kg
<자화상2>, 2019, 합판, 나무, 아크릴릭, 155 x 76 x 65cm, 10kg



'Self-portrait 1', 2019, Plywood, Wood, Modeling Paste,
Cotton Gloves, 175 x 75 x 96cm, 30kg
'Self-portrait 2', 2019, Plywood, Wood, Acrylic,
155 x 76 x 65cm, 10kg

여좌본부 YEOWJA HEADQUARTERS

조경재는 진해 출신이다. 현재 본인의 작업은 진해에서 살았던 본인의 집을 소재로 공간적 구성과 재료들의 조합으로 사진작업의 확장적 개념을 찾아가고 있다. 조경재는 유년 시절에 살았던 집의 구조와 공간의 요소들이 현재 본인의 사진 작업에서 존재하는 공간적 구성 요소와 매우 흡사함에 놀라고 있다. 집을 만들고 그 집을 절단되었을 때의 구조적 즉흥성을 이번 창원비엔날레에서 보여줄 계획이다. 작품은 설치적 요소와 조각적 요소가 동시에 연출될 것이다. 관객이 일부 설치 공간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작업이다. 완성된 설치는 하나의 조각품으로도 보여질 수 있지만 단순한 공간적 변형으로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CHO is from Jinhae. Currently, he is seeking an expansive concept of photography by combining various materials with a certain composition of spaces, based on his own home in Jinhae where he used to live. He was surprised by the striking similarity between the spatial structure of his old home from childhood and that of his own photography works today. He is going to display the spatial spontaneity created when a house is constructed and then split in half. Visitors can physically enter some parts of the structure. The installation can be viewed as one sculpture as a whole, but, at the same time, as a simple spatial metamorphosis.



조경재 (1979~)
Kyoung-Jae CHO

한국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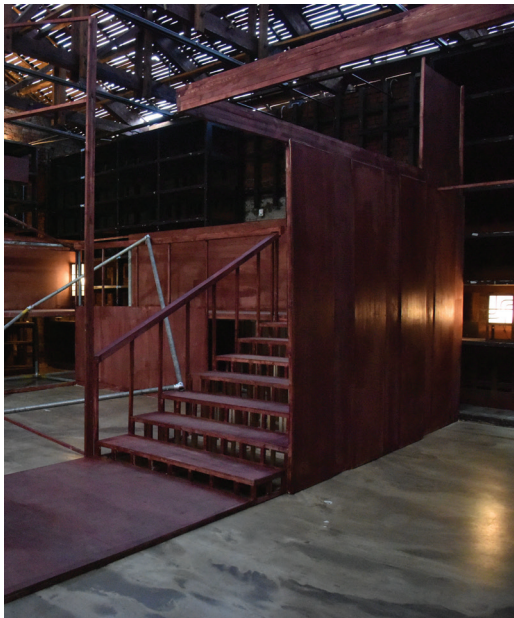
한국 진해 출생

현, 한국 파주 거주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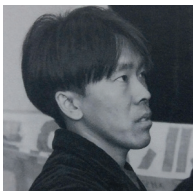
Born in Jinhae, Korea

Lives and works in

Paju, Korea



〈여좌본부〉, 2020, 나무, 벽돌, 시멘트, 조명,
쇠파이프, 400 × 400 × 300cm, 150kg
‘Yeojwa Headquarters’, 2020, Wood, Brick,
Concrete, Light, Steel pipe,
400 × 400 × 300cm, 150kg



연기백 (1974~)

Ki-Baik YUON

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반월 19 BANWOLL 19

도배프로젝트에서 주목하는 대상은 벽지이다. 벽지의 물리적인 결을 신체적으로 살피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공간의 거주자, 도배라는 행위와 관계된 사람들로 확장되어 살피고 있다. 건물이 사회적 틀과 제도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벽지는 거주자의 피부이자 개인의 실재하는 삶의 무대의 ‘막’이기도 하다. 분리된 벽지들은 물건에서 사물(thing)로의 전환, 관념에서 실재로의 전환을 가로지르며 일상의 삶과 예술(조각)의 경계에 대해 다시금 의문을 던진다. 이번 출품작은 창원(구. 마산, 진해)지역 답사를 통해 마주하게 될 일제강점기 적산 가옥과 70~80년대 주택들 내부의 벽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Wallpaper is the main subject of YUON's plastering project. He has been approaching such a project with, first, carefully examining the physical texture of wallpaper, then expanding the scope to the residents of the space as well as those who are involved in the act of plastering. If a building is a framework of a society and a product of institutions, wallpaper is the resident's skin as well as the curtain of a life's stage on which an individual person exists. The separated wallpaper is transformed from an object into a thing and from being conceptual to being present, posing a question on the border between everyday life and art (sculpture). This installation was constructed by the wallpaper from the Japanese colonial houses dispersed around Changwon (former Masan and Jinhae) as well as the houses built from the 70s to 80s that YUON visited.



〈가리봉133〉, 2014, 벽지,
나무, 가변 크기
‘Garibong 133’, 2014,
Wallpaper, Wood,
Variable size

번역된 도자기 TRANSLATED VASE

번역된 도자기는 버려진 도자기 파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한국의 도자 장인들은 한국 전통 도자기를 재현하면서 작품의 희소성과 최고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완성된 도자기에서 작은 결점이라도 발견되면 그 도자기를 파기해 버린다. 그렇게 생겨난 부서진 도자기 파편들을 입체 퍼즐 조각처럼 맞추고, 파편들 사이의 틈을 금으로 덮어 제작한 이 작품에서 나는 도자기가 부서진 순간부터 작품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나의 번역과 해석에 의해 새로운 이야기와 의미를 담은 작품이 완성된다.

'Translated Vase' is composed of the fragments of a broken vase. Korean potters, in their endeavor to reproduce the perfect traditional Korean vase, break their finished works if they spot one speck of flaw to ensure the scarcity as well as the best possible value of the work. YEE gathered those broken fragments and put them together like a jigsaw puzzle by amalgamating them with gold, though which process she obtains an opportunity to intervene from the moment the vase was broken. Then she comes to complete a work that contains new stories and meanings after her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이수경 (1963~)

Soo-Kyung YEE

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번역된 도자기_2017 TVBGJW 2〉, 2017, 도자 파편, 에폭시, 24K 금박, 230 × 190 × 165cm

'Translated Vase_2017 TVBGJW 2', 2017, Ceramic fragment, 24K Gold leaf, 230 × 190 × 165cm



세바스찬 위커로스 (1974~)
Sebastian WICKERTH

독일 Germany
독일 뒤셀도르프 출생
현, 독일 뒤셀도르프
거주 및 활동
Born in Düsseldorf,
Germany
Lives and works in
Düsseldorf, Germany

무제 (전문적 변형) UNTITLED (PROFESSIONAL DEFORMATION)

형태와 내용 면에서 기하학적 형상의 해체는 세바스찬 위커로스의 작품세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정육면체와 벽면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린다. 형상과 해체는 서로를 마주하며 하나가 된다. 부식은 단조로운 완벽함을 만나 일종의 서사적 요소를 빚어낸다. 파괴된 회화적 공간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의 논리와 인과관계를 탐구한다. 작품은 조각의 파괴가 아닌 동등한 건축 방식으로서의 해체의 탄생을 말하고 있다. 우발적이고 무질서해 보이는 일들이 평온한 구조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In form and content, the decomposition of geometrical shapes is an important element of my work. Cubes and walls are breaking up onto the floor. Shape and decomposition are faced with each other, are merging. Corrosion counters the monochrome perfection, and generates a kind of narrative element. The ruinous pictorial space surveys suggest logic and causality of incidences that never happened. It's not about the destruction of a sculpture, but to create decomposition as an equal mode of construction. Seemingly accidental and unregulated occurrences emerge as composed structures.



〈무제 (전문적 변형)〉, 2016, 석고보드, 락카, 나무, 210 × 260 × 70cm 'Untitled(professional deformation)', 2016, Plasterboard, Lacquer, Wood, 210 × 260 × 70cm

무제 UNTITLED

에스더 스토크는 ‘구겨진 조각(Knitterskulpturen)’을 만들기 위해 기하학적 무늬를 종이에 흑백으로 인쇄했다. 종이는 구겨짐과 접힘을 통해 ‘구겨진 종이 문치’라는 이름에 걸맞는 오브제로 변신한다. 구겨진 조각들은 모더니즘 형태에서 강요되는 엄격한 기하학으로부터 해방되는 방식으로 질서정연한 공간을 접고 왜곡시키려 한다. 이러한 개입을 통해 작가는 시스템의 경직성에 대한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동시에 보는 이의 지각능력을 시험한다. 명료성은 혼란으로 대체되고, 견고함은 취약성의 여지를 남긴다. 시스템의 변화가 곧 시스템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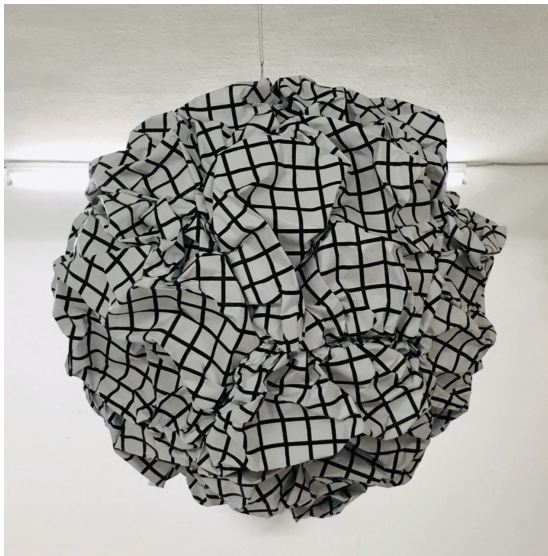
For my Knitterskulpturen (Creased Sculptures) geometric patterns are printed on paper sheets in black and white. By way of creasing or folding they are turned into objects, which might be most aptly described as a “crumpled paper ball”. Creased Sculptures seek to fold and distort the ordered space in a way that they break with the strict geometry that is imposed by modernist forms. With this intervention, I want to call into question the assumed rigidity of a system, whilst challenging the perceptive faculty of the viewer. Clarity gives way to disorientation, and solidity provides space for fragility. The change of the system becomes the system.



에스더 스토크 (1974~)
Esther STOCKER

이탈리아 Italy

이탈리아 실란드로 출생
현, 오스트리아 비엔나
거주 및 활동
Born in Silandro, Italy
Lives and works in
Vienna, Austria



〈무제〉, 2020, 나무 구조물, 인쇄된 종이,
120cm × 120 cm × 120cm, 20kg,
(Version02: 230cm × 230 cm × 230cm, 80kg)

‘Untitled’, 2020, Wood-construction Printed paper,
120cm × 120 cm × 120cm, 20kg,
(Version02: 230cm × 230 cm × 230cm, 80kg)



한영호 (1956~)
Young-Ho HAN

한국 Korea
한국 춘천 출생
현, 한국 춘천 거주 및 활동
Born in
Chunche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uncheon, Korea

점과 선 POINT AND LINE

작가는 칸딘스키가 조형의 가장 기초적 두 가지 요소로 말한 ‘점과 선’에 주목하여, 점의 이동으로 형성되는 여러 가지 선의 형태들을 조형화한다. 작가는 이러한 점의 흐름과 이로 인해 순간적으로 생성된 선을 석조로 표현했다. 그의 작업은 비가시적인 점의 움직임을 추상적 이미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모더니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조각의 양감과 중량감을 제거하고 또한 석재의 단단한 특성을 거슬러 부드럽고 유연한 형상을 만들어낸 것은 모더니즘 조각을 벗어나 있다. / 권정임

HAN focuses on points and lines that Kandinsky deemed to be the two most fundamental elements of a sculpture. He makes a sculpture out of various forms of lines created by the movement of a point. This stone sculpture expresses such traverse of points and the subsequent lines instantly created. His work can be described to be modern for it demonstrates an invisible movement through a conceptual image; however, it breaks away from modernism for the artist chiseled away the sense of volume and weight of a sculpture and, instead, created a smooth and flexible form – a quality opposite of stone’s hard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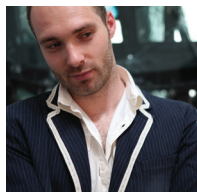
〈순간형상-점과 선〉, 2019, 오석, 60 × 49 × 60cm
〈순간형상-선의 모습〉, 2014, 오석, 50 × 44 × 52cm
〈순간형상-선의 흐름〉, 2012, 오석, 55 × 37 × 34cm

'Momentary Figuration-Point and Line', 2019, Ordinate, 60 × 49 × 60cm, 2019, 'Momentary Figuration- Figuration of Line', 2014, Ordinate, 50 × 44 × 52cm, 'Momentary Figuration-Flow of Line', 2012, Ordinate, 55 x 37 x 34cm

뒤틀림 DISTORTION

이 작품들이 예찬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부분적 파괴, 불안정한 복구, 회복력인 것이다. 이처럼 재구성된 작품들은 역설적인 측면을 넘어 시간, 역사, 기억 혹은 꿈에 대한 성찰로 풀이된다. 작가는 이번 창원조각비엔날레에 환경위기에 영감을 받은 작품을 출품했다. 이 작품은 가려진 현실의 민낯을 보여주기 위해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고정관념을 비틀고 인식의 구축 및 해체를 통해 시각적 경험을 전환시킨다.

They are not a celebration of power, but rather of partial destruction, incomplete restoration, and even resilience. Beyond their, sometimes ironic aspect, these restructured artworks are to be interpreted as reflections on time, history, memories, or dreams. For the Changwon Biennale, the artist realizes a work inspired by the environmental crisis. The idea behind the work is to distort our perception of the space and the feeling of home, to shift our visual experience by building and deconstructing our perception, in order to open our mind to see the hidden layers of reality.



밥티스트 데봄버그 (1978~)
Baptiste DEBOMBOURG

프랑스 France

프랑스 리옹 출생

현, 프랑스 파리 거주 및 활동

Born in Lyon, France

Lives and works in Paris,

France



〈뒤틀림〉, 2015, MDF 나무, 페인트, 석고, 3.32 × 19m × 15cm

'Distortion', 2015, Wood mdf, Paint, Plaster, 3.32 × 19m × 15cm



김주리 (1980~)

Juree KIM

한국 Korea

한국 마산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Masa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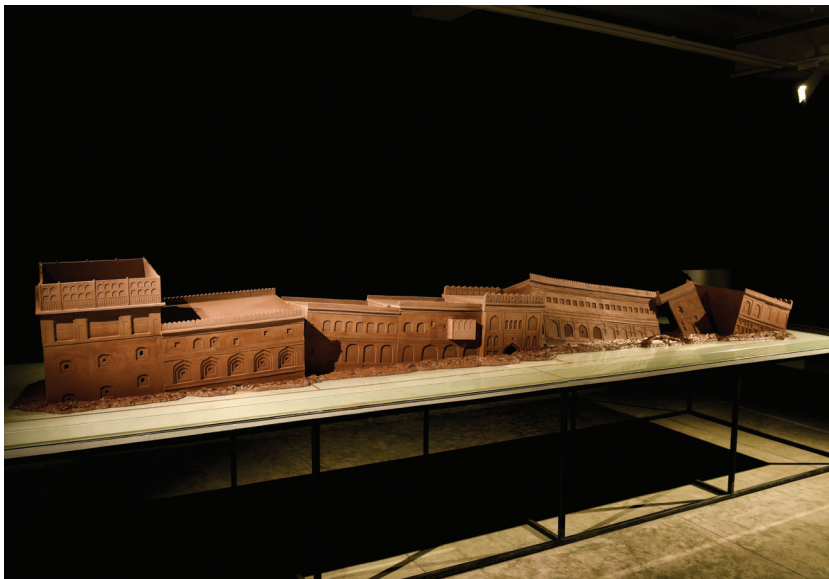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언덕 THE GROUND

사람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는 토양을 기반으로 한다. 즉 사람이 나고 죽음을 맞는 삶의 모든 행위는 땅위에서 이루어 진다. 우리 삶의 행위들은 땅을 장소로 만드는데 또 끊임없이 그 장소와 관계를 맺는다. 그러므로 장소는 삶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 작업은 우리의 삶과 관계하는 장소의 외양, 그 역사, 그리고 땅 위에 축적된 문화일 수 있는 건축의 모습을 빌어 사람과 땅, 자연의 리드미컬한 순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인공과 자연, 형상과 질료, 대상과 풍광 사이의 어느 경계에서 목도되는 자연과 삶의 선형적 관계는 인간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그것의 일부임을 알고자 한다.

The human world on which we walk and live is formed on land, which means all human activities in life from birth to death happen on the ground. All of our actions not only define what a ground should be but also have a relationship with such place. Therefore, the place contains the memories of life. This work talks about the appearance of the place in relation to humans, its history, and the stories of a rhythmical cycle of human, land, and nature by representing a form of architecture which can be interpreted as the culture accumulated on land. The transcendental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life witnessed at the border between artificial and natural, form and substance, and subject and scenery, in the end, should not be defined through the human perspective but understood as something humans already belong to.



〈휘경;揮景-신의 우주:자이푸르〉, 2018, 흙, 물, 500 × 130 × 70cm

‘Evanescent Landscape-Svarglok: Jaipur, 2018, soil, water, 500 × 130 × 70cm

앉은 형상 SEATED FIGURE

완성된 고전주의적 조각의 견고한 표면과 유동할 수 없는 조각의 한계에 대한 극복의 방법으로 제안된 작업이다.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로 제작된 조각의 외형은 에어컴프레서의 작동으로 움직이며 조각상 내부의 양상한 형태로 변형하길 반복한다. 이는 완성 단계에서 주어진 움직일 수 없는 견고한 조각의 표면을 깨는 것이며 시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조각 내면의 한 지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LEE proposes this work to be a way of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a hard surface and inflexibility of a classical sculpture. The surface of this sculpture is made of soft silicone and moved by an air-compressor that repeatedly changes it to expose its rather emaciated inner form. This act breaks the hard surface of a sculpture that cannot be changed once finished as well as exposes the inner part of the sculpture that is not visible.



이병호 (1976~)

Byung-Ho LEE

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앉은 형상〉, 2019, 실리콘, 기계장치, 유리, 나무,
139 × 186 × 95.5cm

'Seated Figure', 2019, Silicone, Machinery devices, Glass, Wood, 139
× 186 × 95.5cm



리우 수이 양 (1974~)
Shui-Yang LIU

중국 China

중국 린이 시 출생,
현, 중국 베이징 활동 및 거주
Born in Linyi, China
Lives and works in
Beijing, China

아이언 IRON

리우 수이 양은 물질에 가려진 사회적 속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한다. 철근 잔해, 화재로 녹아 내린 차량에서 나온 알루미늄 합금 등의 오브제는 구조적 물질 및 구성요소를 토대로 권력을 추구하는 사회적 욕구와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원죄를 안고 있다. 이들 오브제를 구성하는 분자조차 돈의 약취와 권력의 오만함을 내뿜는다. 물질은 불멸하고 원죄는 절대 씻겨지지 않는다.

Liu shui-yang has delved deeper into the close examination of social properties hidden within the materials themselves. Whether steel and rebar wreckage, or the aluminum alloy from a car that was melted in a fire, these objects have built social desires and will to power with structural materials and elements, and as such, they possess an original sin that can never be washed away. Their every molecule oozes the stench of money and the arrogance of power. Matter is indestructible and original sin can never be wiped clean.



〈아이언〉, 2019, 철근, 나무,
80 × 90 × 90cm, 300kg, 3개
‘Iron’, 2019, Iron, Wood,
80 × 90 × 90cm, 300kg,
3pieces

미국 LABYRINTH

“문자적·은유적 측면의 질서와 혼돈, 구조와 붕괴, 인체의 쇠약과 현실의 폭력 사이의 어딘가에 있는 이 작품은 우리의 존재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그 자체로 마치 하나의 미국 같은 잔해들을 탐구한다.”. Y. L

“Between order and chaos, structure and ruin and the frailty of the human body and the violence of reality in both its literal and metaphorical aspects; this work addresses the wreckage that surrounds us and never stops threatening our existence, which is in itself a kind of a labyrinth”. Y. L



유세프 리무드 (1964~)
Youssef LIMOUD

이집트 Egypt

이집트 카이로 출생
현, 스위스 바젤 거주 및 활동
Born in Cairo, Egypt
Lives and works in Basel,
Switzerland



〈미국〉, 2018, 니도보드, 5.5 × 5.5 × 2.4m

'Labyrinth', 2018, Nidoboard, 5.5 × 5.5 × 2.4m

비조각으로 To Non-Sculpture

Step 4

-
1. 마크 게리 Mark GARRY (1972~), 아일랜드 Ireland
 2. 카리나 스미글라-보빈스키 Karina SMIGLA-BOBINSKI (1967~), 독일 Germany
 3. 김동숙 Dong-Suk KIM (1963~), 한국 Korea
 4. 권순학 Soon-Hak KWON (1979~), 한국 Korea
 5. 정택성 Take-Sung JEUNG (1975~), 한국 Korea
 6. 김채린 Chae-Lin KIM (1983~), 한국 Korea
 7. 세인트 머신 Saint Machine (1979~), 루마니아 Romania
 8. 안카 레스니아크 Anka LESNIAK (1978~), 폴란드 Poland
 9. 박용식 Yong-Sik PARK (1971~), 한국 Korea
 10. 김동현 Dong-Hyun KIM (1974~), 한국 Korea
 11. 지고르 바라야사라 Zigor BARAYAZARRA (1976~), 스페인 Spain
 12. 임창주 Chang-Ju YIM (1963~), 한국 Korea

다양한 공간 A VARIABLE SPACE

2020창원조각비엔날레에 전시된 이 작품은 재료의 물리적, 결합적 특징과 잠재력을 확장하고 통합시키고자 하는 작가의 폭넓은 작품세계에 대한 틀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대형 캔버스 작품의 제목은 ‘새도우 트윈’, 형형색색의 망사 소재 작품의 제목은 ‘컬러 인터랙션’이다. 작가는 해당 작품들을 통해 깊은 인상을 남기면서도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 교훈을 주기보다는 시적인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추며 겸허함과 복잡함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The works being presented at Changwon Sculpture Biennale are indicative of the broader concerns of my practice, in that, they are concerned with the stretching and consolidating of a materials physical and associative properties and potentials. The large canvas piece is entitled 'Shadow Twin', and the coloured tulle works are entitle 'Interactions of Color'. These works aspire to be both empathetic and spectacular, enabling situations that are at once modest and complex, foregrounding the poetic over the didactic.



마크 게리 (1972~)
Mark GARRY

아일랜드 Ireland
아일랜드 멀린가 출생
현, 아일랜드 보일
거주 및 활동
Born in
Mullingar, Ireland
Lives and works in
Boyle, Ireland



〈새도우 트윈 / 컬러 인터랙션〉, 2020, 캔버스,
나무, 핀, 망사, 가변 크기
'Shadow Twin / Interactions of Color', 2020,
Canvas, Wood, Pins, Tulle, Variable size,



카리나 스미글라

보빈스키 (1967~)

Karina SMIGLA-BOBINSKI

독일 Germany

폴란드 슈체친 출생

현, 독일 뮌헨 거주 및 활동

Born in Stettin, Po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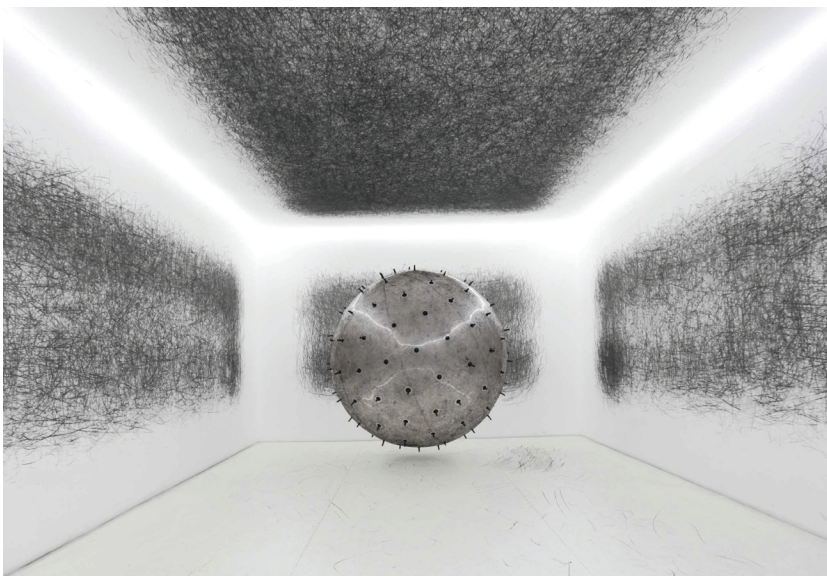
Lives and works in

Munich, Germany

에이디에이 ADA

‘에이디에이’는 미학적이고 복잡하며 예술을 창조해내는 대형 인터랙티브 기구이다. 헬륨가스로 가득 찬 이 기구는 공간을 자유롭게 부유한다. 세포를 닮은 구체의 표면에는 목탄이 꽃혀 있어 벽면과 천장, 바닥과 맞닿을 때마다 흔적을 남긴다. ‘에이디에이’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흔적을 남기지만 관람객이 굴려 주어야 한다. 하지만 관람객이 조정하거나 길들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에이디에이’는 강도, 표현, 형태 측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선과 점의 구성을 만들어낸다.

‘ADA’ is much larger, esthetical much complexer, an interactive art-making machine. Filled up with helium, floating freely in room, a transparent, membrane-like globe, spiked with charcoals that leave marks on the walls, ceilings and floors. Marks which ‘ADA’ produces quite autonomously, although moved by a visitor. The globe obtains aura of liveliness and its black coal traces, the appearance of being a drawing. The globe put in action, fabricate a composition of lines and points, which remains incalculable in their intensity, expression, form however hard the visitor tries to control ‘ADA’, to drive her, to domesticate her.



©Karina SMIGLA-BOBINSKI "ADA" - analog interactive installation by Karina SMIGLA-BOBINSKI

〈에이디에이〉, 2016, PVC 풍선, 목탄, 헬륨, 지름 3m

‘ADA’, 2016, PVC balloon, Charcoals, Helium, Diameter 3m

어떤 형상 I 19-04 / 어떤 형상 II 20-08

SOME SHAPE I 19-04 / SOME SHAPE II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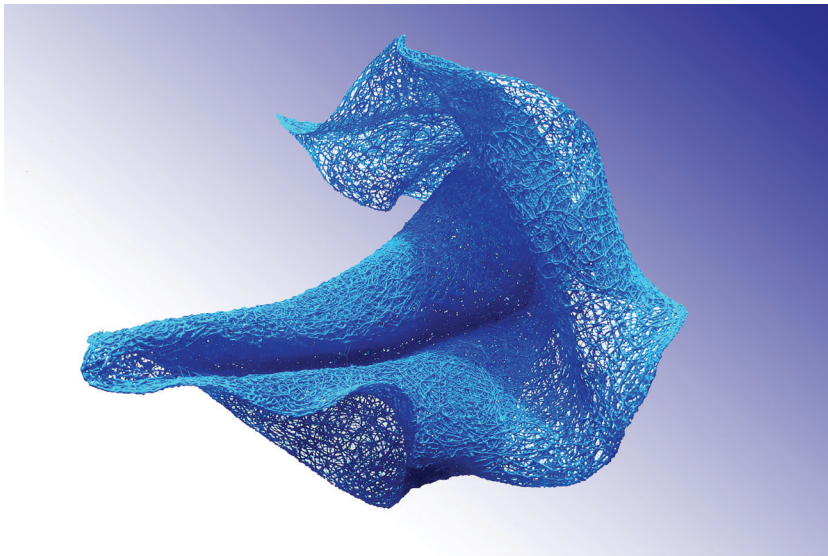
우리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형상에 익숙하여, 모든 대상을 고착화된 사고와 한정된 상상력으로 생각하거나 시각적으로 인식하려고 한다. 무한 공간에 펼쳐지는 특정되지 않은 형상을 표현하여 고착화된 익숙한 형상을 벗어나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른 의식의 흐름을 통해 다양한 사고의 확장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작가의 내포된 암묵적 의도마저 보는 이의 관점에 맡겨 가볍거나 유연한 자유로운 사고의 만남을 꿈꾼다.

We tend to view or visually recognize all subjects with a fixed pre-conception or a limited imagination since we have all been accustomed to concrete and specific forms. KIM seeks to expand the spectrum of thoughts and imagination by expressing undefined forms freely expanding in an infinite space, pushing the fixed and familiar forms and following different flows of different consciousnesses depending on a perspective. KIM desires to encounter free-flowing and light or flexible thoughts by leav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hidden intent completely up to the view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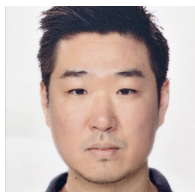
김동숙 (1963~)
Dong-Suk KIM

한국 Korea
한국 진해 출생
현, 한국 경기도 광주
거주 및 활동
Born in Jinhae, Korea
Lives and works in
Gwangju, Gyeonggi-do,
Korea



〈어떤 형상 I〉, 〈어떤 형상 II〉, 2019, 2020, E.V.A, 혼합 재료, 강철 와이어, 특수 페인트, 특수 코팅 라미네이션, 형광페인트, 95 × 75 × 70cm, 300 × 130 × 150cm

'Some Shape I', 'Some Shape II', 2019, 2020, E.V.A, Mixed material, Steel wire, Special paint, Special coating lamination, Fluorescent paint, 95 × 75 × 70cm, 300 × 130 × 150cm



권순학 (1979~)
Soon-Hak KWON

한국 Korea
한국 청주 출생
현, 한국 인천 거주 및 활동
Born in Chungju, Korea
Lives and works in
Incheon, Korea

어딘가 ELSEWHERE

이번 출품작은 2019년 개인전 'Partitions'의 방법론을 계승하는 형식이다. 전시 공간을 미리 방문하여 이전 전시와 전시가 교체되는 시점에서 작품이 걸려져 있었던 벽을 촬영하는 작품과 전시 공간을 특정한 시점에서 촬영하여 이를 그 자리에 설치하는 작품이 공존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새롭게 실험하고자 하는 것은 벽을 촬영하는 작품을 본인의 이전 작품에서 시도한 우주망원경 센서의 배열을 프레이밍화하여 제작하는 것과 비어있는 공간을 촬영할 때 조경수를 전시장에 들여와 촬영하는 것이다. 나무들이 들어와있는 장면을 촬영한 뒤 나무들은 철수하고 실제 전시에서 사진이미지로만 존재하게 된다.

'Elsewhere' inherits the methodology adopted in KWON's 2019 solo show Partitions. It involves a pre-visit to the exhibition hall to take photographs of the walls where artworks once hung from a previous exhibition and an installation of photographs of the exhibition space taken at a specific point in time. New elements to explore this time include the incorporation into the former of a frame-by-frame layout of sensors in astronomical telescopes, a method tried in his previous work, as well as the inclusion of landscape trees in the latter. The trees are removed once they are captured, and they only exist in photographic images in the eyes of the visitor.



〈파티션즈〉, 2019, 지클리 프린트와 프레임 등 설치 구조물, 가변 크기

'Partitions', 2019, Giclée prints with frames and installation structures, Variable size

컬러풀 밤 COLORFUL BOMB

본 작품은 타워 형 박스 위에 다양한 색상의 페인트가 각 면을 타고 내리고 표면에서 터지는 등 유기적인 형태들로 구성된다. 큰 외형에서 드러나는 박스 형태는 건축적인, 도시적인, 현대적인 것을 상징하며 각각의 유기적인 형태를 가진 페인트 흘러내림은 현대적인 것에 상반된 자연 또는 자연스러움을 상징한다. 서로 다른 이 두 이미지는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어우러짐을 보여주며 현대 도시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에 대한 비율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This work is composed of various organic forms like the different colors of paints dripping down or exploding on the surfaces of a tower-like box. The box shape that makes the overall form of the sculpture symbolizes architecture, urbanism, and modernity while the organic shapes of dripping paints of rich colors symbolize the nature or something natural - as opposed to something modern. These two different images are not pitted against each other; rather, they mutually complement each other, visualizing the right proportion of beauty a modern city should pursue.



정택성 (1975~)

Take-Sung JEUNG

한국 Korea

한국 부산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Born in Bu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컬러풀 밤〉, 2020, 자작합판, 수성페인트,
184 × 160 × 140cm, 100kg
‘Colorful Bomb’, 2020, Birch plywood,
Water paint, 184 × 160 × 140cm, 100kg



김채린 (1983~)
Chae-Lin KIM

한국 Korea

한국 부산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Busan,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그로부터 비롯된 : LANDSCAPING, MODELING AND DIORAMA / 만지는 조각 / 고무조각-크기와 모양이 변하는 조각

IT IS ORIGINATED FROM: LANDSCAPING, MODELING AND DIORAMA / TOUCHING SCULPTURE / RUBBER SCULPTURE-SCULPTURE CHANGES IN SIZE AND SHAPE

그로부터 비롯된 시리즈는 본래의 기능에서 멀어져 촉각적 자극의 대상이 된 사물 조각들을 통해 사회 속에서 느끼게 되는 다양한 감정들과 상호간의 위치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여기서 작품에 쓰여진 사물들은 미술에서의 ‘오브제’라기보다는, 개인화된 사물로서 그 자체로 작품의 재료가 된다.

‘Landscaping, Modeling and Diorama’는 건축모형 스펀지 파우더의 이름이다. 인공의 자연을 만들어 내는 모형재료인 파우더와 코르크를 재료로 어디선가 본 듯한 식물을 연상시키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만지는 조각’은 체온에 의해 흰색으로 변하는 검정 조각으로 작품을 만지면 그 흔적이 시각적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지나면 그 흔적이 사라진다. ‘고무조각- 크기와 모양이 변하는 조각’ 고무재료를 제작되어 크기와 모양이 변할 수 있지만, 크기를 키우려고 당긴다면 그만큼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구조로 작품의 안정성과 크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The ‘It is Originated from’ series seek to identify different emotions one feels in a society and these emotions’ positions in relation to each other through the pieces of objects that, after having been removed from their original functions, have been objectified for touching. The objects used in this work are not an objet d’art but materials themselves as individualized objects.

‘Landscaping, Modeling and Diorama’ is the title of a sponge powder for an architectural model. A plant-looking sculpture is made with the powder and cork - material for artificial landscapes.

‘Touching Sculpture’ changes its color from black to white according to body temperature. When touched by hand, this black sculpture is imprinted with a white trace that goes away in time.



<그로부터 비롯된 : Landscaping, Modeling and Diorama>, 2019, 코르크, 스펀지 코팅된 스티로폼, 79 × 100 × 135cm, 5kg
<만지는 조각>, 2018, 실리콘 코팅된 석고, 90 × 90 × 51cm, 10kg
<고무조각- 크기와 모양이 변하는 조각>, 2018, 스펀지, 고무, 90 × 60 × 250cm

‘It is Originated From : Landscaping, Modeling and Diorama’, 2019, Cork, Styrofoam coated with Sponge, 79 × 100 × 135cm, 79 × 80 × 135cm, 5kg, ‘Touching Sculpture’, 2018, Plaster coated with Silicone, 90 × 90 × 51; 53 × 68 × 51cm, 10kg, ‘Rubber sculpture - Sculpture changes in size and shape’, 2018, Sponge, Rubber band, 90 × 60 × 250cm

하이브리드 센서리움 HYBRID SENSORIUM

‘하이브리드 센서리움’은 물리적인 공간 내에서 우리가 몸을 자각하는 방식과 기술의 중재로 인해 야기된 감각의 왜곡을 탐구한다. 이 작품은 관람객이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작품과 관람객 모두 감정적 오염에 취약해진다. 자연적인 재료인 몸, 즉 관객들의 머리를 집어 넣는 구조물은 인공적인 투과성 막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니즈를 조절하고자 한다. 하이브리드 유기체는 관람객의 호흡 리듬에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산소를 얻는 대신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니즈에 적응한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 행동을 모니터링 및 기록하며 인간이 구축된 환경에 물리적으로 순응할 가능성을 시험한다.

‘Hybrid Sensorium’ explores the way we sense our body within the physical space and the sensory distortions caused both by mediating technology. The artwork is placed in immediate physical contact with the visitor, thus both become vulnerable to emotional contamination. A fabricated structure is superposed on the natural medium of the body, an artificial, permeable membrane that tries to condition our biological needs. The hybrid organism reacts in real time to the rhythm of your breathing and tries to adapt it to its needs, offering digital content in exchange for oxygen. It tests human availability to cede physicality to a constructed environment, while monitoring and archiving the user behavior.



세인트 머신 (1979~)
Saint Machine

루마니아 Romania
루마니아 칼라파트 출생
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거주 및 활동
Born in
CALAFAT, Romania
Lives and works in
Bucharest, Romania



〈하이브리드 센서리움〉, 2017, 레진, 100 × 130 × 230cm

‘Hybrid Sensorium’, 2017, Resin, 100 × 130 × 230cm



© Agnieszka CYJACKA

안카 레스니악 (1978~)
Anka LESNI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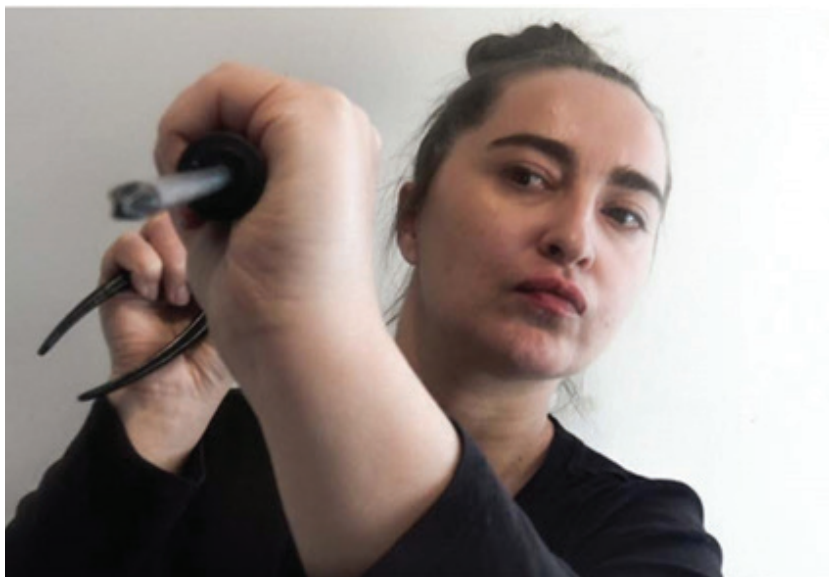
폴란드 Poland

폴란드
 비엘스코-비알라 출생
 현, 폴란드 그단스크
 거주 및 활동
 Born in
 Bielsko-Biala, Poland
 Lives and works in
 Gdansk, Poland

조각 의식 SCULPTURE RITUALS

안카 레스니악은 돌 같이 단단한 재료를 조각하는 행위를 모방하고자 한다. 끌, 망치 등의 도구를 사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조각을 만드는 것이다. 공중에 끌질하는 작가의 몸짓은 일종의 신비로운 의식을 연상시킨다. 끌과 망치 소리는 모스부호로 암호화된 메시지로써 표현된다. 메시지는 한국의 여성 작가/조각가의 페미니스트 선언이 될 수도 있다. 이 때 텍스트는 관객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복사본을 비치해 두거나, 작가의 조각 영상에 한 자 한 자씩 나타날 수도 있다.

I would like to imitate the act of sculpting in a hard material such as stone. I am going to sculpt an invisible sculpture with the use of chisels, hammers, etc. I will be chiseling it in the air. My gestures can be also associated with a kind of mysterious ritual. However the sounds made by knocking a hammer and chisel will be in fact an encrypted message in a Morse alphabet. It could be a feminist statement. Maybe a statement of the Korean female artist/female sculptor? The text can be available for the audience as a xerocopy/print which they can take with them or can be also displayed letter by letter on the monitor while chiseling.



〈조각 의식〉, 2020, 조각 끌, 모니터, 1.40 × 50 × 50cm, 10kg

‘Sculpture Rituals’, 2020, Sculpture chiseling, Monitor,
 1.40 × 50 × 50cm, 10kg

블링-불링 BLING-BULLYING

일상 속에 행해지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와 ‘짤’이라는 미디어의 화법을 통해 무수히 복제되며 확장되는 이미지의 폭력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소통 방식 속에서 변화하는 폭력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며 가볍게 생각하고 행하는 이미지와 댓글이 어떤 이에게 얼마나 큰 폭력으로 작용되는지를 보여 주며, 이러한 방식의 소통에 감추어진 폭력적 목적성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

This work talks about the violence carried out in everyday life and the violence of the countless replicated and expanding images by the language of media called “meme.” This also exposes the true nature of violence that changes in these new communication methods. It clearly demonstrates what a violent blow an image or on-line comment can be to someone if people take those lightly and use them in the new media thoughtlessly. It also seeks to expose the violent purpose hidden behind this type of communication.



박용식 (1971~)
Yong-Sik PARK

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블링-불링〉, 2020, 레진 위 아크릴, 우레탄, 나무,
400 × 200 × 200cm

'Bling-Bully', 2020, Urethane, Acrylic on F.R.P, Wood,
400 × 200 × 20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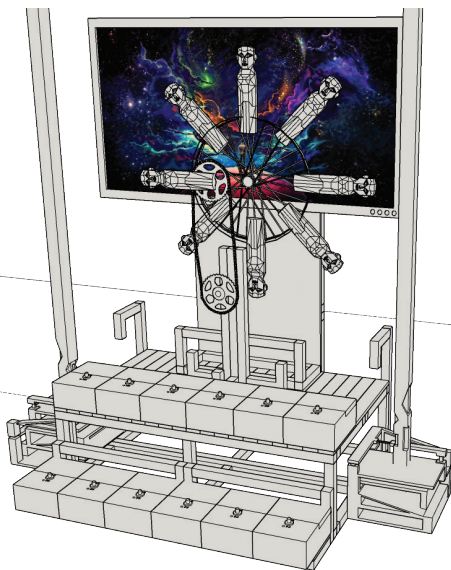
김동현 (1974~)
Dong-Hyun KIM

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지금 순간이 중요하다 THIS MOMENT MATTERS

이번 출품작은 기본 무대에 여러 개의 쓸모없는 박스들을 설치한 것이다. 기본 무대(환경 세팅)는 같은 메커니즘이 원형을 따라 반복되며 같은 병정 인형을 중심으로 배경 화면이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이러한 환경 안에 여러 개의 쓸모없는 박스들이 설치되며 관람객이 박스들의 버튼을 누르면 박스의 뚜껑이 열리면서 박스 안에서 손이 나와 스위치를 바로 꺼버린다. 이러한 시스템은 개인의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를 상징화한 것이며 참여자이자 경험자, 관찰자인 상태를 경험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This work is an installation of numbers of old and useless boxes on a basic stage. On this stage (a setup), a mechanism repeats in a circular motion and the background video changes around toy soldiers as time passes. Within this setup, many useless boxes are installed and, when a visitor presses a button on the boxes, the box opens from which a hand comes out to turn off the switch. This system symbolizes the relation between a person's subconsciousness and consciousness and makes the person be aware of three different states - being a participant, experienter, and observer - by going through such experience.



〈지금 순간이 중요하다〉, 2020, 나무, 철, 알루미늄, 아두이노, 모터, 센서, 3000 × 2000 × 3000mm, 100kg

'This Moment Matters', 2020, Wood, Steel, Aluminum, Arduino, Motor, Sensor, 3000 × 2000 × 3000mm, 10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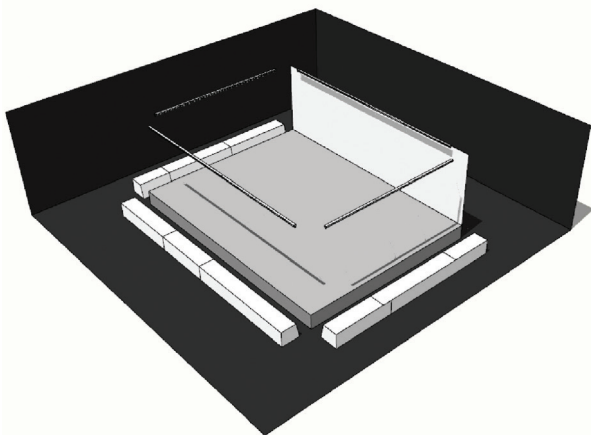
임창주 (1963~)
Chang-Ju YIM

한국 Korea

한국 전남 출생
현, 한국 충남 거주 및 활동
Born in Jeonnam, Korea
Lives and works in
Chungnam, Korea

아트 시어터 콜라보 ART THEATER COLLAB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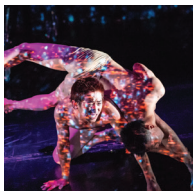
블랙 시어터 BLACK THEATER



〈블랙 시어터〉, 2020, 무대, 가변 크기

'Black Theater', 2020, Stage, Variable size

PGU 공연 단체 연합
Performance Group Union



① 극단 상상창고
Imaginary Warehouse
Teater Group (I.W.T.G.)

김종갑 Jong-Kap KIM
강주성 Ju-Sung KANG
장세현 Se-Hyun JANG

후에 ①

AFTER | Running Time : 15~20min

‘후에’는 새 인간 류의 성장 스토리이다. 어린 시절 류는 가족동반 자살을 기도한 아버지에 의해 살해당할 뻔한 경험을 하게 된다. 교량 난간에 걸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된 류는 허공을 나는 새를 보며 그 자유로움을 부러워한다. 그 충격으로 인해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 새 인간으로 살아가게 된다.

‘After’ is a growth story of a Liu who is man. Shocked by his father who attempted to kill his family, Liu is psychologically suppressed, stuck in birds and lives as a bird’s man.

Going through_혼자같은 혼자²

GOING THROUGH_ALONE NOT ALONE | Running Time : 20min

#1 한끝에서 다른 끝으로

거치다. 경험하다. 겪다. 통과하다. 과정. 끝이 다시 처음일수도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수도. 너 그리고 내 라이프.

#2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

그러한 나 부정하는 나 결국 혼자인 나. 그것은 모두 나의 몫.

#1 from one end to the other

Go through. Experience. Undergo. Pass through. Process. The end could be the first, or the new beginning. You and my life.

#2 I'm alone, but I don't think I'm alone.

such me. denying me. I'm all alone after all. It's all up to me.

연극 쉬즈블루³

SHE'S BLUE | Running Time : 20min

연극 '쉬즈블루'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꿈꾸는 선주와 그의 주변 젊은이들의 '일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젊은이들이 편리하게 즐겨 찾는 편의점을 배경으로 각각의 다른 인생 방향과 가치관의 청춘들이 힘겹고 불안정한 자신의 현재 모습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이 시대 젊은이들의 자화상을 다룬 성장 연극이다.

She's Blue is a theatrical play about the love and work-life of Seon-Ju, a young part-timer who dreams of landing a full-time job, and her friends. Set in a convenience store frequented by the youth, the play vividly portrays how the characters with different lifestyles and values overcome their current uncertain and insecure situation and move forward to a better future. The story focuses on the growth of young people today.

플라멩코-태양의 춤⁴

FLAMENCO-DANZA DEL SOL | Running Time : 20min

뜨거운 태양을 담은 스페인의 춤 플라멩코.

정통 플라멩코는 물론 관객이 좀 더 쉽게 즐기기 위해 퓨전플라멩코음악, 익숙한 탱고음악과의 접목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플라멩코 무용수들의 역동적인 발구름과 관능적인 춤은 관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우리의 몸짓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린다면 주저 말고 외쳐주시길! 올레!

The flamenco of passion is like the burning sun.

After seeing the intense moment and feelings, everyone will not forget. We hope to many people enjoy it. We prepared authentic flamenco music, fusion flamenco music, and familiar tango music. The flamenco dancer's dynamic ball rolling and sensual dance delight the audience. If our dance beats your heart, say it! Ole!



2 아니모 컴퍼니 ANIMO COMPANY

박상용 Sang-Yong PARK
이유란 Yu-Ran LEE
허지원 Ji-Won HEO



3 극단 나비 Nabi Theater Group

김동원 Dong-Won KIM
이혜지 Hye-Ji LEE
설부용 Bu-Yong SEOL



4 알싸 깨 또마 플라멩코 Arsa Qué Toma Flamenco

이영자 Yeong-Ja LEE
배국인 Uk-In BAE
권인경 In-Gyeong KWON
황주리 Ju-Ri HWANG
주춘식 Chun-Sik CHOO
장혜정 Hye-Jeong JANG
이정숙 Jeong-Sook LEE
이미숙 Mi-Suk LEE
김지윤 Ji-Yun KIM

공연 세부 일정 PERFORMANCE SCHEDULE

| 회 Session | 시간 Time | 일요일 Sunday | 수요일 Wednesday | 목요일 Thursday | 토요일 Saturday |
|--------------|----------------------------------|------------------------------|-------------------------------------------------------|--------------------------------|-----------------------------------------------|
| Day | | | | 9. 17 | |
| 1 | 18:20~18:40 | | | 아니모 컴퍼니 0 ANIMO COMPANY 0 | |
| 2 | 18:50~19:10 | | | 극단나비 0 Nabi Theater Group 0 | |
| Day | | | | | 9. 19 |
| 1 | 14:00~14:20 | | | | 알싸께도마 플라멩코 1 Arsa Qué Toma Flamenco 1 |
| 2 | 14:30~14:50 | | | | 극단나비 1 Nabi Theater Group 1 |
| Day | | 9. 20 | 9. 23 | | 9. 26 |
| 1 | 14:00~14:20 | 극단상상창고 1 I.W.T.G. 1 | 임현진 Hyun-Jin LIM | | 알싸께도마 플라멩코 2 Arsa Qué Toma Flamenco 2 |
| 2 | 14:30~14:50 | 아니모 컴퍼니 1 ANIMO COMPANY 1 | 송정배(클라운송) Song-Jeong BAE (Clown Song) | | 극단나비 2 Nabi Theater Group 2 |
| Day | | 9. 27 | 9. 30 | | 10. 3 |
| 1 | 18:20~18:40 | 극단상상창고 2 I.W.T.G. 2 | 김성욱(유타이) Sung-Wook KIM (You tai) | | 알싸께도마 플라멩코 3 Arsa Qué Toma Flamenco 3 |
| 2 | 18:50~19:10 | 아니모 컴퍼니 2 ANIMO COMPANY 2 | 김성욱(유타이) Sung-Wook KIM (You tai) | | 극단나비 3 Nabi Theater Group 3 |
| Day | | 10. 4 | 10. 7 | | 10. 10 |
| 1 | 14:00~14:20 | 극단상상창고 3 I.W.T.G. 3 | 강지현(노래가아름아름) Kang-Ji HYUN (sing a bille) | | 알싸께도마 플라멩코 4 Arsa Qué Toma Flamenco 4 |
| 2 | 14:30~14:50 | 아니모 컴퍼니 3 ANIMO COMPANY 3 | 박수영(공원) Park Soo Young (Gong-won) | | 극단나비 4 Nabi Theater Group 4 |
| Day | | 10. 11 | 10. 14 | | 10. 17 |
| 1 | 14:00~14:20 | 극단상상창고 4 I.W.T.G. 4 | 김성욱(유타이) Sung-Wook KIM (You tai) | | 알싸께도마 플라멩코 5 Arsa Qué Toma Flamenco 5 |
| 2 | 14:30~14:50 | 아니모 컴퍼니 4 ANIMO COMPANY 3 | 백혜진(하늘소리) Baik Hye Jin(Karnesulori chorus) | | 극단나비 5 Nabi Theater Group 5 |
| Day | | 10. 18 | 10. 21 | | 10. 24 |
| 1 | 14:00~14:20 | 극단상상창고 5 I.W.T.G. 5 | 성민성(케이-브리즈) Min-Seong SEONG (K-breezes) | | 이수연(함깨탱고) Soo-Yeon LEE(The Hamkie Tango) |
| 2 | 14:30~14:50 | 아니모 컴퍼니 5 ANIMO COMPANY 5 | 유정현(쿤스터댄스컴퍼니) Yoo-Jung HAN (Kunster Dance Company) | | 김재형 Jae-Hyeong KIM |
| Day | | | 10. 28 | | 10. 31 |
| 1 | 홈페이지 참조 Refer to the homepage | | 청춘마이크 (청산아트홀) YOUNG MIC (Seongsan Art Hall) | | 청춘마이크 (용지공원) YOUNG MIC (Yongji Park)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비조각으로 To Non-Sculpture

Step 5

-
1. 조하나 Ha-Na JO (1980~), 한국 Korea
 2. 마크 안드레 로빈슨 Marc Andre ROBINSON (1972~), 미국 US
 3. 권용주 Yong-Ju KWON (1977~), 한국 Korea
 4. 이병찬 Byung-Chan LEE (1987~), 한국 Korea
 5. 노인우 In-Woo RHO (1986~), 한국 Korea



조하나 (1980~)
Ha-Na JO

한국 Korea
한국 세종 출생
현, 한국 세종 거주 및 활동
Born in Sejong, Korea
Lives and works in
Sejong, Korea

기억의 뿌리 THE ROOT OF MEMORIES

오랜 시간 공들여 접고 손바느질로 기워 가며 연결한 접힌 형태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미궁 속과 같다. 뇌 속에 내재된 삶의 단편적 조각들과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시공의 기억들이 뿌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비조각 주름’이라는 시각적 형태로 표현하고자 했다. 잃어버린 참 모습을 찾아가기 위한 행위들은 접힘과 펼침의 질서로 나타났다. 옷칠과 자연물로 물들여 어우러진 색감은 빛 바랜 세월의 흔적들이 표현된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와 사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오래된 것들로 변해가는데, 이것들은 추하고 하찮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분명 뿌리부터 자라온 삶의 깊이와 완전함, 그리고 아름다움이 머물고 있다는 걸 느낀다.

Painstakingly creased and handsewn pleat shapes resemble an endless labyrinth. What JO seeks to visually express in the form of non-sculptural creases is that fragmented pieces of life registered in the brain and the spatiotemporal memories passed down from our ancestors are linked at the root. The act of recovering one's lost true nature is demonstrated in the order of folding and unfolding. The naturally-dyed and lacquered hues are a remnant of now faded years. All living organisms, including humans, and inanimate objects turn old over time; but they are neither ugly nor trivial. At the core, they possess the depth and completeness of life grown from the root and beauty.



〈기억의 뿌리〉, 2020, 옷칠한지, 자연염색한 모시, 삼베,
180 × 120 × 60cm

'The root of memories', 2020, Paper of Korea, Ramie, Hemp, 180 ×
120 × 60cm

반환권 RIGHT OF RETURN

의자 또는 사람의 형상 등을 한데 모아 배열하여 밀집된 구성을 이루는 작업은 작가가 공동체라는 아이디어를 다양한 형태로 개념화하고 시각화하는 방법이다. 이 작품은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창조의 방식으로서의 실용적 디자인이라는 언어의 범주에 해당하는 연작에 속한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목도하는 실질적인 니즈에 대해 상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러한 필요성은 리더십, 가동, 조화, 보호를 위한 메타 수단을 촉구하고 있다.

Whether the constituent is a chair or a human figure, amassing and arranging them into populous compositions is for me a way of both conceptualizing and visualizing the idea of community in its many forms. This is part of a series of works that responds within the lexicon of utilitarian design as a mode of creation to fulfil needs. This work symbolically responds to real needs that I see in my community calling for a meta vehicle for leadership, mobilization, harmony and protection.



미국 안드레 로빈슨 (1972~)

Marc Andre ROBINSON

미국 US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출생

현, 미국 뉴욕 브루클린

거주 및 활동

Born in

Los Angeles, CA, US

Lives and works in

New York, Brooklyn, US



〈반환권〉, 2010, 재활용 목재 의자, 지름 4.6m × 75cm

'Right of Return', 2010, Reclaimed Wood Furniture,
Diameter 4.6m × 75cm



권용주 (1977~)
Yong-Ju KWON

한국 Korea
한국 대구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Daegu,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캐스팅 2018 CASTING 2018

이번 작품의 주제인 캐스팅 2018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시 풍경 속 오브제들을 본래 그것들의 자연스러운 질서에 따라 쌓고 엮어서 형태를 만들거나 혹은 그 위에 다시 천막을 덮고 질끈 묶은 모습 그대로 석고로 떠낸 조각/설치 작업이다. 이러한 형태는 작가의 지난 작업 ‘부표_2010’, ‘폭포 시리즈 2011~2016’ 등으로 거슬러 올라 그 고리를 찾을 수 있다.

The Theme of this work, Casting 2018, is a sculpture/ins-tallation work consisting of everyday objects in the urban landscape that are stacked or interlaced in their natural order or cast in plaster with covers roped around them. These features are reminiscent of KWON's previous works, including Buoy Light_2010 and Waterfall Series 2011~2016.



〈포장천막1〉, 〈포장천막2〉, 2018, 석고, 목재, 오브제, 실리콘 외, 155 × 118 × 275cm, 115 × 115 × 217cm

'Tent1', 'Tent2', 2018, Plaster casting, Wood, Objects, Silicon and others, 155 × 118 × 275cm, 115 × 115 × 217cm

크리처 CREATURE

소비 사회의 동질성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이미지들은 이미 하나의 새로운 생태계의 토대다. 모두가 동일한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모두가 동일한 이미지로 스스로까지 소비 대상이 돼야지만 보통의 도시 생태계에 귀속 될 수 있다. 소비 사회를 통한 무분별한 채움의 학습은 신체까지 상품화하여 도시의 생태계를 기형적으로 진화시켜 가고 있다. 평등한 소비 사회의 선전은 판타지를 기반으로 제공된 생태계이기에 우리는 판타지를 기반한 기형적 형태로 변해가며 반복적인 채움을 통해 유지된다. 사회는 판타지 세계에 살고 있는 대중에게 판타지가 현실이라는 착각의 도구로 소비 시스템을 형성해 왔다.

Various images that represent the homogeneity of consumption society have already built the foundation for a new ecosystem. One needs to consume the same plastics and voluntarily become the subject of consumption with the same image as everyone else to be part of an ordinary urban ecosystem. Learning of indiscriminate filling through consumption society has triggered the tendency to regard human bodies as products, driving the deformed evolution of the urban ecosystem. The propaganda of creating an equal consumption society is based on a fantasy, and we are sustained by deforming ourselves and practicing repeated filling on the basis of such fantasy. The society has a consumption system in place as a tool to feed an illusion to the public living in a fantasy world that the fantasy is real.



이병찬 (1987~)
Byung-Chan LEE

한국 Korea
한국 경기도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Gyeonggido,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크리처 2020〉, 2020, 에어모터, 비닐, 포장용 홀로그램 플라스틱, 온색 포장지, led, led rgb, 300 × 300 × 300cm

'CREATURE 2020', 2020, Air Motor, Hologram Plastic, Silver wrapping paper, LED, LED rgb, 300 × 300 × 300cm



노인우 (1986~)

In-Woo RHO

한국 Korea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공간 13-03 SPACE 13-03

사람은 누구나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다르다. 같은 공간을 보면서도 그 공간 속 “사람”이 관점이 되는 사람, “사물”이 관점이 되는 사람 등등. 그 령기에 같은 공간을 바라보지만 자신만의 시점에 의해 서로 다른 느낌을 가지 게 되고, 공간이 재해석 되어 기억된다. 그 차이를 빛(대중의 시선)과 그림자 (대중의 시선에 의해 새롭게 재해석 된 공간)로 표현하고자 한다.

People have different perspectives and viewpoints toward a subject. For example, when looking at a given space, they can take on a perspective of a person or an object inside that space. As different perspectives lead to different feelings, the same space is interpreted differently before being registered in memories. RHO seeks to capture the gap with light (perspective of the visitor) and shadow (reinterpretation of the space based on the perspective of the visitor).



〈공간 13-03〉, 2020, 아크릴, 190 × 10 × 350cm

"Space 13-03", 2020, Acrylic plastic, 190 × 10 × 350cm

비조각으로 To Non-Sculpture

Step 6

-
1. 임정은 JeoungEun LIM (1964~), 한국 Korea
 2. 노승복 Seung-Bok ROH (1969~) & 신판섭 Pan-Seop SHIN (1968~), 한국 Korea
 3. 이탈 Tal LEE (1967~), 한국 Korea
 4. 김윤철 Yun-Chul KIM (1970~), 한국 Korea
 5. 하이포매닉스 Hypomanics (2020~), 한국 Korea



임정은 (1964~)
JeongEun LIM

한국 Korea
한국 도계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Dogye,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깊이의 단서082020 CLUE OF PROFOND(EUR)082020

조각 판유리와 거울 양면에 색을 칠하고 빛을 비추면 실내의 벽과 바닥에는 무수한 입방체 형태의 무지개가 흩뿌리는 듯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그림자는 검정이다’라는 고정 관념을 깨고 형형색색의 그림자를 통해 상상 속의 다채로운 공간을 창조해내고자 한다. 관람자가 돌아보는 시점, 각도에 따라 그 형상들은 각각 다른 모습들의 큐브(cube)로 보인다.

When light hits sheet glass pieces and mirrors colored on both sides, a rainbow of infinite cubes stretches across the room in a panoramic view. It is an attempt to create an imaginative colorful space filled with different colored shadows, breaking away from the fixed idea that “the shadow is black.” The cubes appear in different shapes, depending on the point and angle where the viewer looks back.



사각형의 흔적-깊이의 단서_빛20206), 2005~2020, 세리그라피,
퓨즈 장작 유리판, 샌딩 작업을 한 거울, UV 프린트를 한 유리,
각 20 × 20 × 0.5cm

*'Trace of cube-Clue of profondeur shadow2020June', 2005~2020,
Serigraphy, Fused on Plate Glass, Sandblast on Mirror, UV Print on
Glass, 20 × 20 × 0.5cm(each)*

백비 (콜라보-노승복 & 신판섭)

UNNAMED MONUMENT (COLLABORATION-SEUNG BOK ROH & PAN SEOP SHIN)

작품 〈백비〉는 제주 4·3 평화기념관에 있는 백비 기념비를 hologram으로 제작한 것이다. 즉 백비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이며 역사의 연고를 잃은 비석이다, 인간의 삶에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죽음이며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억이다. 홀로그램은 홀로(전체)+그램(메시지)를 의미한다. 작품 〈백비〉는 인간의 삶에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죽음’과 ‘기억’을 전달할 것이다.

‘Unnamed Monument’ is a holographic representation of sculpture with the same title in the Jeju 4·3 Peace Memorial Hall. The monument is an unidentified corpse and a memorial stone that has lost its place in history. It is death that arouses a sense of community in a human life, and what enables this thought is memory. The word hologram is a combination of holo- meaning “whole” and -gram meaning “message.” The work is expected to convey the message of death and memory, the elements that allow humans to feel a sense of belonging.



노승복 (1969-)
Seung-Bok ROH

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성남 거주 및 활동
Lives and works in
Seongnam, Korea



신판섭 (1968-)
Pan-Seop SHIN

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백비〉, 2020, 홀로그램 스크린, 빔 프로젝터, 스테레오 스피커,
400 × 600 × 370cm

‘Unnamed Monument’, 2020, Hologram screen, Beam projector,
Stereo Speaker, 400 × 600 × 370cm



이탈 (1967~)

Tal LEE

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인천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Incheon, Korea

기억의 예배소 - 광장 MEMORIAL CHAPEL- SQUARE

코로나 위기로 공공장소에 대한 우리의 참여가 약화 될 때, 공공장소는 증발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은 사라진다. 거리 두기와 비대면이 불러온 위기의 공공 공간, 그렇게 우리는 그 공간에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공공장소에서 대중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을 때, 촛불을 들고 문지방을 넘어 공적 공간으로 향하는 그 자체가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되었다. 이제 촛불은 문지방 너머 우울하고 불안한 사적 공간을 밤새워 비출 뿐이다.

When our participation in public spaces diminishes in the face of the pandemic, public spaces evaporate and discussion venues disappear. As social distancing and a move to non-personal contact have put public spaces at risk, we are no longer capable of occupying these places. The act of carrying a candle and crossing the threshold into public space when the public's voices need to be heard has in itself become a cause that drives a crisis. Now, the candle merely sheds light on anxious private space on the other side of the threshold throughout the n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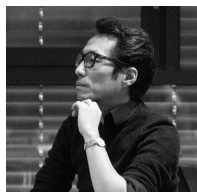
〈K군 찾기〉, 2019, 키네틱 디바이스, 모니터,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쌍방향 비디오, 가변 크기

'Where is K-KUN', 2019, Kinetic device, Monitor, Aduino, Raspberry Pi, Interactive video, Variable size

크로마 CHROMA

김윤철 작가의 최근작인 〈크로마〉는 세 개의 원이 뱀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약 300개의 셀이 표면을 뒤덮고 있다. 작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관절은 조금씩 다른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작품의 키네틱 장치에 따라 셀 구조가 각각 다른 압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독특한 패턴의 이미지, 즉 크로마가 구현된다. 안과 밖이 없이 무한히 이어지는 구조는 자신의 꼬리를 무는 뱀인 '우로보로스(Ouroboros)'의 신화와 연관된다. 상징과 기호, 지식과 상상, 물질과 정신의 끊임없는 교차가 예술가의 눈과 신체를 통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작업이다. 〈대전시립미술관 제공〉

Yun-Chul KIM's recent work 'Chroma' takes the shape of a Möbius strip composed of three circles connected with each other, with about 300 cells covering the surface of the structure. Each joint of this work is slightly different in length, which enables the chroma - a unique patterned image - when the kinetic device starts working, thanks to the different pressures maintained by different cell structures. This work is inspired by the Ouroboros, a mythical serpent that swallows its own tail creating an infinitely connected circle. This is a monumental work that illustrates how the incessant exchange of symbols and signs, knowledge and imagination, and material and psyche are materialized through an artist's eyes and body. (Provided by Daejeon Museum of Art)



김윤철 (1970~)
Yun-Chul KIM

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인천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Incheon, Korea



©대전시립미술관

〈크로마〉, 2019, 아크릴, 알루미늄, 고분자 폴리머, LED,
200×150×150cm, 140kg

'Chroma', 2019, LED Acrylic, aluminum, polymer, LED,
200 × 150 × 150cm, 140kg



하이포매닉스 (2020~) Hypomanics

한국 Korea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마크 퀸의 셀프가 여기 있을 뻔했다

MARC QUINN'S 'SELF' CAME CLOSE TO BEING HERE

벽면 위에 보라색 네온으로 '마크 퀸의 셀프가 여기 있을 뻔했다'라는 텍스트가 쓰여 있고 박스 안의 조명이 깜빡이듯 점멸하면서 위태로운 상황을 연출한다. 셀프(self)는 yBa 작가 마크 퀸(Marc Quinn)이 자신의 피로 만든 유명한 자소상이다. 이번 비엔날레 출품을 위해 총감독과 큐레이터들이 노력했으나 최종적으로 출품이 결렬되었다고 한다. 큐레토리얼 실천이 쉽지 않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여기 총감독과 두 큐레이터, 두 코디네이터가 합심해서 작품 한 점을 출품하였다. 그룹명을 하이포매닉스로 지었는데, 이 단어는 명사로 사용될 때, '가벼운 조증, 즉 경조(輕躁)증에 걸린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종종 '심하게 기분 좋은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에너지와 아이디어가 넘치는 한편, 수다스럽거나 산만하고, 목표를 향한 열정으로 과도하게 광폭 행보를 하면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지만 실패의 경험은 새로운 활력을 낳는다. 큐레토리얼 팀이 그 마음을 이 작품에 담았다.

On the wall, the text made of neon, "Marc Quinn's 'Self' came close to being here" is written, and the light inside the box flashes, creating a precarious situation. Self is a famous self-portrait created by yBa artist Marc Quinn in his own blood. The artistic director, the two curators and the two coordinators came together to present a piece of work reflecting the challenges of curatorial practice. The group was named Hypermanics, which is often used as a noun to refer to "severely agreeable people," meaning "those with mild mania, or consternation." While overflowing with energy and ideas, there are many cases where people overdo it by being talkative or distracting, and with a passion for goals, but the experience of failure gives birth to new vitality. The curatorial team is supposed to present this meaning through the work.

마크 퀸의 셀프가
여기
있을 뻔했다.

〈마크 퀸의 셀프가 여기 있을 뻔했다〉, 2020, 네온, 38 × 100cm

'Marc Quinn's 'Self' came close to being here', 2020,
Neon, 38 × 100cm

비조각으로 To Non-Sculpture

Step 7

-
1. 최연우 Yun-Woo CHOI(1978~), 한국 Korea
 2. 손몽주 Mong-Joo SON(1978~), 한국 Korea
 3. 나나 호슈넨 홀랜드 바스트럽 Nana Rosenørn Holland BASTRUP(1987~), 덴마크 Denmark
 4. 헨릭 스트롬버그 Henrik STRÖMBERG(1970~), 스웨덴 Sweden



최연우 (1978~)

Yun-Woo CHOI

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태초로부터 - 20201017 FROM THE BEGINNING - 20201017

감정이나 초현실적인 현상들, 꿈, 신, 도, 등과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은 진짜인가? 그렇다면 그것들은 그들만의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로 나의 작업은 시작한다. 최신의 이론 물리학은 이론적으로 증명된 11개의 시공간 차원이 있다고 한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셀 수 없는 차원들이 공간 안에서 오버랩 되고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로부터 나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것들이 숨어 있고 겹쳐져 있는 그 차원들에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 작업에는 수 많은 구멍들이 있다. 그 구멍들은 우리의 상징적 지식에 의한 우리의 생각 프로세스 너머에 있는 수많은 정보의 페이지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원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Are invisible things, such as feelings, surreal phenomena, dreams, god, or tao(道) real? If so, do they occupy their own physical space? CHOI's work stems from these questions. According to the latest in theoretical physics, there are 11 theoretically-proven spatiotemporal dimensions. If this is true, an endless number of dimensions could be overlapped and hidden in a given space. This left the artist thinking that invisible and untouchable elements could physically exist in those hidden and overlapped dimensions. CHOI's work has countless holes in it. They tell a story of dimensions that exist between numerous pages of information lying beyond the thinking process based on our symbolic knowledge.



〈태초로부터 - 20201017〉, 잡지, 스테인리스 와이어, 스프레이 페인트, 'From The Beginning - 20201017', Magazine, Stainless wire, Spray paint, Light, 300 × 600 × 300 cm, 30kg

떠다니는 나무 FLOATING TREE

최근 ‘그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스윙, 균형 잡기, 순응, 대립, 반복, 운동 관계 등에 관심을 둔다. 더듬어 보면 나의 ‘라인 시리즈’에서 후작을 한참 모색하던 2014년 즈음 표류물과 공간을 고민하면서 그러한 것들에 관심이 시작되었다. 탄성밴드가 장악하는 장력 공간에 표류된 오브제를 추가하며 탄력적인 공간과 오브제를 표현해 보았다. 물가를 뜨는 공중을 떠 다니는 크고 작은 부유물들은 자연과의 힘 겨루기 뒤에 어디서부터 인지 모르게 떠내려 온 것이다. 토양에 직립해 있어야 할 생명이 맥없이 물결에 마모되어 밀려온 게 아닌가. 떠밀림의 연속 속에 떠 다니는 관계를 공간에 그려내어 본다.

SON has developed an interest in swings, balancing, adaptation, confrontation, repetition, and dynamics with her recent ‘Swing Project’. In retrospect, she believes her interest first began around 2014, when she was planning a follow-up to the ‘Line Series’ by exploring floatage and space. Floating objects are added to a tensile space dominated by elastic bands to bring the element of elasticity to the space and objects. Matters of different sizes floating in the water or air have drifted from an unknown place after playing a tug-of-war with nature. A life that should have stood upright in soil has been powerlessly washed up on the shore. The floating relationship driven by a continued push is portrayed in the space.



손동주 (1978~)

Mong-Joo SON

한국 Korea

한국 부산 출생

현, 한국 부산 거주 및 활동

Born in Busan, Korea

Lives and works in Busan, Korea



〈표류물〉, 2014, 합성고무밴드, 와이어, 타커,
2000 × 1100 × 800cm

‘Floating road’, 2014, Rubber band, Wire, Tacker,
2000 × 1100 × 800cm



나나 호슈넨 홀랜드 바스트럽
Nana Rosenørn
Holland BASTRUP

덴마크 Denmark
 덴마크 코펜하겐 출생
 현, 덴마크 코펜하겐
 거주 및 활동
 Born in Copenhagen,
 Denmark
 Lives and works in
 Copenhagen, Denmark

종이상자5 PAPP NO. 5

나나 호슈넨 홀랜드 바스트럽은 1987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태어났다. 2015년 함부르크 미술대학을 졸업하였으며, 현재 고향인 코펜하겐에 거주하며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폐포장지를 활용하여 소형 골판지 마스크부터 대규모 설치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며, 주로 광고, 소비, 재활용 등을 주제로 작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작가는 수집한 골판지를 쌓아 올리거나 폐포장지 조각을 모아 작품을 만드는데, 이를 통해 과소비, 개인 선택, 그리고 이미지와 문자의 홍수 속에서 놓치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설치미술은 시공간에 대한 동시대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골판지 상자는 연도별, 국가별로 각기 다르다. 2018년부터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다양한 설치미술을 담은 기록용 사진을 활용하고 있다.

Nana Rosenørn Holland Bastrup was born in 1987 in Copenhagen, Denmark. She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Fine Arts in Hamburg in 2015. Currently, she lives and works as an artist in Copenhagen, Denmark. Since 2009, she has mainly worked with used product packaging – covering smaller cardboard masks as well as large expansive installations. The themes include advertising, consumption and recycling. She creates her work by either stacking collected cardboard boxes or assembling fragmented packaging waste. The works are comments to excessive consumption, individual choice and loss of overview in the flood of images and texts. Furthermore the installations are like contemporary documents of our time and place. The cardboard boxes are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and from year to year. The work method is accumulation and “tetris” of different sizes of cardboard boxes. Since 2018 Nana uses the documentation photos of the different installations in her paintings.



〈종이상자 4〉, 2011, 종이상자, 335 × 700 × 100cm

'Papp no. 4', 2011, Cardboard boxes, 335 × 700 × 100cm

버티칼 스토리 텔링 VERTICAL STORY TELLING

헨릭 스트롬버그의 작품은 새로운 기표(signifier)에 대한 탐색에서 시작한다. 작가는 소스의 연결, 오브제의 재조립 및 재평가(trouv )를 통해 내용을 변경하며 형태에 영향을 준다. 그의 사진 작품과 콜라주는 궁극적으로 진화와 행동의 결과를 보여주며, 다른 기표들은 보는 이에게 새로운 대화를 제시한다. 결과의 강도는 각 작품에 여실히 드러나는데, 이들은 새로운 형태를 취하며 시적 이면서도 날카로운 풍자를 던진다.

Henrik Str mberg's work starts with the quest for a new signifier: interlacing sources, re-assembling and re-evaluating objects (trouv ) he acts on the form while changing the content. Ultimately, his photographic works, as well as with his collages, are picturing, at the same time, the evolution and the outcome of an action, while other signifiers are now challenging the viewer to a new dialogue. The strength of the result appears in each piece, where receding to the new forms, the works are delivering a poetic yet sharp innuendo.



헨릭 스트롬버그 (1970~)
Henrik STR MBERG

스웨덴 Sweden

스웨덴 멜비 출생

현 독일 베를린 거주 및 활동

Born in Mellby, Sweden

Lives and works in Berlin, Germany



〈버티칼 스토리텔링〉, 2020, 특정 공간 설치를 위한 스케치, 금속 구조물, 종이, 피그먼트, 수정 크리스탈 13개, 가변 크기

'Vertical Story Telling', 2020, Sketches for a site specific installation, Metal structures, Paper, Pigment, 13 pieces of Quartz Crystals, Variable size

특별전 1 Special Exhibition 1

이승택
한국의 비조각
Seung-Taek LEE
Non-Sculpture
of Korea

*실내 전시 Indoor Exhibition

특별전 공간 소개 ABOUT THE SPECIAL EXHIBITION HALL

창원문화재단은 2020 창원조각비엔날레 본전시 2 ‘비조각으로’가 열리는 성산아트홀의 지하 1층 유희 공간인 성산아트홀 뷔페를 리모델링하여 두 개의 특별전과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정 장소로 바꾸었다. 주방과 홀, 결혼식장 등 크게 세 가지 성격으로 구분되는 뷔페 공간은 청소와 안전 점검, 필요에 따른 최소의 벽면 파티션과 조명 설치를 통해 시 재생의 문화 공간인 2020 창원조각비엔날레의 특별관으로 탈바꿈 하였다.

The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has renovated what used to be a buffet restaurant on the basement level of the Seongsan Art Hall, the venue for the Biennale's Main Exhibition 2 "To Non-Sculpture," into a space dedicated to two special exhibitions and community programs. The buffet restaurant was originally divided into three areas - a kitchen, a dining hall and a wedding hall. After a thorough clean-up, safety checks, and partition wall and lighting work, it transformed into an urban regeneration space that welcomes visitors to the special exhibitions.





이승택 (1932~)
Seung-Taek LEE

한국 Korea

함경남도 고원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Gwon,
Hamgyeongnamdo,
North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이승택, 한국의 비조각 SEUNG-TAEK LEE, NON-SCULPTURE OF KOREA

특별전1은 성산아트홀 특별관인 지하1층에서 펼쳐지는 실내 주제전으로 1980년 자신의 작업을 ‘비조각’이라고 천명하면서 ‘비조각적 실험 조각’을 탐구했던 선구적인 한국 조각가 이승택 선생님의 회고전 성격의 대규모 개인전이다. 작가는 1932년생으로 ‘비조각적 시도와 문화인류학적 기억’(1955~1971), ‘출 연작과 존재에 대한 개념적 질문’(1971~1983), ‘비조각, 무속, 환경, 분단 현실’(1984~1990), ‘포토 픽처, 몽타주, 드로잉’(1990~)에 천착해 왔던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작가의 작업은 새끼줄, 밧줄, 어망, 헝겊, 천 조각, 머리털, 깃털, 돌맹이, 부표 등 각종 비조각적인 오브제를 조각의 재료로 삼아 만들어 낸 ‘비조각적인 조각 실험’을 선보이는 조각적 설치 혹은 설치적 조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이러한 작품 외에도 바람, 공기, 물, 불, 흙으로부터 기인하는 동양적인 ‘비물질의 미학’을 드러내는 다양한 작품들과 아카이브도 소개할 예정이다. 전시에는 과거의 작품과 현재의 신작을 포함하여 60여 점이 출품되고, 조각, 설치, 사진 콜라주, 평면 드로잉, 인터뷰 영상 등으로 꾸며진다. 한편 관련 프로그램으로 이승택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국내 학술 컨퍼런스’도 진행된다.

Special Exhibition 1 is an indoor, themed exhibition taking place in Special Exhibition Hall located on the basement level of the Seongsan Art Hall. This is a major solo exhibition shedding a retrospective light on a pioneering Korean sculptor Seung-Taek LEE, who explored the depths of “experimental non-sculptures” ever since he declared his works to be “non-sculptural” in 1980. Born in 1932, LEE still remains prolific. He has devoted himself to “non-sculptural attempt and cultural anthropological memories” (1955~1971), “Rope series and the conceptual questions on existence” (1971~1983), “non-sculpture, shamanism, environment, reality of division” (1984~1990), and “photo picture, montage, drawing” (1990 to present). His art can be best described as “non-sculptural experiments” in the form of sculptural installation or installation sculpture, using non-sculptural objects including straw-braided ropes, strings, fish nets, old fabric, cloth pieces, human hair, feathers, pebbles, and buoys. This exhibition features a diverse collection of LEE’s latest and early works as well as archives that are based on the aesthetics of immateriality in the East surrounding the elements of wind, air, water, fire, and earth. It reviews more than 60 works across a range of media, from sculptures, installations, photo collages, drawings, to interview clips. As a sideline program, an Academic Conference will be held to explore the artistic legacy of LEE.



신의 배설물 EXCREMENT OF GOD

두 개의 캔버스 틀 위에 마(麻)로 만들어진 섬유로 된 부드러운 재료가 나란히 병치되어 있는 형태로 캔버스는 회화를 올리는 2차원 마당이자, 캔버스 틀은 회화의 지지대이다. 캔버스 틀은 그 자체로 작품이 아니라 회화라는 작품을 위한 부가적 존재로, 3차원 조각과는 거리가 있는 재료이다. 한편 그 위에 부드럽고 유연한 재료로 만든 부조가 자리하고 있는데 ‘3차원 조각이 얇은 높이로 올라서 있는 작품’을 부조라고 부른다. 회화의 지지대일 뿐인 캔버스 틀과 얇은 두께의 3차원 부조가 만난 이 작업은 분명 물리적으로 조각이라 정의할 수 있지만, 개념상으로는 ‘회화도 조각도 아닌 무엇’처럼 보인다. 비조각의 유형을 띠고 있는 이유는 회화의 바탕인 캔버스 틀로 구성된 두 작품이 부조 형식의 한 쌍으로 병치되어, ‘변형 캔버스’라 번역되는 셰이프드 캔버스(shaped canvas)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Two soft chunks of hemp are juxtaposed to each other, on top of two separate canvas frames. The canvas is the two-dimensional surface on which a painting is created, while the canvas frame supports the painting. The canvas frame is not an artwork itself, but rather a supplement that completes it. It is a material that is far from being a three-dimensional sculpture. But what if there is a relief made of soft and flexible material placed on top of it? A relief is a mode of sculpture that is slightly raised above the surface. This work is a combination of low relief and canvas frames, which merely support a painting. Physically, it can be defined as a sculpture, but in concept, it is something else that is neither a painting nor a sculpture. The reason it can be considered as non-sculpture is that the two canvas frames are juxtaposed to form what is known as a shaped canvas.



〈신의 배설물〉, 2015, 캔버스 틀 위에 마닐라 삼,
좌: 69 × 69cm 우: 80 × 59 cm



‘Excrement of God’, 2015, Manila hemp on the Canvas Frame, Left:
69 × 69cm, Right: 80 × 59cm

매어진 돌 TIED STONE

이 작품은 돌이라는 딱딱한 재료를 마치 부드러운 쿠션과 같은 재료로 변화시킨 것처럼 보인다. 작가가 자연 석에 홈을 파서 와이어와 연결해 놓은 이 작품은 우리의 지각이 전달하여 도달케 하는 관성적 인식을 흔들여 놓는다. 분명히 돌인데 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인식, 돌은 물리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만들지 않는데, 낯선 초현실적 결과를 초래했다는 인식과 이러한 생각들이 이 작품을 대면하면서 갖게 되는 ‘관성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예술가의 엉뚱한 상상은 고정된 질료성을 배반하거나 변주하는 가운데서 빛을 발한다.

It seems that LEE pulled off a magic trick to transform the stones, which are hard, into cushion-like soft materials. In fact, he carved a crack into the natural stone and wrapped a wire around it. The work debunks our preconception that happens when our brain interprets what we see, as if our conception is driven by inertia. It is a stone, but it doesn't look like one. It's physically impossible for a stone to bring this strange, surreal result, yet it does. These are the “inertial thoughts” that run through our minds when we encounter this work. The artist's bold imagination comes to life, as it challenges and puts a new spin on fixed matter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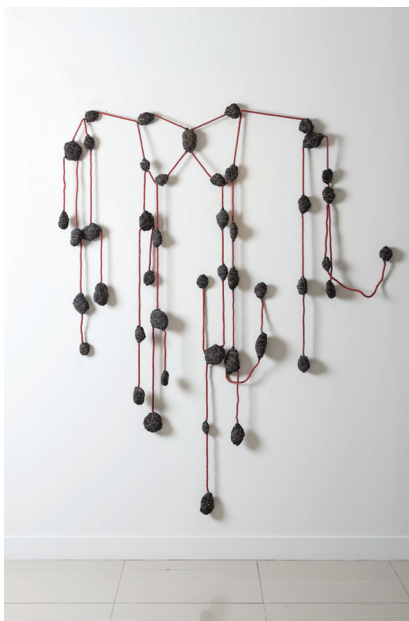


〈매어진 돌〉, 70년대~2012, 철사, 돌, 가변 크기
'Tied stone', 70s~2012, Wire, Stone, Variable size

무제 UNTITLED

이 작품은 부드러운 소재의 빨간색 끈으로 매듭을 지으면서 서로의 매듭을 이어나가는 형상을 만든 조각이며 여러 매듭을 서로 연결한 리즘(rhizome)형 모델의 비조각이다. 리즘이란 잔디처럼 하나의 뿌리가 아닌 '서로를 잇고 있는 복수의 가짜 뿌리'이다. 완벽한 리즘의 이상을 성취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 작품은 주인이 되는 할아버지와 그 아래 아버지, 아들, 손자로 이어지는 계보를 지닌 수목(樹木)형 모델과는 다른 리즘의 민주적 위상을 전개한다. 매듭들이 서로가 서로를 연결한 채 단지 '친구의 위상'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This sculpture is a network of interconnected knots made of soft-textured red strings. It's a rhizome-style non-sculpture. Rhizomes are multiple faux roots that are intertwined with each other, rather than a single root found in grass. The work represents rhizomes' democratic status, if not their ideals, marking a departure from a typical tree-like model with a hierarchy starting with the grandfather at the top and the father, the son, and the grandson underneath it. The interconnected knots simply maintain ties of friendship.



〈무제〉, 1984, 캔버스 프레임 위에 오브제, 붉은색 실,
 캔버스:205 × 130cm, 실 뭉치:140 × 100 × 12cm
 'Untitled', 1984, Object on the Canvas Frame, Red thread,
 Canvas: 205 × 130cm, Thread: 140 × 100 × 12cm

나무종이 PAPER TREE

자연의 나뭇가지들 아래 길고 가늘게 자른 한지들이 늘어지듯 매달려 있는 형태의 작품이다. 민속신앙에 따르면, 서낭당은 토지와 마을을 수호하는 서낭신을 모셔 놓은 신당(神堂)이지만, 민초들에겐 그저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만연한 기복신앙’의 한 대상일 뿐이다. 작가는 오늘도 한국의 고유한 전통적 미감을 계승하고 현대화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Narrow strips of traditional Korean paper are hanging from natural tree branches. The paper strips lightly flutter, responding to the movements of passersby and greeting them. Does this work remind you of a sacred tree decorated with strips of silk found next to Seonangdang? Seonangdang is a shrine to the guardian spirits of a village that protects the land and the village, but for ordinary villagers, it was simply one of the subjects to which they can flee from their everyday problems and pray for blessings to come. As seen from this piece, LEE is committed to carrying on and modernizing the legacy of traditional Korean aesthetics.



〈나무종이〉, 1970, 종이, 나뭇가지, 가변 크기

'Paper Tree', 1970, Paper, branches, Variable size

바람 WIND

예식장을 전시장으로 리모델링하면서도 이전에 있었던 전면 유리창을 남겨두어 관객과의 소통에 늘 골몰했던 작가에게 투명한 유리 벽을 통해 열린 소통의 개념을 잘 드러내는 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밖과 안, 도시의 풍광과 건물 내부의 풍경, 일상 공간과 예술 공간 등 대비되는 것들의 만남을 투명하게 연결하는 유리 벽은 이 공간 안에 천장으로부터 내려온 붉은 천들의 유연한 정체성과도 닮아 있다. 한편, 유리벽은 붉은 천들을 생동감 있게 하는 무엇이다. 야외 설치에서, 바람이 이 붉은 천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한다면, 실내 설치에서 생명을 주는 것은 이 유리 벽인 셈이다.

Transparent glass walls are a medium that symbolizes open communication, the theme which has always fascinated the artist. They seamlessly connect contrasting elements, such as the exterior and the interior, the urban scenery and the inside view, and the everyday space and the artistic space. The glass walls are also linked to the flexible identity of the red strips of fabric hanging from the ceiling, as they are what makes the red fabric lively. The glass walls breathe life into the red fabric in the indoor setting, just as wind would do outdoors.



〈바람〉, 1969~2002, 형질, 9000 × 9168mm

'Wind', 1969~2002, Cloths, 9000 × 9168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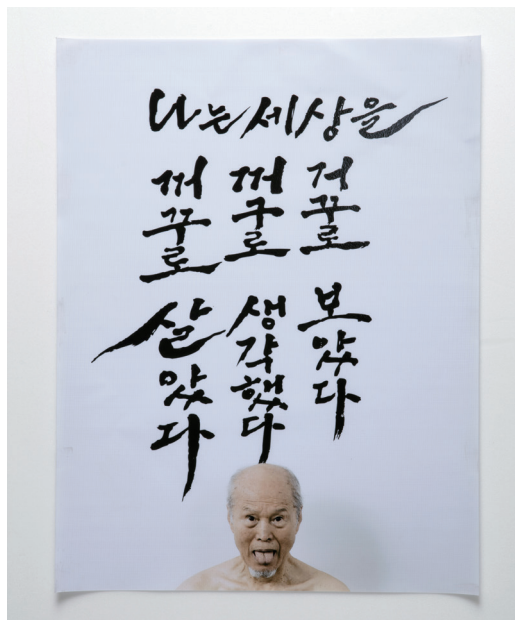
꺼꾸로, 비미술 SIDEUP DOWN, NON-ART

“나는 세상을 거꾸로 보았다. 꺼꾸로 생각했다. 꺼꾸로 살았다.”

노년의 작가 이승택은 몇 년 전 개인전에서 이렇게 쓴 글을 관객에게 선보였다. 이 글에서, “나는 세상을”이라는 주어와 목적어는 가로로 쓴 반면, 나머지 세 개의 문장은 세로로 썼는데, 세로 글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는 방식을 고려할 때, 우리는 그가 쓴 동사의 변화 순서가 ‘거꾸로-꺼꾸로-꺼꾸로’의 방식으로 맞춤법이 점점 왜곡되면서 현재에 이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 미술계의 중심으로 우뚝 선 현재까지도, 이승택 작가는 언제나 그랬듯이 ‘비주류의 아방가르드적 태도’로 ‘비조각’이라는 실험 미술에 천착하고 있는 중이다.

“I looked at the world upside down. I thought sideup down. I lived downside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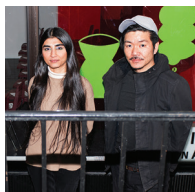
These are the words senior artist Seung-Taek LEE unveiled at his solo exhibition held a few years ago. He wrote the subject (“I”) and the object (“the world”) horizontally, while writing the remaining sentences vertically. Considering the way vertical text lines run right to left, we can see that the spelling of the adverbial phrase has been distorted from “upside down” to “sideup down” to “downside up.” LEE has now cemented his position as a central figure in the Korean art scene, but he still explores the experimental art of non-sculpture in a fringe, avant-garde manner.



〈꺼꾸로, 비미술〉, 실사 출력, 38 × 50cm
 'Sideup Down, Non-Art', Photo print,
 38 × 50cm

아시아 청년 미디어 조각 Young Asian Artist Media Sculpture

-
1. 이천표 Cheon-Pyo LEE (1980~) & 제이납 이자디아르 Zaynab IZADYAR(1983~), 한국 Korea, 이란 Iran
 2. 림콕용 Kok Yoong LIM (1980~), 말레이시아 Malaysia
 3. 밴디 라타나 Vandy RATTANA (1980~), 캄보디아 Cambodia
 4. 치카이웬 Kai-Yuan CHI (1983~), 대만 Taiwan
 5. 강주리 JooLee KANG (1982~) & 셴셴루오 Shenshen LUO(1980~), 한국 Korea, 중국 China
 6. 박경종 Kyung-Jong PARK (Shawn Park)(1979~), 한국 Korea
 7. 웨일런 제임스 디수자 Waylon James D'SOUZA (1986~), 인도 India
 8. 안성석 Sung-Seok AHN (1985~), 한국 Korea
 9. 박광수 Gwang-Soo PARK (1984~), 한국 Korea
 10. 이현준 Hyunjoon E (1982~), 한국 Korea
 11. 스테판 리아브첸코 Stepan RYABCHENKO (1987~), 우크라이나 Ukraine
 12. 나빌라 노르딘 Nabilah NORDIN (1991~), 싱가포르 Singapore
 13. 키무라 미츠노리 Mitsunori KIMURA (1983~), 일본 Japan



이천표 (1980~)
Cheon Pyo LEE

한국 Korea

한국 출생
현, 미국 뉴욕 거주 및 활동
Born in South Korea
Lives and works in
New York, US

제이납 이자디아르 (1983~)
Zaynab IZADYAR

이란 Ir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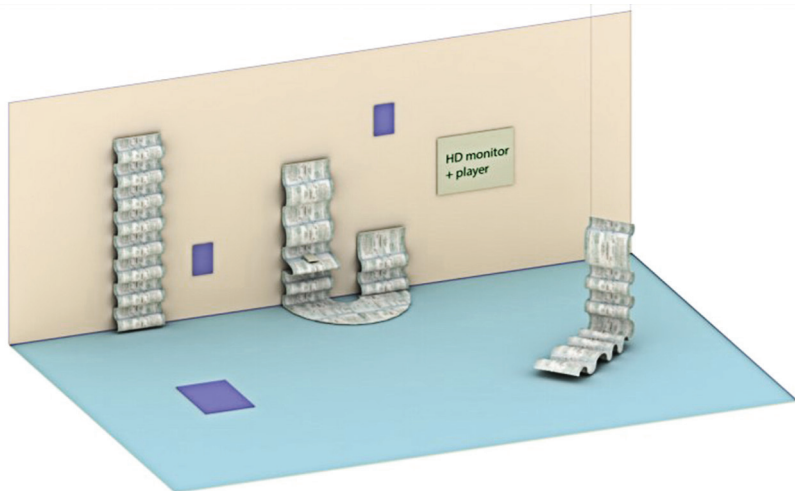
이란 카라즈 출생
현, 미국 뉴욕 거주 및 활동
Born in Karaj, Iran
Lives and works in
New York, US

자율의 변명 (콜라보 : 이천표 & 제이납 이자디아르)

ALIBI OF AUTONOMY (COLLABORATION : CHEON-PYO LEE & ZAYNAB IZADYAR)

생산과 유지 보수의 반복에 주목해 작업한다. 작가 부부가 바젤에 예술가 레지던시에서 생활하면서 받은 영수증을 모은다. “Alibi of Autonomy”는 작가에게는 예술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삶에 초점을 두고 수집한 콜렉션이며, 이렇게 모은 영수증 가게부는 소설가 Razmig Bedirian에게 건네진다. 소설가는 이를 실제 사건과는 별개로 영수증 속 소비를 따라가는 여정을 통해 단편 소설 (The Rhinemaiden A shortness of breath and a taste of ash)을 완성한다. 영수증은 레지던시에 지원하고 선발된 작가의 생활을 담은 기록이고 소설가에게는 글의 재료이다. 이 소설을 작가에 의해 다시 이미지와 영상, 설치로 재생산된다. 이번 작품인 “Alibi of Autonomy”는 작가 스스로의 자율성의 기록인 동시에 기관의 지원을 받았기에 열심히 활동해야 하는 예술가의 알리바이이다. 하나의 영수증은 두 가지 컨텍스트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본다.

“Alibi of Autonomy” disguises autonomy in th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structured into daily life. Realizing the fact that an art practice is a practice of repetition and maintenance, Artists Zeynab Izadyar and Cheon pyo Lee presents “Alibi of Autonomy.” This book presents a collection of receipts from “all” expenses in Basel during Atelier Mondial residency along with the novella written by Razmig Bedirian. The writer who never visited Basel was assigned a book of receipts collected from Basel. In order to write the story, he had to play the role of a detective analyzing my expenses and itineraries.



불사조의 인식론 AN EPISTEMOLOGY OF PHOENIX

이 제작 실험은 시각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요인 (필요와 가치)과 외부 요인 (강도, 색, 크기)의 상호 작용을 보여줌으로써 세종대왕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이 조각은 내부 추상화를 구체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힘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됨을 보여주기 위해 3D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고대 문화 데이터의 트랜스 코딩 잠재력은 역사를 순수한 추상 형태로 표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이미지 또는 기억의 형태는 관객의 신념에 도전하기 위한 단순한 현상학적 호기심으로 제시한 것이다.

This fabrication experiment analyzes the role of communicating the ideologies of King Sejong through his music by demonstrating the interplay of internal factors (needs and values) and external factors (intensity, color, size) that are affecting the perceptual salience. The sculpture encompasses digitally fabricated objects used as vehicle for the exercise of a new forms of power a power to materialize the internal abstraction. It is the transcoding potential of an ancient cultural data allows history to be displayed at its pure abstract forms. These memory images/ forms are presented as a mere phenomenological curiosity to challenge audience's belief about memory beliefs.



림국용 (1980~)

Kok Yoong LIM

말레이시아 Malaysia

말레이시아 출생

현, 말레이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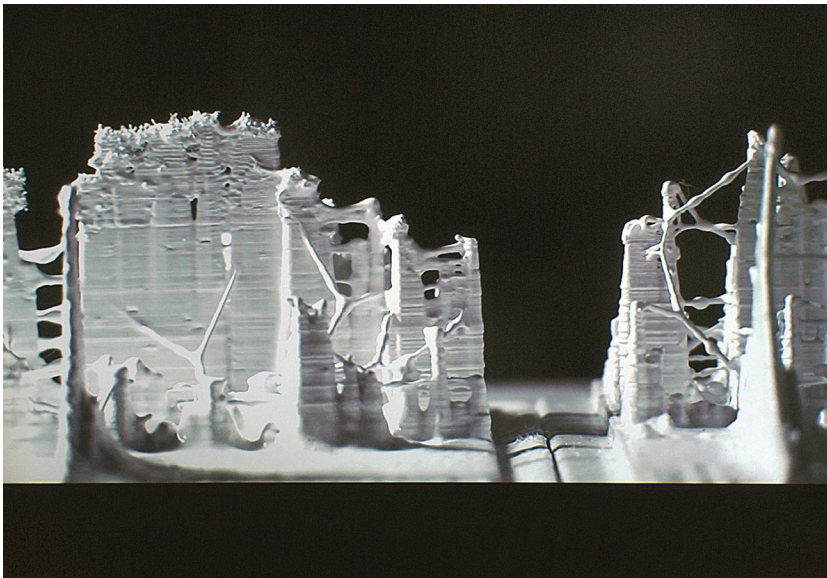
쿠알라룸푸르 거주 및 활동

Born in Malaysia

Lives and

works in Kuala

Lumpur, Malaysia



〈불사조의 인식론〉, 2019, 3D프린팅, ABS, 가변 크기

'An Epistemology of Phoenix', 2019, 3D printing, ABS, Variable size



밴디 라타나 (1980~)

Vandy RATTANA

캄보디아 Cambodia

캄보디아 출생

현, 일본 거주 및 활동

Born in Cambodia

Lives and works in

Japan

저 멀리, 저 곳에 바다 FAR AWAY, OVER THERE, THE OCEAN

“Far away, over there, the ocean”은 총 세편의 필름 중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모노로그이다. 영상은 바쁘게 지나가는 도시 프놈펜에 살고 있는 한 젊은 화가에 대한 이야기다. 작가는 풍경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며, 이러한 행위를 통해 미에 대한 환상을 쫓는 한 사람의 삶과 경험에 대한 조각들을 투영한 경험을 풀어낸다.

“Far away, over there, the ocean” is second part of MONOLOGUE Trilogy. The film is about a young irritating painter who lives in Phnom Penh, the busy capital. He is wandering around and trying to understand the existence of landscape. It is just a sensation that is produced by various fragments of experiences in life of a person that creates by itself a projection into an illusion of beauty.



〈저 멀리, 저 곳에 바다〉, 2019, 35분 영상, 가변 크기

‘Far away, over there, the ocean’, 2019, 35min video, Variable size

마운틴 오션 MOUNTAIN OCEAN

작가는 공간과 사람, 문화에 주목한다.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공간의 특성을 살림과 동시에 동양적 컨텍스트에 뿌리를 두고 <마운틴 오션>을 재건한다. 전시가 진행되는 지역의 기와를 이용해 바다를 표현하고 바다 앞 풍경을 작가의 시점으로 보여주어 각자 다른 곳에 있어도 바라보는 지점을 통일하고 싶어하는 작가의 의도를 보여준다.

The artist pays much attention to the dialectical relation within space, human beings and cultures. Thus, by applying local roofing tiles in a space of unique characteristics, he reconstructs so-called "Mountain Ocean" which has its origin in the Asian context. The artist expresses the ocean as a metaphor by using traditional bricks from the site. The landscape upon the horizon is chosen by the artist, which shows the intention of him wanting to share the same view with the viewers.



치카이옌 (1983~)
Kai-Yuan CHI

대만 Taiwan

대만 가오슝 출생

현, 대만 타이베이

거주 및 활동

Born in

Kaohsiung, Taiwan

Lives and works in

Taipei, Taiwan



<마운틴 오션>, 2020, 아크릴판, 기와, 260 × 364 × 477cm

'Mountain Ocean', 2020, Acrylic plate, Roof tile,
260 × 364 × 477cm



강주리 (1982~)
JooLee KANG

한국 Korea
한국 수원 출생
현, 한국 서울,
미국 보스턴 거주 및 활동
Born in Suwon,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and Boston, US



셴셴루오 (1980~)
Shenshen LUO

중국 China
중국 북경 출생
현, 중국 북경 거주 및 활동
Born in Beijing, China
Lives and works in
Beijing, China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존재하지만 볼 수 없는 CANNOT SEE BUT EXIST, CAN SEE BUT NOT EXIST

강주리와 셴셴루오의 첫 협업 작품으로 함께 미국에서 활동할 당시 느꼈던 인지적 불확실성이 주는 언캐니(Uncanny, 낯익은 두려움, 기이한 느낌) 현상에 대한 공통의 관심에서 영감을 얻었다. 살아 있음(존재함)과 변화, 부재에 대한 고찰을 담은 강주리 작가의 드로잉을 기반으로 셴셴루오의 새로운 색과 리듬을 담아 공간을 연출한다.

Kang and Luo have had worked in the US and shared the common interest in the phenomenon of Uncanny (familiar fear, bizarre feeling) given by cognitive uncertainty. This work shows their thoughts about being alive (existing), changing, and absence in their work through their first collaboration as a video installation work.



〈혼란〉, 2018, 종이에 펜, 잉크젯 프린트, 가변 크기

'Chaos', 2018, Pen on paper, Inkjet printing, Variable size

태그 맨 서울 TAGMAN SEOUL

태그맨은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 그리고 사회적 상호 작용이 혼합된 퍼포먼스를 포함한다. 모든 사람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며 자체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세계에서 정보를 운영하는 시스템의 의도는 깊이 생각해 볼 만 하다. 체제는 결국 인간의 행동과 가치를 통제하고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태그 맨은 정보로서 파편화된 인간의 모습을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보여준다. 단 현실과 반대로, 여기서의 알고리즘과 목적은 순수한 예술이다.

Tagman is a performance art mixed with drawings and social interaction. In the world where every human produces a tremendous amount of self-created data and images, the intention of the operating system is worth investigating. It can control human behavior and values. Tagman physically represents fragmented information of humans and the system that shares it. On the contrary to reality, the algorithm and purpose here is purely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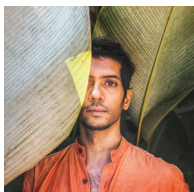
박경종 (1979~)
Kyung-Jong PARK
(Shawn PARK)

한국 Korea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전주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Jeonju, Korea



〈태그맨 서울〉, 2018, 혼합재료, 퍼포먼스

'Tagman Seoul', 2018, mixed media, Performance



웨이런 제임스
디수자 (1986~)
Waylon James D'SOUZA

인도 India
인도 뭍바이 출생
현, 인도 고아 거주 및 활동
Born in Mumbai, India
Lives and works in Goa,
India

영원한 귀환의 메아리 ECHOES IN ETERNAL RETURN

무엇이 자연이고 무엇이 합성인가? 플라스틱 공들은 바다를 은유하면서도 한 때 플랑크톤의 과거, 그리고 현재 물속에 떠도는 석유 등을 표현한다. 마치 배가 바다에서 녹슬 듯, 모든 것은 산화한다. 작가는 고래와 사람, 두 종류의 포유류를 시적으로 해석하여 그 딜레마를 표현한다. 환경에 해를 줄 수밖에 없지만 계속 항해해야 하는 선원처럼, 고래와 플랑크톤이 결국 천년 동안 화석이 되어 석유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이들의 인과 관계는 니체의 사상과 불교의 철학을 반영한다.

What is natural and what is synthetic? The plastic balls emulate the oceans, and also the represent petroleum and its effects, whose origins were plankton of the past which sequestered carbon for our current consumption, evolution and its release. The great oxygenation lead to the great oxidation, like a ship rusting at sea, iron that feeds the plankton, and then the whales in turn. This is the ocean a sailor has to navigate, which he extracts or transports resources for the rest of mankind while affecting the ecosystem, the whale and plankton, that sequesters carbon to form fossil fuel for the future millennia, thus reflecting philosophies of Nietzscheism and Buddhism.



〈영원한 귀환의 메아리〉, 2020, 영상, 볼 폴, 가변 크기

'Echoes in Eternal Return', 2020, Video, Ball poll, Variable Size

일시적 자율 공간 TEMPORARY AUTONOMOUS ZONES

일시적 조각이 위치한 일시적 자율 공간은 권력에 대항하는 영토로서 작용하고, 억압되거나 흡수되기 이전에 해산된다. 동시대 예술은 공동체를 대표하는 개념이다. 도시 공간을 재배치해 도시를 변화시킨 부동산 사업 방식과 마찬가지로 동시대 미술도 장소의 확산과 책임의 결여로 정의된다. 예술품은 경제적 자산이 됐고, 때로는 공공성과 사적인 부가 충돌하는 미술시장의 흥망성쇠를 보면 점차 소멸하는 공공의 공간을 떠올릴 수 있다. 그 중심에는 조각 사업이 있고, 작가 또래 많은 예술가들도 결국엔 장소의 확산과 책임의 결여로 이어지는 길로 빠져들고 있다.

Temporary Autonomous Zones where a Temporary Sculpture is located acts as a territory against power, and is dissolved before it is suppressed or absorbed. The contemporary art is a concept that represents the community. Just like the real estate business method, which changed the city by rearranging the urban space, contemporary art is defined by the spread of places and the lack of responsibility. Art has become an economic asset, and the rise and fall of the art market, where public and private wealth sometimes collide, can remind us of a public space that is gradually disappearing. At its core is the sculpture business, and in the end many artists his age are also falling into the path leading to the spread of places and lack of responsibility.



안성석 (1985~)
Sung-Seok AHN

한국 Korea
한국 수원 출생
현, 한국 수원과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Suwon, Korea
Lives and works in
Suwon & Seoul, Korea



〈일시적 자율 공간〉, 2020, VR, 모니터, 250 × 421 × 267.4cm

‘Temporary Autonomous Zones’, 2020, VR, monitor,
250 × 421 × 267.4cm



박광수 (1984~)

Gwang-Soo PARK

한국 Korea

한국 강원도 철원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Cheorwon,

Gangwondo,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60페이지 60 PAGE

이 작업은 병동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환자를 작은 수첩에 그린 드로잉에서 시작한다. 잠자는 환자를 그린 드로잉 위에 같은 크기의 두 번째 종이를 대고 베껴 그린 후, 두 번째 장위에 세 번째 장을 대어 베껴 그리는 식으로 60장을 반복해서 그려 연결한다. 손의 부정확함 때문에 베껴 그린 드로잉들이 미세하게 달라지고 달라진 형태를 대고 다시 반복해서 그린 드로잉들을 모두 연결했을 때 숨이 열어서 정지된 듯 보이는 대상이 크게 숨쉬는 것 같이 보였으면 했다.

My drawing begins from a patient I drew who was resting in bed at a hospital. I traced over the first drawing, and then traced over and over until there were 60 of them. By the inaccuracy of my hands when tracing, I hoped that the subject seemed to be breathing when these drawing were animated.



〈60 페이지〉, 2012, 드로잉 애니메이션, 반복 재생,
150 × 15 × 46cm
'60 Pages', 2012, Animated vid, Continuous loop,
150 × 15 × 46cm

계절감 있는 작업 SEASONAL WORK

작가는 설치미술가로 조각, 페인팅, 사진, 퍼포먼스, 음악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작업하며, 언제나 ‘자아’에 대한 주제 의식을 놓지 않는다. 이번 작업은 “계절감 있는 작업”에 대한 고찰로 시작된다. 작가의 교묘한 솔루션은 선풍기와 조명, 천을 이용해 공감각적으로 표현되고 현실을 살기 위해 주체를 잃어가는 미술 작가들의 이야기를 포함한다.

The work starts from consideration of “seasonal art piece”, Their episodes are satirized with humor and expressed sympathetically and it represents contemporary artists who are losing their consciousness to survive with using fans, lightings and fabric.



이현준 (1982~)

Hyunjoon E

한국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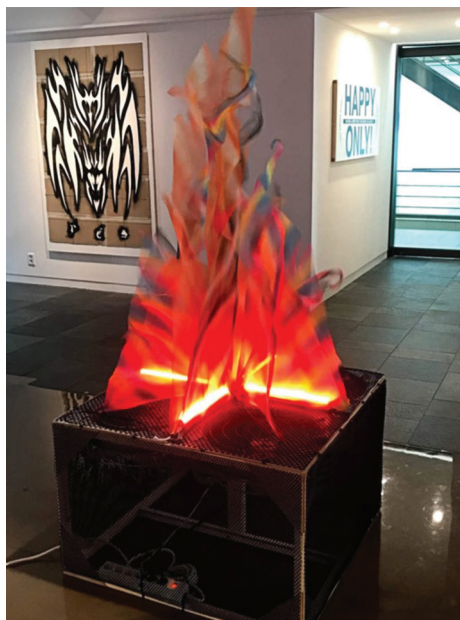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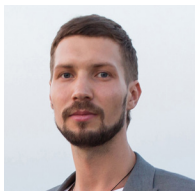
Seoul, Korea



〈계절감있는 작업〉, 2018, 환풍기, 천,

우드프레임, 200 × 92 × 92cm

‘Seasonal work’, 2018, Ventilators, Fabric, Wood frame,
200 × 92 × 92 cm



스테판

리아브첸코 (1987~)

Stepan RYABCHENKO

우크라이나 Ukraine

우크라이나 출생

현, 우크라이나 거주 및 활동

Born in Ukraine

Lives and works in

Ukraine

버추얼 가든 시리즈 중 FIOLENT CRYSTAL BABY

FIOLENT CRYSTAL BABY- FROM THE VIRTUAL GARDEN

작가의 디지털 자연은 환경과 인류의 하모니를 이루는 목적의 의식과 그 관계성에 주목한다. 가상의 정원 연작은 의인화된 꽃이 가상의 풍경 속에서 자라는 모습을 표현한다. 환상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꽃 한 송이의 꽃잎과 잎을 움직이는 모습은 작가의 형제 세르게이 리아브첸코의 동작과 풍부한 사운드트랙을 함께 작업하여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Stepan Ryabchenko’s digital nature espouses the idea of harmony between human kind and its environment, where each side of the relationship is seen as a subject endowed with consciousness. The series Virtual Garden is comprised of anthropomorphic flower characters inhabiting minimalist virtual landscapes. Each character comes with a personality, the artist’s description, and a mythology. In the world of his own making, the artist faces no external canons or limitations. “Brought to life” with animation, the fantastical flower slowly moves its tentacle leaves to atmospheric ambient soundtrack, developed by the artist’s brother Sergey Ryabchenko specifically for the purpose.



〈버추얼 가든 시리즈 중 Fiolent Crystal Baby〉, 2018,
디지털 영상, 7분
*'Fiolent Crystal Baby - From the Virtual Garden',
2018, digital video, 7minutes in loop*

특징 SALIENT FEAT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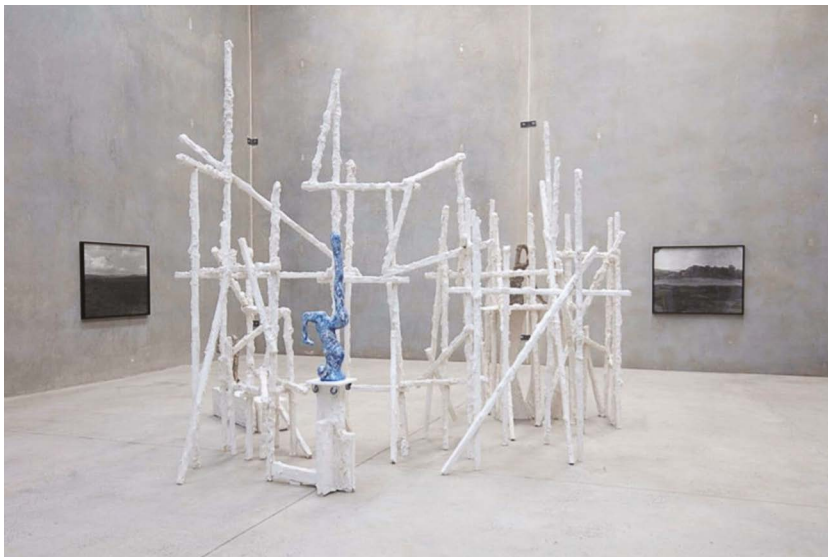
작가의 조형적 설치는 건축물과 재료에 관한 혼돈을 표현한다. 조형물들은 낮고 붕괴되는 건축의 현장을 묘사한다. 이번 작품 〈특징〉 또한 이러한 불온전한 형태가 각기 다른 높이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를 표현한다. 이러한 시도는 체계화되지 않으며 불안해 보이지 않는 계급 사회를 또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 작가의 의도이다.

Nabilah Nordin's sculptural installation honours a haphazard approach to building and materiality. Constantly tinkering with the precariousness of construction, her sculptures speak to the challenges of decay and collapse. In 〈Salient Features〉, three small sculptures are propped up on different levels of what appears to be an unstable armature. This wooden structure adopts an arbitrary hierarchy of objects where certain sculptures are either elevated or demoted. They play on an attempt of monumentality within an unsystematic yet inventive vocabulary.



나빌라 노르딘 (1991~)
Nabilah NORDIN

싱가포르 Singapore
싱가포르 출생
현, 오스트레일리아
거주 및 활동
Born in Singapore
Lives and works in
Australia



〈특징〉, 2020, 나무, 시멘트, 아크릴, 가변 크기

‘Salient Features’, 2020, wood, cement, Acrylic, Variable size

Installation view from ‘Pease Altitude’ group show at
The Commercial, 2019 Photo: Alex Kiers / The Commercial



키무라 미츠노리 (1983~)
Mitsunori KIMURA

일본 Japan

일본 출생

현, 시즈오카, 일본

거주 및 활동

Born in Shizuoka, Japan

Lives and works in

Shizuoka, Japan

우리, 포유류 WE MAMMALS

털이란 요소는 포유류와 사람에게 생명의 상징과 같은 존재다. “털은 후에 부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털은 자란다.” 자라나는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 작가는 털이 자라는 패널을 발명하고, 자라나는 털이 표현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체인 톱으로 인해 깎이는 과정을 적용하여 작품이 더 현실적으로 보이게끔 작업한다.

Fur (hair) is common in mammals and human, and symbol of the life. “Hair isn’t something to attach afterwards. It grows.” Thus, hair (fur) have to be grown from the artworks themselves. The artist has invented “hair-growing panel” to reproduce a condition of “growing hair” on the surface like fur. Hair grows automatically simply by shaving the surface with chainsaw. In this way, Actual rules are incorporated into the art works and make it more realist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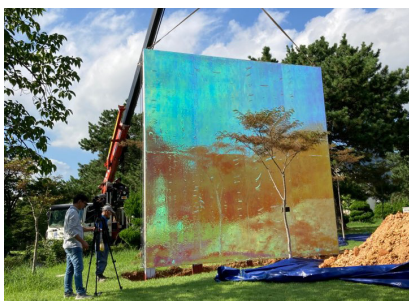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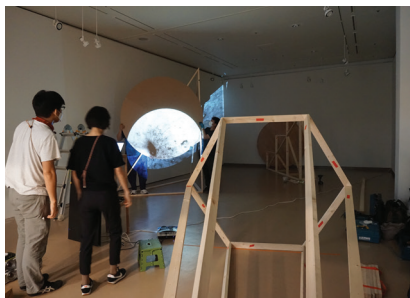
〈우리, 포유류〉, 2016, 판넬 위 아크릴, 가변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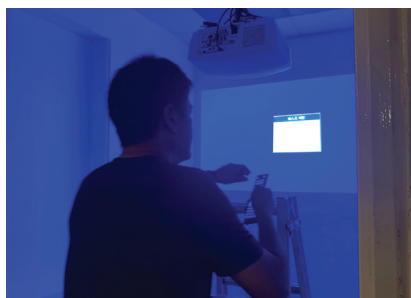
‘We Mammals’, 2016, Acrylic on hair-growing panel, Variable size

포토앨범 Photo Album











후원 및 협찬 Sponsors

주최 Hosted by



주관 Organized by



후원 Sponsored by



메인 협찬사 Main Supported by



프리미엄 협찬 Premium Supported by



미디어 후원 Media Supported by



협력 Cooperated with

경남도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창원대학교 메이커아지트, 창원미술청년작가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예술과미디어학회,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그린하우스, 알싸깨또마 플라멩코, 극단나비, 극단상상창고, 아니모컴퍼니, 2020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당 신 덕 분 에



당신과 함께한 50년

매일같이 잊지않고 찾아준 덕분에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덕분에

한결같이 믿고 맡겨준 덕분에

덕분에 우린 지금 행복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고 [창립 50주년 기념] 영상을 만나보세요

2020창원조각비엔날레를 만든 사람들

People who mad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 창원시장

허성무(창원문화재단 이사장)

•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제규

• 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회

황무현 추진위원장, 황규종 부위원장, 강주연,
고영문, 김경희, 김영호, 김이순, 원인종, 윤진섭,
이상현, 천원식, 최대식, 최태만, 한진섭

• 창원조각비엔날레추진팀

추진팀장 : 김용만
기획운영총괄 : 손지영
운영 및 행정 : 이동근
홍보마케팅 : 이소진, 윤예지
전시 설치 과장 : 김민성
전시 설치 지원 : 신재호
전시장 관리 : 김덕남

• 도슨트

김정삼, 송지영

• Mayor of Changwon City

Sung-Moo HUH (Chairperson of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 President of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Je-Gyu KANG

• Steering Committee Members

Chairperson : Mu-Hyeon HWANG
Vice-Chair Person : Kyu-Jong HWANG
Member : Joo-Yeon KANG, Yeong-Moon KO,
Kyeong-Hee KIM, Young-Ho KIM, Yi-Soon KIM,
In-Jong WON, Jin-Seop YOON, Sang-Heon LEE,
Won-Sik CHEON, Dae-Sik CHOI, Tae-Man CHOI,
Jin-Sub HAN

• Executive Team Members

The Executive Director : Yong-Man KIM
Management and Operation : Ji-Young SON
Administration : Dong-Geun LEE
Public Relations : So-Jin LEE, Ye-Ji YOON
Production Manager : Min-Seong KIM
Production Support : Jae-Ho SHIN
Exhibition Support : Deok-Nam KIM

• Docent

Jeong-Sam KIM, Ji-Young SONG

• 비엔날레 기획

총감독 : 김성호
수석큐레이터 : 김숙경
큐레이터 : 차상민
협력큐레이터 : 박소희, 조수혜, 고은빈
커미셔너 : 왕지예, 이드리사 잘로
코디네이터 : 성기민, 박혜윤

• Biennale Plan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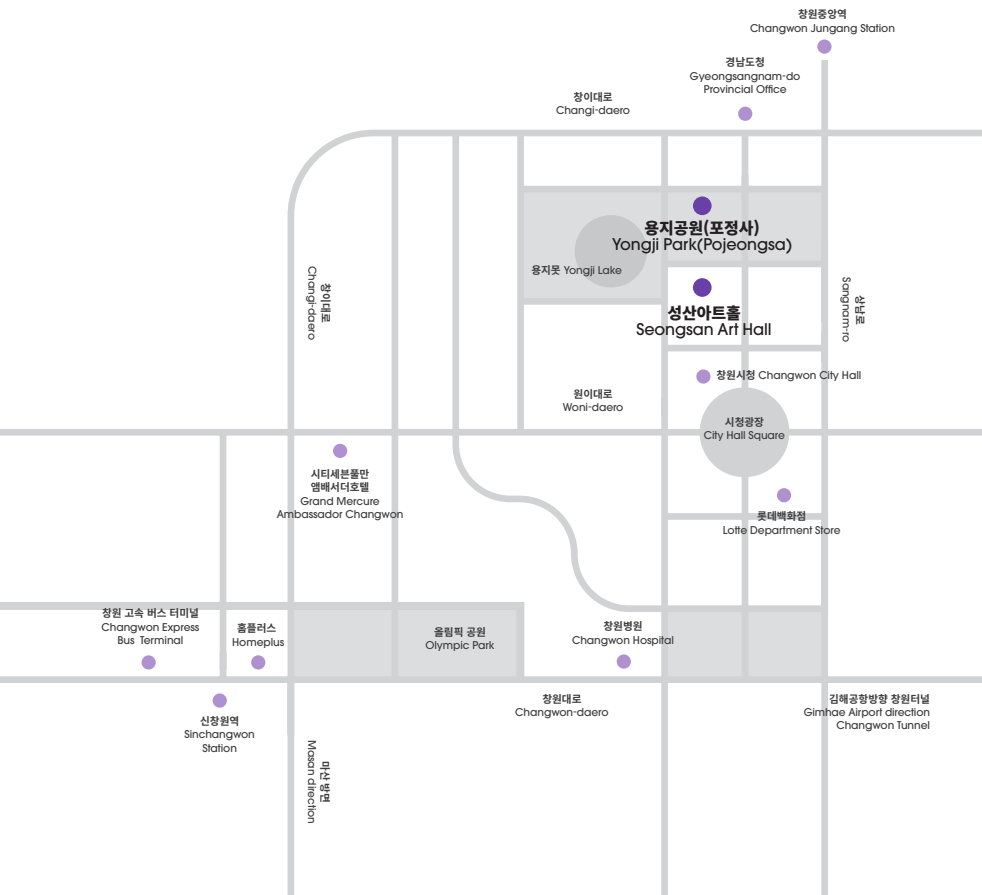
Artistic Director : Sung-Ho KIM
Senior Curator : Sook-Kyeong KIM
Curator : Sang-Min CHA
Associate Curator : So-Hee PARK,
Susan CHO, Eun-Bin KOH
Commissioner : Wang Jie (王皆), Idrissa Diallo
Coordinator : Ki-Min SUNG, Hye-Yoon PARK

Yongji Park(Pojeongsang)

Yongji Park, Yongho-dong 3, Uichang-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 Seongsan Art Hall

181, Jungang-daero, Uichang-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발행처 : 창원문화재단
발행인 : 창원문화재단 이사장 허성무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81
c.s. biennale2020@gmail.com
changwonbiennale.or.kr
인쇄 : 주식회사 남성기획
디자인 : 오르카 스튜디오
번역 : 시그니처W

Published by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Publisher
Chairperson,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181, Jungang-daero, Uichang-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c.s. biennale2020@gmail.com
changwonbiennale.or.kr
Printer : NAMSUNG & PRINTING CO., LTD.
Design : Orrka Studio
Translation : Signature W

